연구보고서 2020-06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이현주
곽윤경·전지현·구혜란·변금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구혜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0-06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고려씨엔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ISBN 978-89-6827-719-1 93330

발|간|사

사회정책의 관심이 되는 경제사회적 이슈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과거, 소득의 빈곤에 정책적 관심이 한껏 쏠린 시절이 있다. 이 시기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사회구성원이 굶지 않도록 기초적인 생존수준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후 소득불평등으로 관심이 변화하면서 사회정책에서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늘리는 과제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더 중요해졌다. 최근에는 사회구성원의 소득과 더불어 주거, 의료, 교육 및 돌봄 등의 삶의 물적 토대,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으로 정책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행복과 같은 주제가 사회경제학에서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불안의 수준과 불안과 관련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복과 불안은 다분히 주관적인 정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현상이다.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불안정한 정서이므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회 정책이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에 관심으로 갖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다. 물적 박탈뿐 아니라 미래 내 삶이 과거보다 악화될 것 같은 부정적 전망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뿐 아니라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에 취약해져버린 자존감도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이 얼마나 심한지, 무엇으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는지를 이해하고 어느 지점에서 사회적인 노력을 배가하여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 사회적 불안을 점검하고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이 연구의 다양한 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2020년에 수행한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을 다루는 다년간의 연구 중 2차 연도 연구로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초점을 두었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정체를 규명하는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의 내용, 관련 요인의 영향, 그리고 대처기제를 포괄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불안의 관리 기제의 구축을 제안하고, 더불어 청·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이 변화하기를 제안했다. 최근 청·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이 특화, 그리고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제반 요인을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의 청·중년이 조금은 더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미래가 그들이다.

본 연구는 이현주 선임연구위원의 주관 하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구혜란 박사, 서울연구원의 변금선 박사, 그리고 원내의 곽윤경 부연구위원, 전지현 전문연구원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사회적 불안에 대해 진지하게 성심으로 고민을 함께 해주셨다. 전문가로서, 청·중년으로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힘이 되어 주셨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 자문으로 그리고 원고로 참여하여 도와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조금이라도 미래의 변화에 쓰임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1
제2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 20
제3절 연구의 방법 ····· 23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 27

제1절 분석의 전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 ····· 29
제2절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와 함의 ····· 38
제3절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와 함의 ····· 45
제4절 분석틀과 조사내용의 구성 ····· 50

제3장 청·중년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집단 비교 ····· 57

제1절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 비교 ····· 60
제2절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구조 ····· 67
제3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 82
제4절 주요 요인별 사회적 불안 ····· 87

제4장 사회적 불안의 설명요인 ····· 103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 105
제2절 사회적 불안의 중심 요소 ····· 118
제3절 사회적 불안의 외재적 설명요인 ····· 124
제4절 소결 ····· 134

제5장 사회경제적 계층과 청·중년 사회적 불안 ····· 137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 139

제2절 계층과 사회적 불안의 인지 ····· 148

제3절 계층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 ····· 159

제4절 계층별 생애 경험과 사회적 불안 ····· 169

제5절 소결 ····· 181

제6장 청·중년 사회적 불안과 대처기제 ····· 183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 185

제2절 집단별 대처방식과 사회참여 비교 ····· 192

제3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의 영향 ····· 209

제4절 소결 ····· 227

제7장 결론: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제안 ····· 231

제1절 주요 결과와 시사점 ····· 233

제2절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안 ····· 236

참고문헌 ····· 251

부록: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설문지 ····· 265

표 목차

〈표 1-1〉 설문조사의 표본 구성의 고려기준 ····· 23
〈표 2-1〉 사회적 불안 척도의 하위 차원 ····· 52
〈표 2-2〉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구성 ····· 56
〈표 3-1〉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과 관련 지표의 자료구성 ····· 63
〈표 3-2〉 사회적 불안 지표 간 상관관계 ····· 64
〈표 3-3〉 사회적 불안 지표 회귀분석 결과 ····· 66
〈표 3-4〉 신뢰도 분석 결과 ····· 68
〈표 3-5〉 요인분석 결과 ····· 70
〈표 3-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73
〈표 3-7〉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 76
〈표 3-8〉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수준 ····· 78
〈표 3-9〉 사회적 불안/하위 영역/개인 불안의 상관관계 ····· 79
〈표 3-10〉 경험/인식과 사회적 불안 ····· 81
〈표 3-11〉 삶의 만족과 사회적 불안 ····· 82
〈표 3-1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 84
〈표 3-13〉 응답자의 가구구성 특성과 사회적 불안 ····· 86
〈표 3-14〉 취업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 88
〈표 3-15〉 경제활동과 사회적 불안 ····· 89
〈표 3-16〉 성별·자녀 유무별 사회적 불안 ····· 90
〈표 3-17〉 이직 경험과 사회적 불안 ····· 91
〈표 3-18〉 일자리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불안 ····· 92
〈표 3-19〉 일자리 선택 기준과 사회적 불안 ····· 93
〈표 3-20〉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불안 ····· 94
〈표 3-21〉 계층귀속의식과 사회적 불안 ····· 95
〈표 3-22〉 가족관련 가치관과 사회적 불안 ····· 97
〈표 3-2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불안 ····· 98
〈표 3-24〉 삶에 대한 전망과 사회적 불안 ····· 100

〈표 3-25〉 코로나19와 사회적 불안 ····· 101
〈표 4-1〉 변수 설명 ····· 115
〈표 4-2〉 사회적 불안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 ····· 126
〈표 5-1〉 출생코호트별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연령 ····· 144
〈표 5-2〉 불평등과 청년·중년의 사회적 불안 분석 방법 ····· 145
〈표 5-3〉 분석 대상 일반적 특성 ····· 147
〈표 5-4〉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49
〈표 5-5〉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0
〈표 5-6〉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2
〈표 5-7〉 청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3
〈표 5-8〉 청년층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4
〈표 5-9〉 청년층의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5
〈표 5-10〉 중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6
〈표 5-11〉 중년층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7
〈표 5-12〉 중년층의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8
〈표 5-13〉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 160
〈표 5-14〉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 162
〈표 5-15〉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 163
〈표 5-16〉 계층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 165
〈표 5-17〉 계층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 166
〈표 5-18〉 계층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 167
〈표 5-19〉 사회적 불안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 168
〈표 5-20〉 연령별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경험 현황 ····· 170
〈표 5-21〉 연령별 만 12세 이후 박탈 경험 현황 ····· 171
〈표 5-22〉 귀속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 173
〈표 5-23〉 귀속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 ····· 175
〈표 5-24〉 귀속지위와 주요 사건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 177

〈표 5-25〉 귀속지위와 박탈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 177
〈표 5-26〉 귀속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박탈 중복 경험과 사회적 불안 (Linear probability model) ····· 180
〈표 6-1〉 기타 활용 변수 ····· 191
〈표 6-2〉 전체, 청년 및 중년의 대처방식 ····· 193
〈표 6-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처방식(3개까지 응답) ····· 194
〈표 6-4〉 근로 형태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3개까지 응답) ····· 195
〈표 6-5〉 개인의 소득계층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3개까지 응답) ····· 197
〈표 6-6〉 거주 지역과 불안 대처방식 비교(3개까지 응답) ····· 199
〈표 6-7〉 사회 불안 수준에 따른 대처방식 ····· 201
〈표 6-8〉 온라인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 202
〈표 6-9〉 오프라인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 203
〈표 6-10〉 공적 모임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 204
〈표 6-11〉 사적 모임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 206
〈표 6-12〉 선거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 207
〈표 6-12〉 선거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계속) ····· 208
〈표 6-1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 210
〈표 6-14〉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212
〈표 6-15〉 청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213
〈표 6-16〉 중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215
〈표 6-17〉 전체 응답자의 사회참여가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217
〈표 6-18〉 청년의 사회참여가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219
〈표 6-19〉 중년의 사회참여가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 220
〈표 6-20〉 사회참여와 한국사회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222
〈표 6-21〉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222
〈표 6-22〉 청년의 사회참여와 한국사회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224

〈표 6-23〉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224
〈표 6-24〉 중년의 사회참여와 한국사회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 226
〈표 6-25〉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226
〈표 7-1〉 182개 관리과제 청년정책 분류체계 중분류별 정책 과제 수 및 예산 ····· 242
〈표 7-2〉 청년 정책의 지원형태별 예산액(2019 기준) ····· 244
〈표 7-3〉 청년수당 지원사업 ····· 246

그림 목차

[그림 1-1]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 ····· 16
[그림 1-2] 설문 및 분석 내용 구조도 ····· 25
[그림 2-1] 사회적 불안의 전체적 구조 ····· 35
[그림 2-2] 사회적 불안과 관련 요인의 관계 구조도 ····· 35
[그림 2-3] '성공을 위한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의 연령대별 비교 ····· 43
[그림 2-4]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분석틀 ····· 51
[그림 3-1]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의 시기별 국가 비교 ····· 61
[그림 4-1] 사회적 불안 설명 변수 구성 틀 ····· 115
[그림 4-2]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 청·중년 대상 ····· 119
[그림 4-3]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 노드 중심성: 청·중년 대상 ····· 121
[그림 4-4] 청년과 중년의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 ····· 122
[그림 4-5] 청년과 중년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 노드 강도 비교 ····· 124
[그림 4-6] 사회적 불안 하위 유형과 외재적 요인 간 네트워크 ····· 130
[그림 4-7] 세대별 사회적 불안 하위 유형과 외재적 요인 간 네트워크 ····· 133
[그림 5-1] 계층, 사회적 위험, 사회적 불안의 관계 ····· 141
[그림 5-2] 2020년 현재 청년·중년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1976~2020년) ····· 144
[그림 5-3] 부모 재산 수준과 본인 소득계층 분포 비교 ····· 148
[그림 5-4]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0
[그림 5-5]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1
[그림 5-6] 청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3
[그림 5-7] 청년층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4
[그림 5-8] 중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7
[그림 5-9] 중년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 158
[그림 5-10]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 ····· 161
[그림 5-11]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 ····· 162
[그림 5-12] 연령별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경험 현황 ····· 170
[그림 5-13] 연령별 만 12세 이후 박탈 경험 현황 ····· 172

[그림 5-14] 귀속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정서적 어려움 ····· 174
[그림 5-15] 귀속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 ····· 175
[그림 5-16] 연령별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박탈 중복 경험 ····· 178
[그림 5-17] 귀속지위(부모 재산)별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따른 박탈 중복 경험 ····· 179
[그림 6-1] 근로 형태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 ····· 196
[그림 6-2] 근로 형태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 ····· 196
[그림 6-3] 개인의 소득계층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 ····· 197

Abstract

A Study of Social Unrest in Korea: for young people

Project Head: Lee, Hyon Joo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social unrest among young people in Korea. In particular, we examine the conceptual construct and level of social unrest and factors affecting social unrest. Now in its second year, this study bases its findings on a web-based social survey.

The five elements identified that construct the concept of social unrest are: justice, competition and inequality, security, trust in government, adaptation/falling behind. Justice and trust in government are key nods in the network of every elemental questions of social unrest index. Socioeconomic class affects social unrest of young people, especially assets of parents and income of respondents. Research findings support that social gathering could mitigate social unrest and that self-esteem affects social unrest as a parameter.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including building a monitoring system and making changes to youth policies.

* Key words: social unrest, youth, social policy, justice, socioeconomic class.

Co-Researchers: Kwak, Yoon Kyung · Jun, Ji Hyun · Koo, Hearan · Byun, Geumsun

요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구조, 사회적 불안의 요인, 그리고 사회적 불안의 대처기제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불안은 일종의 공통적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의 설계와 개선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5년간의 연구,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중 2차년의 연구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2차 연도 연구는 당초 1차 연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과 1차 연도의 질적 연구 결과,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설문조사의 대상을 변경하였다.

연구의 주된 방법은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다수의 전문가 및 청·중년이 참여한 자문회의 개최이다. 청·중년 4,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했는데,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대처기제, 그리고 응답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사회적 불안이란 사회 체계적 요인으로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정한) 기분이나 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사회 불안이란 사회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인지되거나 경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대응으로 현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개인의 사회

적 불안의 구성요소도 그리고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대처 기제도 사회적인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때는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제 측면을 포괄하는 문항 구성이 유용하고 한국(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때는 '공정성', '경쟁과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과 도태'로 하위 영역이 구성되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이 유용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단문으로 측정하는 사회적 불안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과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구조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측정한 결과, 불안 수준이 높았다.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사회적 불안의 인지는 전체 평균 4.14정도로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사회적 불안을 영역별로 보면 경쟁/불평등과 공정성에서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청·중년층이 사회적 불안의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원칙이 통하지 않는 편법 사회라는 인식이 청년과 중년 집단 모두에게 사회적 불안의 핵심적인 노드였다. 노드 중심성 면에서 두 집단의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청년층과 중년층 네트워크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청년의 경우 공정성 불안의 요소들과 적응 불안, 경쟁/불평등 불안의 요소들이 서로 많은 연결을 가지면서 서로를 강화하였으나 중년층에게는 그러한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외재적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과 네트워크분석 결과, 차별 경험과 박탈 경험,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이 사회적 불안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차별인식, 기회 공정성과 경제 불평등에 대

한 인식 등 주관적인 요인들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과 중장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의 계층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재산 수준과 본인의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였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는 현재 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청년과 중장년의 사회적 불안은 연령이 아닌 과업 이행의 상태-학생, 미취업, 취업-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낮은 경우, 주요 사회적 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과 돌봄, 교육, 주거, 건강 영역의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컸다.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이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불안의 요인과 관련하여 취업, 성, 지역, 건강, 미래 무망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청·중년의 취업 여부는 당연히 사회적 불안에 주는 영향이 컸다. 다만 취업 여부뿐 아니라 취업한 일자리의 문화 등의 여건도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아동이 있는 여성의 불안이 높아 가치관의 변화와 현실의 괴리가 여성의 불안을 높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주의 배우자가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던 것도 이러한 점을 추정하도록 한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대도시의 청·중년이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부 신뢰에서 불안이 높았다. 대도시 청·중년의 높은 불안은 주거 불안정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점유형태가 비자가인 경우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건강과 장애 여부도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결과는 청·중년의 경우 이 집단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른 연령집

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청년의 경우 미래 무망감은 사회적 불안에 특히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의 전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청·중년은 대처기제 중 친목모임이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중년의 오프라인 참여기회를 높이는 것,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참여 기회뿐 아니라 건강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참여기회를 늘리는 것이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적 불안의 변화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체계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정부는 누가 무엇을 어떤 주기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결정하여 이를 안정적인 위기감지 체계의 수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 수준, 불평등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전망, 사회참여 수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수준 등의 요인들이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감지하는 중요한 매개 지표들이 될 수 있다.

둘째, 청년의 사회적 불안을 낮추기 위하여 청년 집단의 다양한 불안요인을 이해하고 각 영역의 불안이 높은 집단들에게 집단별 특화되는 종합적 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도 취업의 장애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대비 조금 더 세분화된 정교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중년의 일자리는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일의 의미를 재구축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되도록 하고 직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일과 직장에서의 환경은 매우 주요한 정책과제들을 남기고 있으므로 여성 청·중년의 불안을 낮추는 종합적 취업지원이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청·중년의 정서에 조금 더 주목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중년 대상 제반 정책들이 청·중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 노력을 포괄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믿음, 자존감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주요 용어: 사회적 불안, 청·중년, 사회정책, 계층, 공정성, 자존감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 1 장 서론: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한 1차 연도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청·중년층의 사회적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설문조사를 실시,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관련 요인, 그리고 대응 기제를 규명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중년의 불안, 스트레스가 최근 악화 중에 있고 이러한 청·중년의 불안이 미래 우리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하는 이 연구는 2020년에 청·중년의 불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그리고 청·중년을 분석 대상 집단으로 하는 이 연구의 배경은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1.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의 배경

사회보장의 설계와 개선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기 어렵다. 사회적 불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또는 재설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비단 사회적 불안이 사회보장제도의 환경에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불안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관련 국제 기구 등 각종 주체들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사회적 불안은 일종의 공통적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불안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이중적이다. 불안이 사회나 개인의 발전 계기를 마련한다는 긍정적 요소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불안, 적절한 관리 범위 밖의 불안은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경제적 역량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며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적지 않은 논객들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여도 불안이 감소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과거와 최근의 사회적 불안에서 다른 점은 사회적 불안, 불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나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고 더 자주 인용된다는 점이다. 국제기구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을 측정할 때 전 사건 중 '시위'의 비율을 사용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위(protest)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2010년 야간 집회가 처음 허용된 이래 2010년 이전 연도 대비 크게 늘었고 2011년 다소 감소하였다. 이후 2015년까지 증가하였고 2017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시위는 2018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73)." 전 사건 중 시위 건수의 비율을 보면 그 수치가 변동이 심하고 2018년 대비 2019년에 적지 않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과거의 사회적 불안과 다른 점은 양뿐 아니라 질적 변화에서도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과거의 불안과 다른 점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에 단기간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상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1)]" 서면 자문 내용 중 이 지적은 최근의 사회적 불안

이 보이는 특징에 대한 매우 적절한 서술이다. 최근의 사회적 불안은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한정하여 나타나는 것에서 나아가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경험하는 현상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의 불안이 저소득 취약층을 중심으로 실직과 빈곤에 대한 것이었다면 최근의 불안은 중산층을 포함한 계층의 미래 삶에 대한 불안, 자신의 미래 그리고 자녀의 미래 삶이 현재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리고 자신의 자녀의 삶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2]”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의견을 보았을 때 일반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최근 불안이 사회구성원의 다수에 의하여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사회적 불안이 발전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수준 이상의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우려된다. 1차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과 개인 수준의 불안이 관련을 가지고 있고 개인 차원의 불안이 고조되면 정치사회적 갈등뿐 아니라 취업불안, 저출산, 가구 구성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양상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불안의 축적과 그 영향에 대한 문요한(2020)의 우려는 사회적 불안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좋은 설명의 예이다. 고등동물인 인간이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관찰-선택’이라는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도망-투쟁’이라는 심리적 퇴행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3] “각자 생존에만 매달리거나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를 해소하려고 하고 (…) 고강도의 불안을 ‘중독’으로 회피 (…)

1) 이 내용은 서면자문 내용 중 사회적 불안 특징에 대한 강상경(2020)의 설명이다. 강상경은 코로나19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였다.
2) 이 내용은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서면자문 내용 중 최근의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징에 대한 구인회(2020)의 견해 중 일부이다.
3) 이 내용은 최근의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징에 대한 문요한(2020)의 서면자문 내용 중 일부이다.

만성적인 불안과 긴장이 사회적 갈등과 상호 공격으로 번져가고 있다"

요는 우리 사회에서 불안이라는 단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화 속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불안이 발전의 계기로서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 이상으로 악화,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어느 지점에서 더 높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야 한다.

2. 청·중년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5년간의 연구 기획 중 2차년의 연구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다룬다. 중기연구로,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분석하고 정책기획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차 연도 연구는 1차 연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일반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4] 2차 년도 연구, 즉 2020년 연구 설계는 코로나19의 확산과 1차 연도의 질적 연구 결과의 반영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가장 큰 변경내용은 설문조사의 대상을 전 인구에서 청·중년으로 변경한 것이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초점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2020년 이 연구가 청·중년 대상 조사로 설문조사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4) 이 연구의 출발이 되었던 1차 연도 연구,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2019)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첫째, 조사대상의 변경은 1차 연도의 연구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1차 연도의 연구에서 청년 불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고, 청년과 노인의 불안 내용이 상이하여 조사 내용의 구성을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발견한 때문이다. 서면자문 중 사회적 불안을 특정 연령집단 사이의 공유된 불안으로 정의한 사례도 있다. 사회적 불안을 '비슷한 세대끼리 공유하는, 그 시대 사회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안[5]'으로 이해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의 불안이 공히 존재하더라도 연령집단별 불안의 수준과 질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차 연도 질적 조사의 결과를 보며, 청년의 사회적 불안의 내용과 노인의 사회적 불안의 내용이 구별되었다. 그래서 조사표의 구성에서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갖는 차이를 반영하는 설계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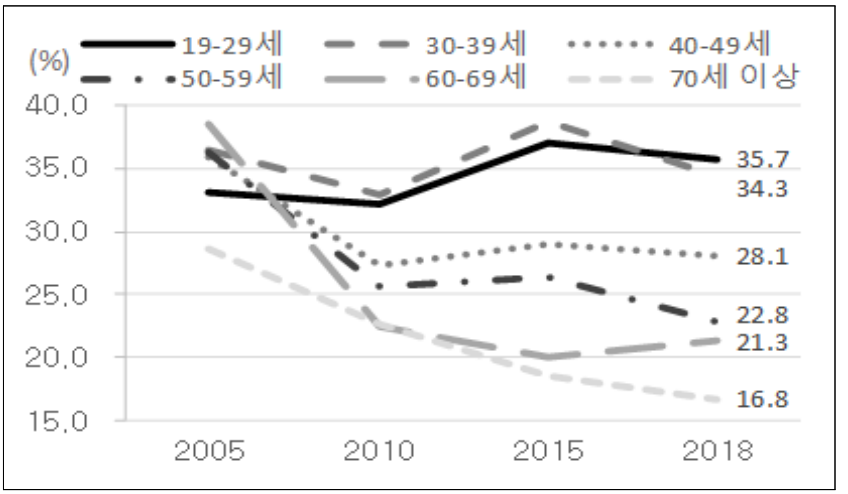
둘째, 청년의 불안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2020년 연구의 기획에서 함께 고려하였다. 우리나라의 청년 중 다수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자료들은 많다. 예를 들어 김지경, 이윤주(2018)는 우리나라 20대 청년의 7%가 심한 우울증 상태에 있고 8.6%는 심한 불안증 상태에 있으며 22.9%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을 생각해보았다고 밝힌 바 있다(김지경, 이윤주, 2018, p. 284).

한편 2019 우리나라 사회지표(통계청, 2020. 6. 18., p. 21)에서 보면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이 4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2005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19~39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치로 보는 청년의 불안뿐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청년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청년,

5) 이 내용은 이 연구에서 수행한 서면자문 내용 중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의에 대한 고성수(2020)의 견해 중 일부이다.

청·중년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수요를 높이고 있다.

[그림 1-1] 연령별 스트레스 인지율



자료: 통계청. (2020. 6. 18.). 201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317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82%AC%ED%9A%8C%EC%A7%80%ED%91%9C에서 인출.

셋째, 2차 연도 연구가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사의 환경이 갖는 한계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설문조사의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고려한 것이다. 2020년 면대면 설문조사의 경우 상당수의 조사는 지연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다. 조사의 수행 가능성과 조사 일정을 고려할 때 면대면 조사의 실시라는 계획은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웹조사가 가능한 연령을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청·중년은 웹방식의 조사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데, 한편으로는 면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원의 면담이 쉽지 않은 집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웹조사 대상으로 청·중년을 고려하게 되었다.

청·중년을 조사대상으로 한 네 번째 이유는 청·중년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이 우리 사회 미래의 불안과 관련을 갖는다는 점이다. 청년의 불안은 미래 우리 사회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청년의 불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청년의 불안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은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청년 세대의 불안정성이 노후 생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빈곤이 세습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근간에는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불안정함과 불행이 청년의 때에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깔려 있다(미스핏츠, 2015,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p. 91에서 재인용)." 이렇듯 청년의 불안이 우리 사회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자못 크다.

다섯째, 청·중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청년의 불안이 갖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 주제의 중요성이나 사회적 관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의 연구(2017)는 청년의 불안에 대한 관심부족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구구성 면에서도 그 비중이 적어 정치적으로 주요한 대상이 되기 어렵고, 장년층과는 달리 부양할 가족이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인식, 그리고 대부분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노동으로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청년들의 행복과 불안정성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다"(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p. 90).

결과적으로 청년, 그리고 청년과 유사성이 높은 연령의 중년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청년을 연구의 초점으로 하면서 노인과 특성이 구분되는, 그리고 광의로 구분할 때 청년으로 자주 포함하는 중년

을 조사의 대상으로 포괄하였다. 이렇게 청년과 중년을 조사 대상으로 포괄한 것은 연구 대상의 연령 구분에서 사회적 불안, 그리고 관련 요인에서 노인과 대비되는 특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유하는 연령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청년과 중년은 19~44세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청년과 중년은 34세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 정의를 34세까지로 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생애주기의 연령 구분은 매우 다양하다. UN은 2015년 새로운 연령기준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하면서 청년(Youth)을 18~64세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연년에 대한 연령 구분은 간단치 않다. 예를 들어 2017년 10월 기준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청년당원은 35세 이하, 39세 이하, 또는 45세 이하로 다양하다(황서연, 2017. 10. 30.). 29세 이하, 49세 이하까지 청년에 대한 다양한 연령기준이 적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를 통한 사회적 불안을 분석할 때 동질성을 고려하여 연령을 구분하여야 했다.

최근 생애주기의 과업을 이행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청년과 중년이 생애주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통상 청년을 35세 미만으로 한정한다고 하여도 최근 졸업과 취업, 그리고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35세를 넘기고도 이러한 생애과업을 위한 노력을 또는 고민을 하는 사회구성원이 적지 않다.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19년 33.4세이다(통계청, 2020. 6. 18., p. 14). 그리고 첫 자녀 출산 모의 평균 연령은 2018년 31.9세이며 35-39세에 첫 자녀를 출산하는 모의 비율이 20.8%에 이른다(통계청, 2020. 6. 18., p. 15). 과거 2002년 첫 자녀를 출산의 모의 연령이 35-39세인 비율은 단지 3.9%에 불과하였다(통계청, 2020. 6. 18., p. 15). 이러한 이유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 구분을 40대까지로 확대하는 제안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즉 청·중년은 아직 생애과업

에서 미완의 상태를 공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청년과 비교하여 중년은 취업 후 직장에서의 지위 유지나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 등에서 평균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년과 중년[6]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되 청년과 중년의 상이점을 분석에서 고려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면대면 조사방식을 유지하여야 하는 노인에 대한 조사는 2022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여건이 가능한 선에서 노인과 특성을 공유하고 노인기를 준비하는 장년을 2022년 조사 대상으로 포괄할 계획이다. 2차년 이후 조사를 연령을 기준으로 2년간 실시하는 2회의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4차년 이후 구체적 정책제안을 마련하되, 4차년에는 단기, 5차년에는 미래 사회 전망을 전제로 정책 대응을 설계하는 것으로 전체 연구 일정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전체 연구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향후 5년의 설계 변경안

1차 연도(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기완료)
2차 연도(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실태조사: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3차 연도(2021)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실태조사: 장년과 노인의 사회적 불안
4차 연도(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5차 연도(2023)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미래 사회 정책

3.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제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언

6) 이 연구에서는 청년과 중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34세를 기준으로 이 두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검토 등에서는 기존의 인용이 청년으로 반복되고 있어 청년이라는 개념으로 중년을 포괄하기도 한다.

론과 정치인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언급하고 있지만 어쩌면 청·중년의 일부 집단의 사회적 불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을지 모른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관심조차 특정 집단에 한정되었을 위험이 적지 않다. 요는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다양한 청·중년 집단을 포괄하여서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분석에서 청·중년의 불안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 불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예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청·중년의 불안을 이해하면 중기적으로 미래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더욱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사회 환경을 구성하고 미래 주력 사회구성원의 보다 바람직한 생활양태를 지원하는 정책적 구상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2차 연도(2020) 연구로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청·중년 대상 웹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규명하고 있다.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에서 연구의 개요와 연구의 분석틀을 소개하는 제1장과 제2장이다. 두 번째 부분은 본격적으로 분석을 소개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논의하는 부분으로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함의를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내용구성, 연구의 방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된 연구방법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조사표의 구성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1차 연도 연구 결과에서 나온 주요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분석에서 공히 사용되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적 부분으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고 있는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은 청·중년의 불안 수준과 구조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중년 사회적 불안의 관련 요인, 그리고 관련 요인 중 계층을 중심으로 한 불안 수준의 차이, 사회적 불안에 대한 청·중년의 대처기제와 그 영향을 서술하였다.

제3장 제1절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불안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국가별 불안을 점검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국가 단위 주요 지표들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분석은 우리나라 사회적 불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제 지표들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3장 제2절 이하에서는 한국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경험을 기술분석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을 위한 척도화된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요인구성을 위한 요인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사회적 불안의 하위 영역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불안의 구조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제3절과 제4절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주요 요인별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제 요인들에 대하여 고

찰하였다. 관계망분석을 통하여 연관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로써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청·중년의 불안에 영향을 주는 내생요인 외 외생요인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계층의 측면에서 집중 분석하였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촉발된 배경 중 하나가 불평등의 심화였다.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사회적 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로 다루어질 뿐 아니라 사회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불평등의 완화라는 점을 감안하여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2020년 수행된 설문조사를 활용한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불평등의 변화와 제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설문조사 내용 중 계층요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청·중년의 대처기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청·중년의 대처기제가 무엇인지, 대처기제가 그리고 그 중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그리고 자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온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은 연구의 주요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의 과제를 정리하는 제7장이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을 요약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사회정책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리고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의 수집과 분석, 2차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와 해당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다. 사회적 불안이라는 복잡한 사회현상을 분석하면서 종합적 이해는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었다. 연구를 수행하는 내내 전문가와 청년활동가, 청년 당사자의 자문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내용은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 방법 중 주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사와 분석은 1차 연도의 질적 분석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보다 일반화된 정보를 얻는 분석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설문조사는 웹조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대면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웹조사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하고 설문조사의 대상을 청년과 중년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의 규모는 4,000명으로 하였다. 4,000명의 청·중년은 주민등록부의 각 집단 규모를 준거로 연령과 지역, 성을 기준으로 층화표집하였다.

〈표 1-1〉 설문조사의 표본 구성의 고려기준

연령	기타 표본틀
19~44세 - 청년(19~34)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기준은 만 18~33세 - 중년(35~44)	지역,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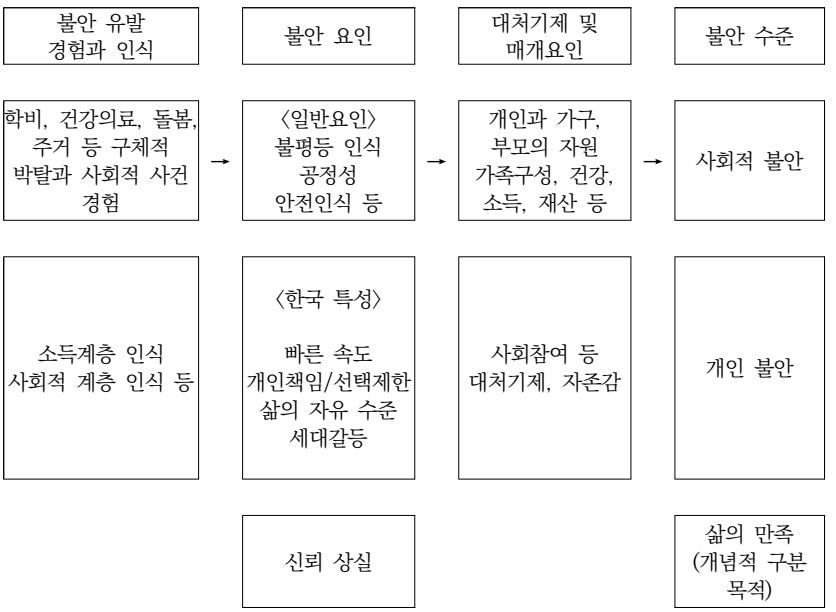
조사표를 개발한 단계는 아래와 같다. 선행연구 중 조사 설계를 참고하고 1차 연도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청·중년에 대한 문헌검토를 반영하여 조사표 초안을 마련하였다.

〈참고〉 조사표 개발 단계

기존의 관련 조사의 내용 재검토 ⇒ 1차년의 분석 결과 기반 설문구조화 방향설정 ⇒ 전문가의 의견수렴 ⇒ 설문 가안 마련(조사내용의 구조도 마련, 개인의 불안 수준, 사회적 불안 인지 등에 대한 전반적 불안 질문과 관련 개념의 관련성 검토) ⇒ 조사대상 집단 FGI ⇒ 실험조사 ⇒ 연구진의 설문지 재검토 ⇒ 설문지 완성

설문의 초기 구상안은 이 연구의 연구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불안, 지수화된 방식으로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관련 개념의 경험과 인지, 대처능력과 사회적 자본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특이성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자유(삶의 자유)를 초점으로 한 인식과 경험, 사회 및 미래 불확실성의 인식과 관련 경험, 중대한 사회적 사고와 그 영향, 한국사회의 경쟁과 개인책임, 그리고 사회변화의 속도와 적응 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사회적 미디어 접촉과 이와 관련된 불안 등이 관련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이와 더불어 불안의 원인, 특히 사회경제적 원인 군의 유형별 인식과 경험, 그리고 사회안전망 인지 수준과 경험, 건강과 돌봄의 부담 등이 포괄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그 요인의 영향과 통제를 위하여 조사내용에 포괄하였다. 특히 가족구성은 불안의 원인이자 불안에 대처하는 자원으로서 의미가 크므로 이에 대한 상세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 설문이 구성되었다.

[그림 1-2] 설문 및 분석 내용 구조도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청년활동가, 그리고 청·중년의 참여가 참여의 폭에 있어서나 또는 참여 내용에 있어서 여타 연구와 비교하여 심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과 청·중년 면담을 진행함에 있어 코로나19의 확산은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였다. 면대면의 자문과 면담을 최소화하고 서면 자문과 면담을 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병행 수행하였다. 면대면 자문과 면담뿐 아니라 서면 자문에서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달한 의견은 연구의 설계와 조사결과의 해석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지원하신 분들의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한 관심과 성의, 소망을 느낄 수 있었다.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제1절 분석의 전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
제2절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와 함의
제3절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와 함의
제4절 분석틀과 조사내용의 구성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틀

제1절 분석의 전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

1.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의와 이해의 전제

이 연구에서는 1차 연구의 사회적 정의를 수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1차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은 요인과 경험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사회적 불안이란 사회 체계적 요인으로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정한) 기분이나 경험을 말하며, 따라서 사회적 대응으로 현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78). 이 정의를 풀어서 의미를 정리하면, “사회 불안이란 사회적 환경의 맥락 속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에 의해 인지되거나 경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 불안은 그 용어에서도 내포하듯이 사회적 성격을 가진 개념이다. 여기서 사회적이라 함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불안의 원인이 단순히 개인의 기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78).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접근의 전제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리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기존 연구의 입장에

서 얻어올 수 있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적 불안에 대한 각종 보고서 발간과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을 어떠한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1차 연도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OECD는 2011년부터 미래의 사회적 쇼크에 대비하는 준비를 논하면서 그리고 별도로 사회적 불안을 초점화하면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여 왔다[7]. ILO도 2011년 보고서(ILO, 2011)부터 사회적 불안(social unrest)을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로 담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IMF도 사회적 불안을 주제로 논의를 하고 있다(IMF, 2020).

기존 연구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접근은 크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점검과 대응에서 비롯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접근은 주로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고조, 그리고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경고한다.

OECD의 2014년 보고서에서는 이전 연구들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극단적인 경우, 불평등은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 불안(social unrest)으로 이어질 수 있다"(Alesina & Perotti, 1996; Keefer & Knack, 2000, OECD, 2014, p. 11에서 재인용)고 지적하였고 "일부 정치경제와 사회정치적 불안정 이론은 불평등이 불안(unrest)을 야기할 가능성이 낮고 성장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불평등은 지대추구 행태와 예산의 책정을 통해 정치적 간섭을 유도함으로써 어느 정도 '전환점'에 도달한 후 경제관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OECD, 2014, p. 19)고 우려하였다.

OECD의 이후 보고서에서는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주 요

7) 이러한 보고서의 예를 들면 OECD(2011), Renn, Jovanović, & Schröter(2011), Jovanović, Renn, & Schröter(2012), Schröter, Jovanovic, & Renn(2014) 등이 있다.

인으로 거론된다.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높은 수준의 불평등은 높은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며,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전망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다”고 경고했다(OECD, 2015, pp. 12-13). 그리고 큰 빈부격차가 기업과 정부의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고, 보안 등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고 지적하였다. OECD는 최근 교육의 역할을 논하는 보고서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삶의 후생에서 큰 격차를 초래하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OECD, 2019, p. 38).

국제기구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불안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 사회적 위기의 주요 고리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불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OECD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risk)와 사회 불안 사이의 연결점을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한 위험관리 방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회 불안은 위기 그 자체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영역의 피해, 예를 들어 기술에 대한 거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 불안은 기술적,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동인을 연결시켜주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시스템적 위기의 체계”라는 용어로 설명한다(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 2012, p. 256). 해당 보고서의 목적은 사회 불안의 관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여 각 사회가 사회 불안을 점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해당보고서는 사회적 불안의 순차적인 경과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의 구체적 형식은 각종 국제기구들이 수용하였던 지표, 즉 사회적 사건 중 시위의 비중으로 보았다. 그 경로는 아래와 같다(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 2012, p. 269).

첫 번째 단계: 불만족의 발현으로, 주로 관리의 실패, 불평등, 신뢰의 부족 등의 동인이 나타나고 세 가지 동인은 언론이나 동인을 관리하는 곳의 역량 부족으로 확대된다. 두 번째 단계: 항의 시위를 조직하는 능력과 사라져 버릴 시위를 활성화하는 유인의 존재와 관련되어 진행된다. 세 번째 단계: 정부가 항의 시위를 다루는 능력, 시위자들과 대화하고, 시위자들의 항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더욱 사회 불안이 확대되는 단계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불안의 동인 관리와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응이 각 단계에서 주요하고 이러한 점은 각 사회의 위기관리 능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말미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지형화하는 모델까지도 제안하고 있다. 전 세계적 위기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세계적 불안이 각국의 내부로 감염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매우 유용한 위기 관리기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일국 내에서 사회적 불안의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며 이러한 방안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LO는 사회적 불안 수준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면서 이를 사회적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로 설명한다(ILO, 2019, p. 82; ILO, 2020, p. 88). 해당 보고서들은 지표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국가 간의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사회적 불안 지수는 국가 간 비교를 허용해 불안이 고조된 국가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지수는 한 국가 내의 사회적 불안의 비교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ILO, 2020, p. 88). ILO는 이에 더하여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시하여 사회적 불안의 점검에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보고서(ILO, 2011)에서는 소득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인지, 재정적 경직성과 예산삭감, 높은 식품가, 국가의 압제, 교육된 불만족 인구, 매스미디어의 확산을 사회적 불안의 영향 요인으로 지목하

였다.

2013년 보고서에서는 정부 신뢰, 생활수준 전망, 노동시장 불안정, 삶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인식, 다수의 조직화가 가능한 인터넷 접근성으로 사회 불안지수[8]를 구성하면서(ILO, 2013. p. 20) 위의 불안지수와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소득수준, 실업, 정부 부채, 소득불평등 등과의 관계분석으로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점검할 필요에 대한 공감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불확실성의 악화, 경쟁의 심화 등이 발생하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낮아지고 있고 반면 대안적 대응기제는 취약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관리체계가 주요 사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강하고 사회적 불안을 감지하고 관리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급하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불안의 이해와 대응의 맥락에서 사회적 격차, 불평등이 매우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에서 사회적 참여 등의 사회적 체계의 보완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1차 연도 연구 중 주요 결과

1차 연도의 연구 중 사회적 불안에 대한 조사에서 반영할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적 불안이 만연되어 있으며 사회적 불안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불안은 경제적

8) ILO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을 지수로 측정하다 2015년 이후 관련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총사건 수 대비 시위 수로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2013년 이전 World of Work Report 각 연도 발간물과 2015년 이후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 Trends 각 연도 발간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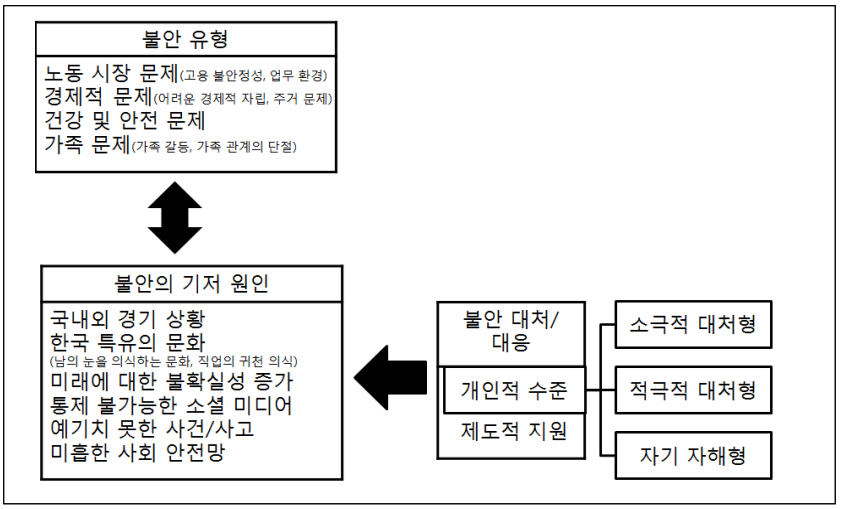
빈곤을 넘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경제적 빈곤 외 불안의 경험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돌봄 부담, 건강, 그리고 비전형적 삶의 선택 등 원인도 현상도 사례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불안의 제 측면을 포괄하는 파악이 가능한 조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불안 관련 요소들에서 불확실성과 자기 결정의 상실 등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낮은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외에도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불확실성과 자기 결정, 삶의 선택 제약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확실성은 낮은 공정성과 빠른 사회변화 등 여러 요소들의 작용으로 더욱 악화되었고,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의 한계도 불안을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즉 과중한 자기 책임과 고립이 이러한 측면의 주요 현상이었다. 사회적 불안은 불안의 표면적 현상이 선행연구들에서와 같이 문제영역으로 구분되어도 그 기저에는 문화적,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의 작용은 불안의 대처기제에 따라 불안 수준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자면 불안의 요인뿐 아니라 불안에 대처하는 대처기제와 관련 경제사회적 자원에 대한 이해를 병행하여야 한다는 점도 조사에서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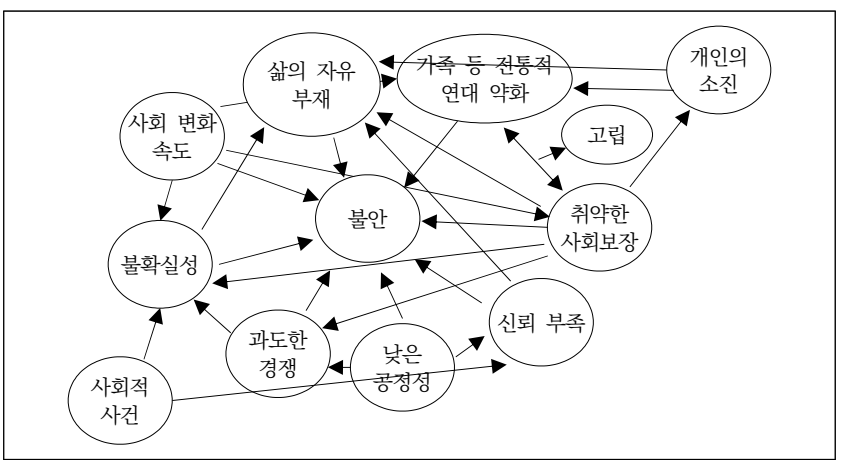
한편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은 여러 측면과 연결되면서 그 자체로 원인이자 결과인 관계를 형성한다. 아래의 그림은 사회적 불안과 유관 개념, 요인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조사의 설계는 관련 개념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뿐 아니라 개방적으로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했다.

[그림 2-1] 사회적 불안의 전체적 구조



자료: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47.

[그림 2-2] 사회적 불안과 관련 요인의 관계 구조도



자료: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59.

위의 내용은 관련 요인의 구성과 목록으로 작성하여 설문조사 내용에 포함, 반영되었다. 기타 1차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중 아래의 내용들이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지표의 구성에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경험을 구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설문 구성에서도 인식과 경험을 분리하고 이를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불안의 기저에 작용하는 요소를 포괄하는 조사표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앞의 사회적 불안의 구조를 고려하여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사회적 위험의 영역별 불안 경험과 인식뿐 아니라 사회 변화의 속도에 대한 체감, 사회적 신뢰, 공정성 등에 대한 인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사회적 불안의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셋째,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주 언급된, 취업의 어려움 외 취업 후 직장의 문화 등 불안 가중의 요소를 확대하여 반영하였다. 넷째, 사회문화적 특이성을 고려하여 개인주의 수용 정도, 가족과 친구 등 전통적 지지에 대한 태도 등도 불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포괄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불안에 대한 인지는 과거 경험과 미래 예견이 함께 작용하고 특히 청년의 경우 미래 전망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므로 이 점을 조사문항에 반영하였다. 여섯째, 대응 기제와 능력을 파악하는 조사 문항을 다양하게 개발, 반영하였다. 일곱 번째,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연령이나 성 같은 일반 특성 등 불안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여덟 번째, 사회적 불안과 유사 정서의 차이를 규명하는 분석을 설계하여 삶의 만족을 별도로 조사하였다.

3. 사회 불안과 개인 불안의 관계

1차 연구에서도 개인 불안과 사회 불안의 관계는 자주 언급되었다. 앞

에서 살펴본 국제기구의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분석에서 사회지출, 취업률 등 사회적 지표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자살이나 범죄 등 개인의 행태에서 비롯되는 지표들이 사회적 위험의 점검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표로 소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을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경험하는 불안으로 간주한 바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 개인이 인지, 경험하는 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면 사회구성원의 왜곡된 행태로 나타나고 다수의 사회구성원의 왜곡된 행태는 결국 사회적 현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즉 사회적 불안이라는 개념 속에서 개인과 사회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김문조와 박형준은 그의 연구에서 "프로이트식 해석에 의하면 불안은 외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내가 그에 대해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하는 느낌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박형준, 2001; 김문조, 박형준, 2012, p. 625에서 재인용)"고 설명하고 있다. "삶과 직결된 실존적 위기나 불안은 삶의 안전성과 지속성이 공격받고 이에 저항할 힘이 부족할 때 고조되는데, 그것은 자살 충동부터 정신분열증, 무력증, 거식증, 대인기피, 언어기피, 패배의식, 노이로제, 과잉스트레스, 편집증, 항상적 분노와 불만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된다(김문조, 박형준, 2012, p. 625)"고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불안의 영향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공격하는 요인은 다분히 사회적 요인들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개인 수준의 불안이 어떻게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에른스트 디터 란터만은 『불안사회』에서 잘 설명했다(에른스트 디터 란터만, 2019). 개인의 불안 수준이 고조되면 공동체의 약화, 개인주의 왜곡이 초래되고 사회구성원이 급진주의나 광신주의로 기울 수 있다. 개인의 불안이 사회적 요인과 맞닿아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의 불안은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불안은 사회적 위기 관리의 중요 이슈가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1차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구성원의 불안을 파악하면서 개인의 불안도 동시에 파악하고,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불안을 함께 조사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한편 사회적 불안도 사회구성원인 응답자가 인지하는 불안이라는 점도 확인하고자 한다. 개인의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는 응답자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맥락이 되기도 한다.

제2절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와 함의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안이 갖는 특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회적 불안이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성 위에 우리 사회의 특수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경제발전단계와 발전 경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속도와 내용 등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의 특이성을 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특이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불안에 대한 정책 대응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 믿는다.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문화적 특이성으로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상대적 소득의 평가', '가족주의와 변형된 개인주의', '빠른 속도의 사회변화와 이동성 저하로의 적응'을 최근의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주요 양상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김태형은 우리 사회의 병인으로 신자유주의 이념과 이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을 언급한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사회로 재편되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김태형, 2010).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아이들은 매우 긴 시간 앉아 공부하며 1인당 사교육비도 높은 국가이다.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생활의 요소를 희생하고 경쟁에서 낙오될까 두려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집착 수준으로 높아졌다. 김태형은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평생직장도 없고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우며 도태되어 길거리로 내몰리면 끝이라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시장소득의 빈곤율이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니 낙오와 패배는 자신과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공포가 생긴 것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경쟁의 정도가 다른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며, 최근 고용불안이 더 심화되면서 경쟁은 더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극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 문화가 대단히 강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집단의 배경은 공정성을 침해하면서 대중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빠른 경제성장으로 대부분 사회구성원의 삶의 기준이 높아졌다. 반면 이러한 수준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만족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은 더 심화된다. 결국 개인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족한 사회가 남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취업과 경제적 자립이 미치는 영향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일본과 비교하여서도 더 크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경제적 자립은 이성교제에도 영향을 주었고 전체

적으로 남성에게 경제적 변수의 영향이 컸다. 반면, 일본은 남성의 경우 직업안정성이 이성 교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소득과의 상관성도 나타나지 않았다(조성호, 菅 桂太(스가 케이타), 渡邊 雄一(와타나베 유이치), 四方 理人(시카타 마사토), 김유경, 김지민, 2017, p. 6)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 등으로 불안이 가중될 때 사회보장제도는 불안의 수준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과거의 전통적 지지망인 가족, 친지의 영향은 약화되는데, 사회보장제도는 많이 취약하여 이러한 불안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아직도 제도적인 결함이 있다.

개도국이면서 경제성장 대비 사회적 안전망의 완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사회문화적 특징을 가진 우리나라는 사회적 불안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 분명하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만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불안과 관련하여 다분히 일반적인 조건으로 간주된다. 앞에서 언급한 국제기구의 권고 외에도 각국의 경험에 대한 실증적 분석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 Ponticelli & Voth(2020)는 24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1919~2008년 사이의 사회지출 예산 삭감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출삭감이 1%로 유지됐을 경우, 그리고 GDP 성장이 -2에서 -10으로 하락했을 때 예상 불안 건수는 국민 천만 명당 0.1건에서 0.27건으로 증가하였고 지출삭감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불안 사건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nticelli & Voth, 2020, p. 8). 긴축과 불안의 연관성이 전간기(1919~1939)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1945~2008)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Ponticelli & Voth, 2020, p. 16).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요인 중 하나는 가치관의 빠른 변화이다. 문화의 빠른 변화 자체는 사회적 불안을 높

이는 요인으로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변화의 내용이 사회구성원의 안정성을 낮추는 변화일 때 사회적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속도에서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에서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 변화와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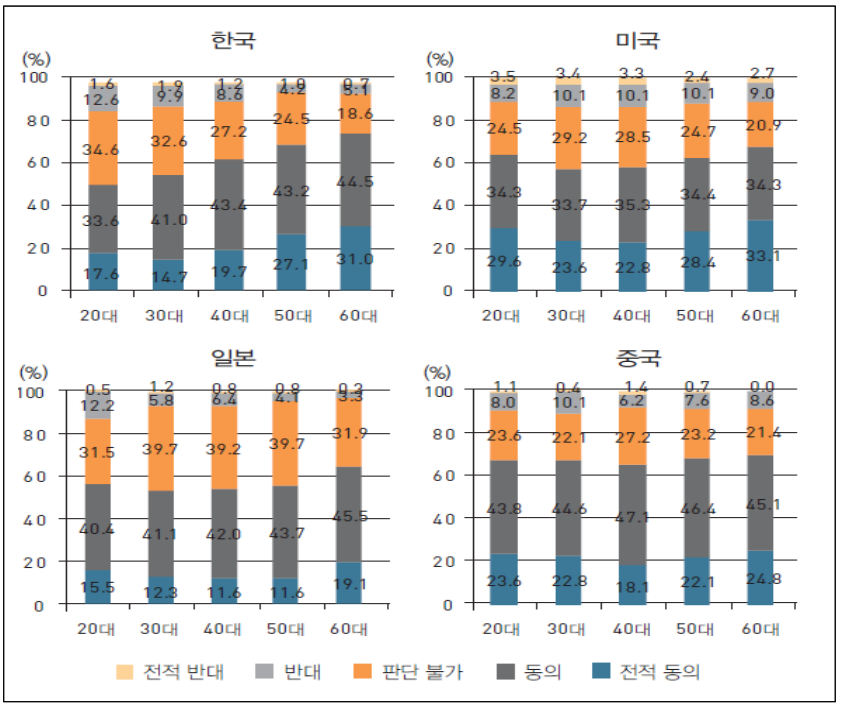
유민봉, 심형인(2013)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문화적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한국의 문화적 특이성은 주로 가족주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권위주의로 정리"(유민봉, 심형인, 2013, p. 459)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의 문화가 변화를 겪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속도 중심주의가 등장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이와 더불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위계와 결과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도덕적 의례주의와 속도지상주의와 같은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한다(유민봉, 심형인, 2013, pp. 461-462). 도덕적 의례주의나 속도지상주의는 서양에서 공감될 수 있는 보편적 문화가 아니어서 측정이나 설명이 쉽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이해에서는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과정보다 성과를 중시하는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속도를 중시하면서도 겉으로는 도덕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 연구의 입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한국인의 가치관 중 대표적인 것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다. 가족주의는 앞에서 예시한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나은영, 차유리(201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주의가 최근 어떠한 변화를 경험중인지에 초점을 두어 가족주의 가치관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조금 더 심층적 정보를 제공한다. 나은영, 차유리(2010)의 연구에 의하면, 1979년에 비해 2010년에 크게 변화된 가치관은 남녀평등 의식과 개인주

의이다. 이 중 개인주의는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로 자신과 가족을 가장 중시하고 출세를 효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수용하는 경향으로 변형되었다고 본다. 이번 2차 연도 연구를 위한 서면자문 중 문요한(2020)은 "'한국식 가족주의'가 보존된 채 진행되고 있는 개인화로 인해 한국의 사회적 경쟁은 순수한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부모 찬스가 난무하는 '집안끼리의 경쟁'"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불안을 낮추는 자원으로 그리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원으로 지지적 역할을 할 수 없는 가족, 또는 돌봄부담 등으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는 가족은 사회보장이 충분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여건에서 사회적 불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족주의가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나 연줄보다 노력이다"라는 문항에 긍정적 응답은 60대에서 75.5%인데 20대에서는 51.2%였다. 20대 젊은 층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믿음은 일본, 미국, 중국과 비교하여도 낮았다(김희삼, 2015, pp. 2-3). 진학과 취업에서 행사된 가족의 영향력과 관련된 비리사건은 자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점차 가족주의의 폐단과 공정성 이슈가 청·중년의 일상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3] '성공을 위한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의 연령대별 비교



자료: 김희삼. (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제54호. 1-8. p. 3.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은 속도로 인한 적응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하여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안정을 얻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위험을 경험할 때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본인의 자원이나 가족의 자원이 취약한 경우 도태된다는 불안은 더욱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전 청년이 학업을 유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가족의 지지가 크다면 경쟁에서 도태할 위험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일부 확인이 되지만 한국사회의 또 다른 사회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경제발전과 함께 높아진 기대 수준과 달리 저성장기조

로의 전환된 상황에서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부정적 인식이 빠르게 그리고 넓게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세대마다 안정적인 삶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상이하다. 높은 연령의 장년이나 노인집단과 달리 이미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청·중년의 기대수준은 높아졌다. 그러나 저성장국면에 든 한국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청·중년의 취업이나 경제적 안정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식민지 경험과 전쟁으로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경제적 성장이 매우 빨랐던 한국에서 과거 높은 수준의 사회이동성을 경험한 것과 달리 둔화된 사회적 이동에 직면하는 사회구성원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은 더욱 클 수 있다.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이러한 사회 변화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이고 불안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병행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에 수행된 조사여서 당연히 이 감염병의 영향이 사회적 불안 곳곳에 스며들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취업과 소득, 그리고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전 범위로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후의 청년 불안을 온라인 상담 요청 게시글에서 비교한 서면자문에서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전 시기까지 내담자들이 남긴 온라인 상담 요청 게시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단어들을 키워드 도출해보았을 때, ‘뒤처짐’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에는 뒤처짐이라는 상대적 개념을 넘어, 개인적 생존의 불안으로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9]

코로나로 취업이나 소득의 변화 등을 경험한 청년이 다른 청년 집단과

9) 이 내용은 장재열(2020)의 서면자문 중 코로나19와 청년 불안에 대한 설명 중 일부이다.

비교하여 어떻게 불안을 달리 경험하는지 비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의 확산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분석에서 이러한 불안 요인의 작용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수준에서 그 영향을 통제하는 고려가 필요하였으므로 지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간략하게 이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제3절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와 함의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 연구들의 시사점을 정리한다. 선행연구의 선택과 정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인 것과 대비하여 중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였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 연구에서는 청년과 중년이 취업 등 특정 이슈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상당히 여러 영역에서 유사 특징을 공유한다고 간주하였다. 기존연구의 연구경향과 그리고 이 연구의 연구대상이 갖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주목한다. 하나는 고용불안정,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취업기회의 축소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 변화와 이로 인한 부담 및 혼동의 심화이다. 이 요인은 자주 세대 간 문화 격차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요인은 과거와 달리 최근 더 심화되는 불안요인들이다. 세 번째는 청년의 연령 특성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미확정, 불확실성이다. 이 요인은 청년들이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경험하여 왔던 정서로 일종의 생애주기 중 청년기의 특징과 연관된 요인이다.

다수의 연구들이 청년의 고용과 이로 인한 불안에 주목하였다. 청년들과의 면담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년들은 취업을 가장 고민하는 주제로 꼽았다. 취업이 쉽지 않다는 인식과 경험, 스펙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높인다는 것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소득을 확보하는 의미 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일을 한다는 것이 가진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년의 취업기회는 그리 밝지 않다. 2010년 58.4%였던 20~29세 고용률은 2013년 56.8%까지 낮아졌다가 다소 회복하였으며 2018년까지도 57% 후반대였다(통계청, 2020. 11. 22.).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의 비율도 적지 않다.

ILO는 청년의 실업을 사회적 불안을 지수화하는 데 포함하기도 하였으며 남성 청년의 실업률이 사회 불안과 관련을 가진다는 점, 이러한 현상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뿐 아니라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만족스러운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넓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ILO, 2015, p. 30). 유럽의 청년 실업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유사 상황을 경험 중이라고 하였다. 청년의 취업은 사회적 불안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청·중년의 문화적 특이성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이다. 결혼, 출산, 가정 내 성별 역할분담 등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되었고 이 가치관의 변화는 청·중년의 일상에서 불안에 영향을 줄 요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여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주거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청·중년 불안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018년 수행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미혼인 경우가 많고, 남성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하고 있지 않은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결혼 지연이나 포기의 이유 중 주거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p. 103).

앞에서 살펴본 가치관의 변화와 청년의 생애주기의 특징이 결합하여 우리나라 청년의 문화적 특이성도 발현 중이다. 전통적인 청·중년에 대한 역할 기대인 20대의 입직, 결혼, 30대 출산 등이 과거와 달리 수행하기 쉽지 않은 역할기대가 되었고 청·중년은 이러한 역할기대와 달리 자기의 인생 과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전 세대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정상이라 간주되었던 청·중년기의 생애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수용도가 변한 것이다. 이러한 혼란이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안적인 성인의 이미지가 아직 형성 전이고 생활의 실질적 불안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청·중년은 정서적 불안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것이다.

청·중년은 변화된 사회적 조건 속에서 기성 가치관, 기성세대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하였다. 주은우는 그의 연구(2004)에서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이로 인하여 냉소주의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 기성세대의 획일성, 업적주의 논리성, 집단주의에 반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90년대 생의 경우에는 이러한 냉소주의와 달리 기성세대에 저항할 뿐 실질적으로 일탈하지 못하는 세대로 특징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주은우, 2004, p. 98).

여성의 경우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과 개인적인 취업/성공 사이의

모호한 이상치를 두게 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전통적인 기대의 수용과 새로운 자아상 사이에서 안정적인 정체성이 수립되지 못한 것이다. “여성들이 가지는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일과 가정을 양립함에 있어서 갈등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개인의 가치관에 부합한 태도와 전통적인 가치관에 부합한 태도 사이에서 양가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문선희, 2017, 성정혜, 김춘경, 2019, p. 125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안이 과거와 유사하게 남성과 대비하여 높지만 불안이 높은 이유는 더욱 복합적인 것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조사 결과자료를 보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62.5%였지만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012년 45.3%에서 2020년 62.5%로 빠르게 변화하였지만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은 동시기 15.5%에서 20.2%로 변화하였을 뿐이다(통계청, 2020. 11. 18., p. 1). 결과적으로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이 빨리 변화하고 있지만 공평하게 분담하는 가족의 비율은 매우 더디게 증가 중이고 인식과 실제의 차이가 더 커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면 여성의 우울이나 스트레스는 남성과 비교하여 더 높다. 일-가정 양립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성정혜, 김춘경(2019)은 “가족 내 역할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 평등을 추구할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성정혜, 김춘경, 2019, p. 125)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아동의 양육 역할과

관련하여 “자녀부양 가치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 자녀를 부양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책임감이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 갈등이 낮아질 수 있으며, 낮아진 일-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성정혜, 김춘경, 2019, p. 126)고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리한 바 있다. 요는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화적 변화를 경험 중이고 역할에 대한 인식에 따라 상당히 다른 불안 수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좌절감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미래 무망감)는 청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는 장년이나 노년세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청년집단이 더 미래전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청년의 특징에 대한 하나의 입장이 되고 있다(서경현, 이경순, 2010; 김미혜, 문정화, 성기옥, 2014; 이명숙, 2015;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p.98에서 재인용). 김문조, 박형준(2012)의 연구는 쾌락연기에 대한 보상이 무망하다는 자조의식을 포스트 386세대의 특징으로 보기도 하였다(김홍중, 2009; 김문조, 박형준, 2012, p. 628에서 재인용).

이 연구는 청년과 중년을 분석 대상 집단으로 포괄하고 있다. 연령을 크게 구분하는 경우 중년도 청년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이렇게 연령 구분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과 중년은 인생 과업에서 다소 상이하고 이러한 점에서 불안의 수준과 요인이 차이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 부분에서 견지하고 있다.

미래 불확실성 요인은 청년과 중년 중 청년 연령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경제적 불안정은 중년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중년은 주거안정성과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불안이 더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입직의 시기와 결혼 및 출산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청년과 중년의 인생과업이나 정서에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전제한다.

제4절 분석틀과 조사내용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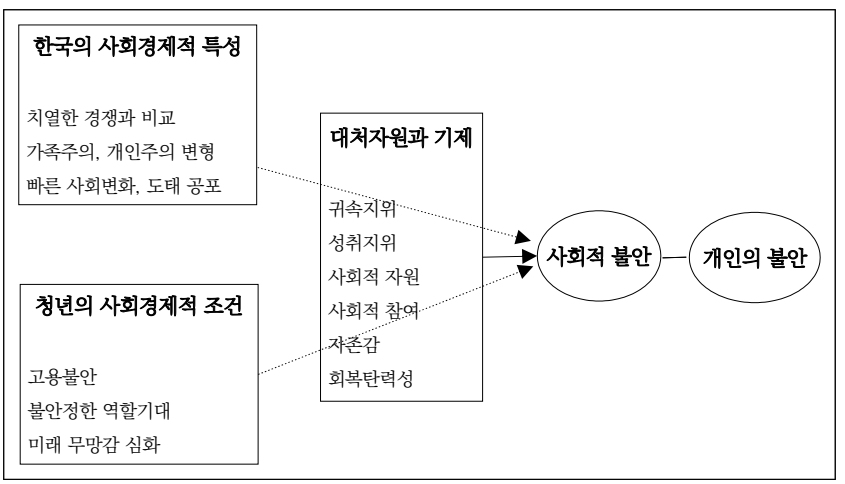
1. 분석틀 소개

사회적 불안은 불안이라는 결과적 현상이자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틀은 사회적 불안이 여러 측면을 가진 종합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고 개인의 불안과도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한다. 사회적 요인은 앞에서 언급한 현재 한국의 경제, 사회문화적 특성과 청·중년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구성된다.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치열한 경쟁과 비교, 가족주의와 변형된 개인주의, 그리고 빠른 속도의 사회변화/이동성 저하로의 적응과 도태가 되면 대안이 없다는 공포로 요약할 수 있다. 청·중년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조건은 고용불안정과 취업기회의 위축, 가치관 변화로 인한 불안한 역할기대, 그리고 무망감의 심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은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수준과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이 국가 단위의 불안이든,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불안이든지 사회 구성원 개인의 불안과 연관된다. 한편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은 개인의 자원과 대응기제 등으로 구성되는 대처기제로부터 매개되어,

달라진다. 대처기제는 개인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참여 등으로 대표되며 대처기제와 관련된 주관적 정서인 자존감과 회복탄력성이 주목하여야 하는 중요 정서로 선정되었다. 대처기제에 대한 고려는 이 연구의 6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그림 2-4]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분석틀



2. 조사내용의 구성

조사표는 사회적 불안, 개인의 불안, 그리고 앞에서 검토한 사회적 불안과 유관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표의 구성은 이미 1차 연구에서도 검토한 바 있는 사회적 불안 관련 조사연구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이 연구들은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과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조사표를 개발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2004)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면

서, 사회적 불안을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실존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또는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지, 지각을 중심으로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사회심리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조사로 68개 문항을 선정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300명 정도의 대상에게 조사한 결과 40개 문항을 최종확정하였다. 문항의 신뢰도 검증은 사회적 불안의 영역별로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82~.91 정도였다. 사회적 불안의 영역은 문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여 개인적 불안, 경제적 불안, 공정성 불안, 미래 불안, 불신 불안, 안전 불안, 사회문제 불안, 정치 불안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 척도를 활용하여 심리적 적응도를 조사하고 문항의 정서적 반응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반응-예견, 유관-불유관으로 사회적 불안의 하위 차원을 구성하고 심리적 적응수준 예측에 어느 차원이 더 유의한지를 분석하였는데 대체로 예견불안이 대부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p. 35).

〈표 2-1〉 사회적 불안 척도의 하위 차원

기준	유형	
예견적 인지, 반응적 인지	- 예견 불안: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염려하여 느끼는 불안	- 반응 불안: 이미 일어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불안
유관성	- 유관 불안: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의해 느끼는 불안	- 불유관 불안: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스스로 느끼는 불안

자료: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p. 34 내용 정리.

그리고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은 사회적 불안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음을 규명하였으며 대처기제의 영향도 분석하면서 고불안 집단과 저불안 집단의 대처기제의 상이성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불안 척도의 구성이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예견과 반응 요인의 구분, 그리고 대처기제에 대한 탐색 등의 부분에서 이 연구의 조사 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다만 이 연구가 주로 개인의 심리적 반응에 주목하고 있고 사회적 요인과 대응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이었다는 점과 설문조사의 대상 규모가 작고 척도 개발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이 상당히 컸다는 점에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었다.

같은 해 진행된 이훈구(2004)의 연구에서도 예비조사와 요인분석, 타당도 검사를 거쳐 사회적 불안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14개 요인, 49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고 사회 불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사회 불안의 영역을 정치, 경제, 남북, 노사, 교육, 빈부격차의 문제영역으로 구성하였다(이훈구, 2004, pp. 229-238). 사회 불안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회 불안과 신뢰, 삶의 만족,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 불안은 삶의 만족, 행복, 긍정적 정서와는 관계가 없고, 부정적 정서와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안은 사회적 수준의 변인이고, 반면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은 개인적 변인이므로 이 사이의 관련성이 작다는 것이다(이훈구, 2004, pp. 150-152;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62에서 재인용).

최인철, 김범준(2005)의 연구도 사회적 불안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최인철, 김범준, 2005, pp. 22-35;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66에서 재인용). 사회 불안이라는 심리적 경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문항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문항을 합한 총 61개 문항에 대해 조사한 후, 요인 분석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제감 상실', '사회 공정성 불신', '사건·사고 등에 대한 취약성' 등 3개 요인(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사회 불안 유발 사건들의

심층적 심리 구조를 밝히고자 사회적 관심사건을 '발생 가능성(발생 가능성, 발생 빈도, 발생 시기)'과 '심각성(심각성, 통제 가능성, 피해 범위)'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사회적 사건은 불안의 2개 차원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신뢰와 긴밀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가능 기능을 주요하게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통제력, 신뢰, 그리고 공정성에 대하여 어떻게 포괄,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최근 연구인 조권중(2014)의 연구는 불안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이 사회적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패러다임의 형성도 강조하였다(조권중, 2014, p. 12;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70에서 재인용). 이 연구는 사회적 위험을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유형으로 구분하고 안전이슈를 상대적으로 심화된 내용으로 조사하였으며, 신뢰에 대하여 강조하며 조사에 포괄하였다. 서울시라는 지역의 불안에 대하여 다루었지만 경험과 인지, 대응태도, 신뢰 같은 주요 요인에 대한 강조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 다만 안전에 대한 연구로 안전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부분은 차별적인 면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한 접근이 여타 연구와 비교하여 강조되었다는 점도 상이하다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조사연구에서 개발, 활용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측정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서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중요한 요인을 포괄하여 조사표의 문항 구성을 시도하였다. 한편 청년의 역할기대는 성역할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미래 무망감도 사회적 불안의 하위 문항으로 포함하였다. 이 밖에 우리 사회에서 타인을 의식하고 강한 가족 연대가 작용하여 나타난 삶의 자

유로운 선택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대처자원과 기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묻는 문항과 성취된 지위로서의 학력이나 소득 등을 조사하였으며 사회적 자원과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회참여, 선거참여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경험과 인식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차별이나 박탈의 경험, 사회적 사건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조사내용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단문의 사회적 불안 인지를 묻는 문항과 사회적 불안의 주요 영역별 문항으로 구성된 지수화된 측정 문항, 두 가지 종의 문항이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측정은 선행연구 중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기초로 연구진 간 논의를 거듭하고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문항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사회적 불안과 개인 불안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개인 불안에 대한 조사도 포괄하였는데 이때 개인 불안은 중(Zung)의 자기평가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 연구인 이중훈, 박병탁, 정성덕, 강복수, 정종학(1984)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어 이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다만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을 조사에 포괄하였는데 선행연구 중 일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 정서와 사회적 불안의 관련이 약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1차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에서도 삶의 만족과 불안의 관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표 2-2〉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 구성

문항	출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신규 추가 문항)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제3장

청·중년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집단 비교

제1절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 비교
제2절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구조
제3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제4절 주요 요인별 사회적 불안

제3장 청·중년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집단 비교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기술분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소개를 한다. 이 연구에서 초점으로 하는 주 요인들에 따라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이러한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의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 수준이 외국의 사회적 불안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분석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를 활용하였다. 한편 국제기구 및 선행연구에서 국가 단위 사회적 지표를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하면서 함께 주목하고 있는 관련 지표들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요인들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수준 차이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포함하여 주요인별로 불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 사회적 불안의 수준 비교는 단순 기술분석으로 한정하였다. 관련 요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영향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이나 관련 요인의 통제를 전제로 하여야 보다 분명하여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각 주제별 분석을 하고 있는 제4장과 제5장, 그리고 6장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제1절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 비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은 서로 맞물려 있다. 개인이 인지하는 사회적 불안과 개인의 불안 모두 사회적 불안 지표에 관계가 있다는 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우리 사회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의 사회 불안에 대한 국가 단위 분석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개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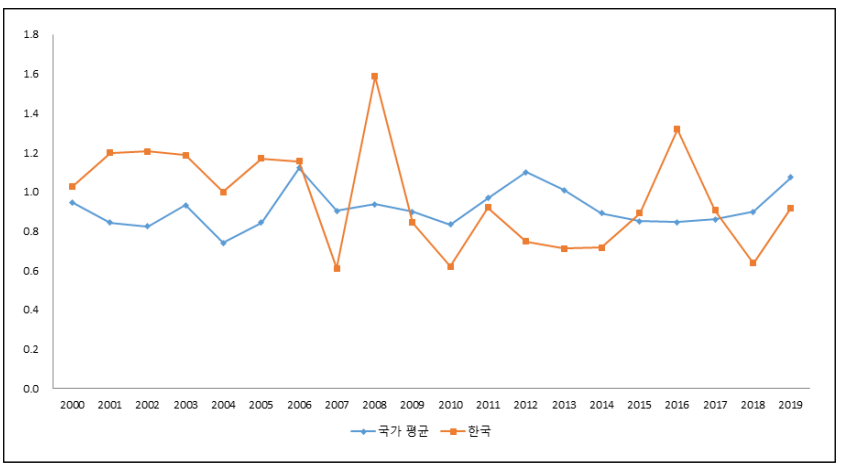
1. 외국의 사회적 불안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은 어느 수준인가?
2.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은 어떻게 변화하여왔으며 현재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어떠한가?
3.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불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권고한 지표들은 실제 사회적 불안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가 비교로 살펴보았다. 사회적 불안은 ILO를 비롯하여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1년간 발생한 사회적 사건 중 시위(protests)의 수 비율[10]'이다. 각국의 사회적 불안은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에서 추출, 계산하였다. 동 자료 및 관련 지표의 입수가 가능한 국가들을 분석에 포함하되, 분석 국가의 용이한 이

10)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The GDELT Project. https://www.gdeltproject.org/.

해를 위하여 회귀분석은 이 국가들 중 OECD 회원국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11] 분석 대상 국가들의 사회적 불안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1]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의 시기별 국가 비교



자료: The GDELT Project. GDELT 2.0 Event database. https://www.gdeltproject.org에서 2020. 11. 12.~13. 인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 불안은 불안 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2008년까지 비교국가 평균보다 높았다. 이후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 불안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6년 시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촛불집회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7년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진 후 2018년 이후에는 상대

11) GDELT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국가는 46개국이었다. 해당 국가는 아래와 같다.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이 중 OECD 국가는 37개국이었다.

적으로 낮아진 불안 수준이 2019년 다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다른 비교 국가 평균도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은 비교 국가들 평균과 비교하여 그리 높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낮은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 수준은 변화가 작지 않아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점검과 관리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므로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 관련 요인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정부 신뢰, 실업률, 사회지출(또는 사회지출의 감소), 불평등이다. 또한 사회적 위험의 결과이자 신호로 지켜보아야 하는 지표로는 범죄율(또는 강력범죄율)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자살률도 사회적 위험의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 국제기구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보급률(또는 이용률)은 불안의 요인들이 가중, 누적되고 있을 때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불안, 즉 시위 등으로 촉발되도록 하는 매개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과 주요 사회지표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사회적 불안을 점검하고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매개지표들을 찾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2009~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37개국의 관련 지표를 통합(pooling)하여 사례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분석의 안정성을 높였다.

〈표 3-1〉 국가 단위 사회적 불안과 관련 지표의 자료구성

지표	자료출처
사회적 불안	The GDELT Project. GDELT 2.0 Event database. https://www.gdeltproject.org/에서 2020. 11. 12.~13. 인출.
정부 신뢰도	OECD.Data. Government.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실업률	OECD.Stat. Labour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1. 2. 인출.
사회지출/GDP (%)	OECD.Data. Society.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가처분소득 불평등(Gini)	OECD.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0. 30. 인출. 한국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p. 155 표 4-21의 가처분소득으로 대체함.
자살률	OECD.Stat. Health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1. 2. 인출.
살인율	OECD.Stat. Health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1. 2. 인출.
인터넷 보급율	OECD.St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0. 30. 인출.
GDP	OECD.Data. Economy.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사회적 불안(사회적 사건 중 시위의 비율)과 앞에서 언급한 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3-2〉와 같다. 사회적 불안은 실업률, 소득불평등, 자살률, 살인율, 인터넷 보급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사회불평등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사회적 불안과 자살률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았다. 자살률로는 사회적 불안을 감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신뢰, 실업과 사회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관리할 때 주요한 사회지표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인터넷 보급율은 사회 불안과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 인터넷 보급이 사회적 불안을

촉발한다는 지적은 상관관계로는 짐작하기 어려웠다. 다만 일정 수준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을 때 시위로 전환되는 과정 중 매개로 인터넷 보급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은 단순 상관관계 분석 결과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하겠다.

〈표 3-2〉 사회적 불안 지표 간 상관관계

	사회 불안	정부 신뢰	실업률	사회지출	지니계수	GDP	자살률	살인율
정부 신뢰	-.316**							
실업률	.282**	-.452**						
사회지출	-.023	.036	.237**					
지니계수	.156**	-.146*	.139*	-.527**				
GDP	-.306**	.644**	-.377**	.267**	-.354**			
자살률	-.161**	-.262**	-.141*	-.070	-.270**	-.064		
살인율	-.104	-.116*	.038	-.494**	.611**	-.408**	-.190**	
인터넷	-.284**	.414**	-.408**	.241**	-.561**	.685**	.250**	-.575**

주: * p<.05; ** p< .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OECD.Data. Economy.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OECD.Data. Government. https://data 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OECD.Data. Society.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OECD.Stat. Health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1. 2. 인출; OECD.St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0. 30. 인출; OECD.Stat. Labour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1. 2. 인출; OECD.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0. 30. 인출.

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모형 1은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거론된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GDP도 변수로 투입하였다. 참고로 GDP는 사회적 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306**)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이 같

을 때 정부 신뢰와 실업률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사회적 불안을 논의하는 각종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한 요인이다. ILO는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지수에 실업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바 있다. 2011년 이후 해당 보고서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 중 에 있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사회 불안이 높다는 점을 언급해 오고 있다(ILO, 2012; ILO, 2015, p. 30). 정부 신뢰도 ILO의 사회 불안 지수에 높은 가중치(.3~.35)를 부여한 지표로 포함되기도 한 주요 요인이다.

이 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그리 높지 않으나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불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때 정책추진의 주요 지점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과 정부 신뢰가 불안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정책 대응 지점일 수 있다.

참고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사회지출의 변화량, 즉 사회지출이 감소하면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지출의 변화량을 사회지출을 대신하여 투입한 모형에서 사회지출의 변화는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선행연구인 Ponticelli & Voth(2020)의 연구가 상당히 긴 기간의 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이어서 단기의 이 분석과 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 분석 결과의 차이는 기간의 차이뿐 아니라 분석 대상이 된 시기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지출이나 불평등은 수준 자체뿐 아니라 상황이 변화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미래에 예기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차이는 정교한 분석으로 보완되어 더 정교한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3〉 사회적 불안 지표 회귀분석 결과

요인	유의도와 영향수준	
	β	t(p)
(Constant)		3.218 **
정부 신뢰	-.156	-2.056 *
실업률	.146	2.135 *
사회지출	.025	.339
지니계수	.081	1.165
GDP	-.128	-1.610
인터넷 사용률		
R^2	.142	
adjusted R^2	.127	

주: * p<.05; ** p< .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OECD.Data. Economy.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OECD.Data. Government.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OECD.Data. Society.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OECD.St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0. 30. 인출; OECD.Stat. Labour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1. 2. 인출; OECD.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0. 30. 인출.

인터넷 사용률은 회귀분석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인터넷 사용이 사회적 불안을 촉발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횡단면 자료의 분석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특정 사회의 사건사 분석을 하는 것이 인터넷 사용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더 적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적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누적된 이후에서야 계량적 분석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제2절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구조

1. 사회적 불안의 측정

사회적 불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몇몇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시도를 한 바 있다. 선행연구들의 조사 경험을 기초로 사회적 불안 측정을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대부분 선행연구의 문항 중 주요문항을 기초로 1차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자문회의의 자문과 인터뷰의 내용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지수화된 측정과 더불어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수준을 묻는 단문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문항을 구성한 이유는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때 지수화된 다문항으로 조사하는 것과 단문으로 인지를 조사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여 이후 사회적 불안의 조사에 유용한 함의를 찾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문항의 구성과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척도화된 여러 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일종의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4〉 참조). 이는 사회적 불안 관련 선행연구의 조사문항을 참조하여 구성하고, 수정하여 보완한 문항이다.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는 .915였다. 신뢰도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모든 개별 문항에서 해당 문항들을 제거할 때 크론바흐 알파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24개 문항들이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4〉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85.52	153.834	.463	.911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86.06	150.578	.492	.911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85.53	151.444	.519	.910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질 것이다.	85.21	153.992	.464	.911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85.16	153.169	.503	.911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85.40	149.775	.614	.909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86.25	149.046	.484	.911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85.67	148.685	.562	.910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85.53	150.195	.545	.910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85.67	149.263	.616	.909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85.73	147.444	.691	.907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85.82	149.405	.553	.910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86.24	149.465	.534	.910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86.29	149.896	.515	.910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86.19	149.240	.497	.911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86.01	152.267	.407	.913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86.20	151.429	.482	.911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85.32	150.450	.534	.910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85.67	150.421	.564	.910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85.71	149.870	.567	.910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86.06	147.518	.562	.910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86.29	147.959	.510	.911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85.87	148.025	.547	.910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86.53	147.961	.539	.9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4개 문항을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각 문항이 사회적 불안의 어떤 측면을 측정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문항으로 구성되는 지수화된 방식의 사회적 불안의 측정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무엇을 측정하여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문의 측정과 달리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측정은 사회적 불안의 수준뿐 아니라 불안의 내용을 함께 파악하는 힘을 갖는다. 베리멕스 방식의 주성분 분석을 한 결과, 총 5개의 요인으로 문항들이 재구성되었다. '공정성', '경쟁과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과 도태'로 각 요인의 특징을 대변할 수 있다.

조권중의 연구(2014)는 사회적 위험을 자연재해, 건강, 생애주기 관련 위험, 사회생활, 경제생활, 정치 및 대외관계, 환경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훈구(2004)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 영역을 정치, 경제, 남북, 노사, 교육, 빈부격차로 구성한 바 있다. 이러한 구성은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선험적인 문제영역으로 구분한 것으로 불안의 기저를 규명하는 데는 적절한 구분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최인철, 김범준(2005)은 사회 불안을 '통제감 상실', '사회 공정성 불신', '사건·사고 등에 대한 취약성' 등 3개 요인으로 구분한 바 있고, 이 연구의 설문구성에 많은 도움을 받은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의 연구(2004)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 도구를 개인적 불안, 경제적 불안, 공정성 불안, 미래 불안, 불신 불안, 안전 불안, 사회문제 불안, 정치 불안으로 구성한 바 있다. 위의 두 연구에서 구분한 불안의 하위 영역은 이 연구에서 도출된 불안 측정의 영역과 상당히 중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 불안, 개인적 불안 등은 불안 영역의 수위 또는 차원에서 다소 불일치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측정함에 있어서 '공정성', '경쟁과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과 도태'가 불안의 주요 측면임을 규명함과 동시에

불안의 기저가 되는 중요한 요인을 중심으로 그 요인군의 특성을 살려 측정의 도구를 구성할 때 위와 같은 영역의 구성이 적절한 대안임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그 수준 자체로 의미를 지니지만 어떤 영역의 불안이 높은가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불안에 대한 해석이 더 풍부하고 정교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안의 영역은 송관재 외의 연구와 비교하여 더 유사성이 높은 문항들의 조합으로 재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불안의 하위 영역 중 공정성은 가장 유의미한 요인군으로 분류되었다. 많은 선행연구와 서면자문에서 취업과 진학의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5〉 요인분석 결과

문항	성분					요인
	1	2	3	4	5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714	.169	.238	.166	.088	공정성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699	.152	.148	.258	-.052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695	.186	.066	.006	.310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624	.401	.065	.056	.249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525	.275	.138	.254	.113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458	.290	.378	.243	.256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질 것이다.	.207	.719	.196	.080	-.049	경쟁/불평등

문항	성분					요인
	1	2	3	4	5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425	.667	.048	.041	.006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014	.633	.102	.139	.335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273	.515	.018	.035	.445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417	.501	.103	.104	.141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326	.390	.174	.303	.177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098	.056	.878	.159	.137	정부 신뢰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160	.152	.856	.151	.101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20	.180	.673	.049	.118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160	.097	-.018	.761	.239	안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211	-.021	.150	.724	.201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058	.284	.353	.521	-.010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265	.230	.072	.515	.268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468	-.080	.240	.499	.119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205	.028	.055	.238	.703	적응/ 도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017	.321	.096	.221	.647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39	-.079	.360	.104	.598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033	.205	.151	.382	.4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사회적 불안의 구조

가. 표본의 특성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분석에 앞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6〉과 같다. 설문조사는 19~44세 청·중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44세가 22.0%, 35~39세가 20.4%로 다른 연령에 비해 약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연령 구간대별로 약 20% 내외로 나타났다. 가구 내 지위는 가구주인 경우가 39.6%, 자녀인 경우가 38.3%로 이 두 지위가 약 80%를 차지했다. 35~44세에서 가구주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34.7%로 높게 나타났다. 19~34세에서는 60% 정도가 가구 내 자녀이다.

경제활동상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48.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임시직 11.3%, 학생 9.7%, 자영업자와 주부가 각각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5~44세에서 상용직(58.7%)과 주부(12.9%) 및 자영자(11.0%)의 비율이 특히 높고, 19~34세에서는 상용직(40.6%) 외에 학생(16.7%)과 임시직(14.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월평균 가구소득(가구 균등화된 소득) 및 개인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청년과 중년의 연령대에 관계 없이 월 평균 약 273만 원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개인소득은 전체 평균은 약 210만 원 수준이나 연령 범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상용직 및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던 35~44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77만 원, 학생과 임시 · 일용직 및 실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9~34세의 경우에는 16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 규모를 보면 평균 가구원 수가 약 3인이며(4인 35.6%, 3인 28.1%

등), 응답자의 46.1%가 중소도시, 45.3%가 대도시, 8.6%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다.

〈표 3-6〉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19세~34세 청년		35세~44세 중년		전체 청·중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526	29.3	708	53.5	1,234	39.6
	배우자	175	9.8	460	34.7	635	20.4
	자녀	1,058	59.0	135	10.2	1,193	38.3
	기타	34	1.9	21	1.6	55	1.8
성별	남성	933	52.0	675	51.0	1,608	51.6
	여성	860	48.0	649	49.0	1,509	48.4
연령대	19세~24세	608	33.9	0	0.0	608	19.5
	25세~29세	601	33.5	0	0.0	601	19.3
	30세~34세	584	32.6	0	0.0	584	18.7
	35세~39세	0	0.0	637	48.1	637	20.4
	40세~44세	0	0.0	687	51.9	687	22.0
	평균 연령	26.8		39.7		32.3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727	40.6	777	58.7	1,504	48.3
	임시직 임금근로자	257	14.3	95	7.2	352	11.3
	일용직 임금근로자	107	6.0	44	3.3	151	4.8
	고용주	2	0.1	8	0.6	10	0.3
	자영업자	88	4.9	146	11.0	234	7.5
	무급 가족 종사자	5	0.3	11	0.8	16	0.5
	실업자	148	8.3	50	3.8	198	6.4
	주부	62	3.5	171	12.9	233	7.5
	학생	300	16.7	2	0.2	302	9.7
	군복무	33	1.8	0	0.0	33	1.1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64	3.6	20	1.5	84	2.7
가족 수	1인	279	15.6	147	11.1	426	13.7
	2인	248	13.8	170	12.8	418	13.4
	3인	468	26.1	407	30.7	875	28.1
	4인	661	36.9	448	33.8	1,109	35.6
	5인 이상	137	7.6	152	11.5	289	9.3
	평균 가족 수	3.1		3.2		3.2	

구분		19세~34세 청년		35세~44세 중년		전체 청·중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지난 3개월 월평균 근로소득	소득 없음	555	31.0	231	17.5	786	25.2
	150만 원 미만(0원 제외)	335	18.7	100	7.6	435	14.0
	150~300만 원 미만	579	32.3	386	29.2	965	31.0
	300~450만 원 미만	216	12.1	364	27.5	580	18.6
	450만 원 이상	108	6.0	243	18.4	351	11.3
	개인소득 평균	160.0		276.9		209.6	
지난 3개월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 원 미만	305	17.0	158	11.9	463	14.9
	150~300만 원 미만	870	48.5	749	56.6	1,619	51.9
	300~450만 원 미만	403	22.5	295	22.3	698	22.4
	450만 원 이상	215	12.0	122	9.2	337	10.8
	가구소득 평균	273.4		273.8		273.6	
지역1	서울시	388	21.6	257	19.4	645	20.7
	경기도	476	26.6	377	28.5	853	27.4
	기타 도시	798	44.5	592	44.7	1,390	44.6
	기타 농어촌	131	7.3	98	7.4	229	7.4
지역2	대도시	833	46.5	578	43.7	1,411	45.3
	중소도시	804	44.8	633	47.8	1,437	46.1
	농어촌	156	8.7	113	8.5	269	8.6
합계		1,793	100.0	1,324	100.0	3,117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3-7〉은 응답자의 연령을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대상 중 여성은 48.4%였으며, 30~34세와 35~39세 여성 비율은 50.0%, 55.9%로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높은 비중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 거주자는 45.3%였으며, 25~29세의 광역시 거주 비중이 51.9%로 높은 수준이었다.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8.4%였으며 19~24세, 25~29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각각 1.5%, 10.2%였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33.6%로 유배우자 비율보다 낮았는데, 결혼 후 바로 자녀를 갖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과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7.9%였는데, 20대 이하는 다소 높은 편이었

고, 30~34세는 34.8%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개인의 심리적 불안의 평균 점수는 1.9점이었으며, 연령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구내 지위가 가구주인 경우는 39.6%였다. 청년 중 가구주 비율은 20대 집단에서 매우 낮았는데, 취업이나 결혼 이전까지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도 19~24세 84.7%, 25~29세 67.2%로 매우 높았다. 1인 가구 비율은 13.7%였는데, 25~29세와 30~34세에서 더 높았다.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1인 독립 가구를 구성하는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는 55.9%였는데 20대까지는 이 비중이 유지되다가 30대에 줄어들고, 30대 후반 중년층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독립하면서 전, 월세에 거주하고 이후 내 집을 마련하는 주택 점유형태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일치한다(박천규, 이수욱, 손경환, 2009).

현재 상태는 19~24세, 25~29세는 학생의 비중이 높았으며,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시기인 25~29세의 경우, 실업자 비율이 12.0%로 전체 실업자 비율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구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부 등 비구직 미취업자는 30~34세, 35~39세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결혼 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의 노동 생애 특성과 일치한다. 정규직 상용자와 고용주인 경우는 44.8%였는데, 19~24세, 25~29세는 9.9%, 42.6%로 그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학교 졸업 후 첫 일자리를 갖는 청년의 대다수가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루트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구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기준)의 60% 미만인 경우로 측정한 빈곤율은 5.7%였으며, 19~24세는 10.4%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중이 84.7%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은 부모 가구의 빈곤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7〉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청년			중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사례 수(명, %)		3,117	608(19.5)	601(19.3)	584(18.7)	637(20.4)	687(22.0)
여성		48.4	45.6	48.4	50.0	55.9	43.7
평균연령(세, sd)		32.3(7.5)	21.6(1.7)	27.0(1.4)	32.3(1.4)	37.3(1.4)	42.0(1.4)
광역도시 거주		45.3	41.5	51.9	46.1	43.8	43.5
배우자 있음		38.4	1.5	10.2	38.9	65.5	74.8
자녀 있음		33.6	1.2	5.3	26.5	59.0	69.4
건강상태 좋음		37.9	41.9	40.0	34.8	36.3	36.7
평균 심리적 불안		1.9(0.4)	1.9(0.5)	1.9(0.4)	1.9(0.4)	1.9(0.4)	1.8(0.4)
가구주		39.6	12.7	32.1	43.8	48.7	57.9
부모와 동거		45.9	84.7	67.2	40.6	23.4	18.3
1인 가구 비율		13.7	10.4	17.3	19.2	13.7	8.7
자가 거주		55.9	58.1	50.8	49.7	58.6	61.3
현재 상태	학생	21.0	58.9	25.0	8.4	7.5	7.1
	비구직 미취업	11.2	8.7	7.2	10.8	16.0	13.0
	실업	6.4	6.4	12.0	6.3	3.9	3.6
	임시일용·프리랜서	12.9	13.5	10.3	9.6	14.6	15.7
	비정규 상용직	3.8	2.6	3.0	4.1	3.3	5.7
	정규 상용직	44.8	9.9	42.6	60.8	54.6	54.9
균등화가구소득 평균 (만 원, sd)		273.6 (143.8)	257.8 (150.2)	271.9 (141.8)	291.3 (143.8)	268.4 (140.4)	278.7 (141.5)
기준 중위 60% 미만		5.7	10.4	5.8	5.1	4.2	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분석을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 사회적 불안 인지 수준과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그리고 개인 단위의 불안을 중심으로 불안 수준을 소개[12]한다. 사회적 불안의 구조를 짐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수준,

지수화된 문항으로 파악한 전체적인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영역별 불안 수준, 그리고 개인의 불안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기술분석으로 청·중년의 불안 수준을 개괄한 것이다.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사회적 불안의 인지에 대한 응답은 전체 응답자가 4.14 정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청·중년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개인 불안은 다소 달라서 평균점수가 2.37이었고 '별로 불안하지 않다'에 가깝다.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을 보면 응답자의 평균은 3.73으로 다소 불안하다는 응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 불안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더 불안하다고 응답한 영역은 경쟁/불평등 영역이고 다음이 공정성, 정부 신뢰의 수준이었다. 경쟁/불평등과 공정성의 불안 수준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았다. 표준편차도 낮아서 이러한 불안의 경향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청년과 중년을 구분하여 보면 청년은 중년과 비교하여 지각된 사회 불안은 다소 낮고 척도화된 사회적 불안은 다소 높았다. 이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니었다. 영역별로 보면 청년은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에서 불안 수준이 중년보다 높고 반면 중년은 공정성과 경쟁/불일치에서 불안이 높았다. 정부 신뢰 영역과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은 표준편차가 커서 청년과 중년 간의 차이도 크고 청년 내부, 중년 내부의 차이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연령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한 불안의 차이가 이 두 영역에서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

12)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주요 요인별로 비교분 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규명한 분석은 제5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3-8〉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수준

(단위: 점, 표준편차)

구분		전체 응답자		청년		중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 불안 인지		4.14	0.79	4.13	0.78	4.15	0.81
사회 불안	전체	3.73	0.53	3.74	0.55	3.72	0.51
	공정성	3.95	0.65	3.92	0.67	3.99	0.62
	경쟁/불평등	4.16	0.55	4.14	0.57	4.17	0.52
	정부 신뢰	3.49	0.92	3.54	0.90	3.41	0.94
	안전	3.45	0.68	3.48	0.70	3.41	0.64
	적응/도태	3.30	0.72	3.33	0.73	3.26	0.69
개인 불안		2.37	0.64	2.41	0.65	2.33	0.62

주: 1) 지각된 사회 불안과 사회 불안 척도는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불안하다, 매우 그렇다) 등 5점 척도로 구성됨.
2) 개인 불안 원척도는 1점(그렇지 않다)~4점(항상 그렇다) 등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 불안과의 비교를 위해 5점으로 환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사회적 불안 인지·사회적 불안의 하위영역 불안·개인 불안의 관계

개인의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은 다른 특성을 가지는 불안으로 상관관계는 낮은 수준이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문으로 '얼마나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는 경우 사회적 불안을 지수로 파악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사회적 불안을 파악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 불안 인지 및 개인의 불안은 지수화된 사회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사회 불안 인지는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데 다소 불안정하다. 이유는 이후 분석 결과들과 관련된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지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상관관계는 있어도 관련 요인별로 불안 점수를 비교한 기술분석에서 사회적 불안의 인지 수준과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수준은 경향이 상이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사회적 불안을 이해할 때는 조금 더 상세한 문항의 구성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을 합산한 값은 개별 영역별 사회적 불안과 당연히 유의미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는데 공정성, 경쟁/불평등과 사회적 불안 전체의 값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9〉 사회적 불안/하위 영역/개인 불안의 상관관계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개인 불안
사회 불안 인지	1	.493**	.400**	.474**	.357**	.361**	.336**	.239**
사회 불안 전체	.493**	1	.862**	.803**	.684**	.791**	.766**	.444**
공정성	.400**	.862**	1	.701**	.488**	.567**	.533**	.312**
경쟁/불평등	.474**	.803**	.701**	1	.413**	.478**	.510**	.253**
정부 신뢰	.357**	.684**	.488**	.413**	1	.446**	.419**	.251**
안전	.361**	.791**	.567**	.478**	.446**	1	.589**	.409**
적응/도태	.336**	.766**	.533**	.510**	.419**	.589**	1	.538**
개인 불안	.239**	.444**	.312**	.253**	.251**	.409**	.538**	1

주: ** p 〈0.01, * p〈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라. 인지·경험과 사회적 불안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이해 중 하나의 쟁점은 경험과 인식이 사회적 불안에 주는 영향이다. 논의의 핵심은 사회적 사건과 같은 객관적 경험보다

주관적 인식이 사회적 불안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차별 인식과 차별 경험, 박탈 경험, 사회적 사건의 경험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얼마나 상이한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차별 경험 유무보다 차별이 있다고 인지하는지 여부에 따른 불안 수준의 차이가 더 컸다. 차별 경험 여부로 구분된 집단 사이의 불안 수준 차이는 0.29~0.39인 반면 차별을 인식한 수준에 따른 불안 수준 차이는 0.23~0.73이었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은 차별 인식 수준에 따라 .58의 차이를 보였지만 차별 경험에 따라서는 .30의 차이를 보였다. 박탈 경험과 사회적 사건의 경험에 따른 차이를 보아도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과 비교하여 불안의 수준이 높았지만 차별 인식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보다는 작은 차이였다. 경험 중에서는 차별 경험이 가장 큰 사회적 불안의 차이를 보이게 하였고, 다음이 사회적 사건의 경험이 사회적 불안의 차이를 크게 만들었고, 박탈 경험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가 가장 작았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응답자의 90%가 넘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에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심각하다고 생각한 수준이 가장 높은 차별은 부(부동산 등 재산)의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이었는데 각 점수가 4.33, 4.14점으로 평균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연령차별, 승진차별, 교육기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불안 수준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불안과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로 높았다.

〈표 3-10〉 경험/인식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차별 인식[1]	부정(A)	3.71	3.20	3.27	3.56	3.28	2.98	2.78	2.11
	보통	3.75	3.33	3.46	3.68	3.24	3.10	2.95	2.21
	긍정(B)	4.17	3.78	4.00	4.21	3.51	3.49	3.35	2.39
	차이(B-A)	0.47	0.58	0.73	0.65	0.23	0.51	0.56	0.29
차별 경험[2]	없음	3.85	3.45	3.68	3.87	3.27	3.19	2.94	2.09
	있음	4.15	3.75	3.97	4.17	3.50	3.47	3.32	2.39
	차이	0.30	0.30	0.28	0.30	0.23	0.28	0.39	0.30
박탈 경험[3]	없음	4.00	3.59	3.78	4.01	3.44	3.32	3.13	2.17
	있음	4.20	3.80	4.03	4.22	3.51	3.51	3.38	2.47
	차이	0.20	0.21	0.25	0.21	0.07	0.19	0.25	0.29
사회적 사건 경험[4]	없음	3.94	3.55	3.77	3.98	3.40	3.24	3.06	2.10
	있음	4.18	3.79	4.01	4.21	3.50	3.51	3.37	2.46
	차이	0.25	0.24	0.24	0.23	0.09	0.27	0.31	0.37

주: 1) 성별에 따른 차별, 연령으로 인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외모로 인한 차별, 학력으로 인한 차별, 교육 기회 불평등, 취업 기회 불평등, 승진 기회 불평등, 소득 불평등,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2) 성별에 따른 차별, 연령으로 인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외모로 인한 차별, 학력으로 인한 차별, 직업 및 고용 지위로 인한 차별, 소득 및 부로 인한 차별, 지역에 의한 차별 경험 여부.
3) 건강, 돌봄, 주거, 교육 영역에서 박탈 경험 여부.
4) 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 세월호 사고로 경제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가족이 있는지 여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최근 우리 사회의 삶의 만족, 행복 등 주관적 정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과거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관심으로 한정된 연구경향과 대조되는 변화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정서적 조건도 경제적, 물리적 조건과 더불어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수용된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1차 연구에서 이점을 논의한 바 있다. 1차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삶의 만족이 높아도 불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하고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수준도 낮다. 개인 불안도 그러하다. 앞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 정서적 상태를 칭하는 개념들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불안의 영역으로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적응/도태, 경쟁/불평등, 공정성 불안이 특히 낮았다. 역으로 보자면 적응/도태 불안, 경쟁/불평등 불안, 공정성 불안이 낮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삶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불안을 서로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삶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불안이 관련이 있고 특히 적응성, 경쟁, 공정에서 이러한 연관성이 더 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1〉 삶의 만족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부정	4.38	3.94	4.18	4.36	3.68	3.62	3.57	2.65
	보통	4.05	3.67	3.89	4.08	3.43	3.41	3.26	2.30
	긍정	3.89	3.49	3.68	3.96	3.27	3.26	2.95	2.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3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인구사회학적 일반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기술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하는 제 요인은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정리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청·중년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하의

분석 결과는 본격적인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분석 이전에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개요를 이해하는 데 기초정보가 될 것이다.

〈표 3-12〉에서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사회 불안 인지 수준과 개인 불안을 비롯하여,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모두에서 여성의 불안 수준이 남성과 비교하여 높았다. 다만 영역별로 볼 때 정부 신뢰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 높았다. 정부 신뢰는 어떤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일반적 수준의 정부에 대한 신뢰인지, 2020년 정부에 대한 신뢰인지가 모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를 유발한 정부 신뢰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30대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높았다. 정부 신뢰에서는 청년 초기와 30대 초반에서 불안이 높고 안전에서는 25~34세의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였다. 적응/도태에서는 30대 초반의 연령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이 점은 개인 불안에서와 유사하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흥미로운 것은 배우자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응답자가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공정성, 경쟁/불평등 영역에서 불안이 크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 소득원인 가구주의 경제활동의 성과, 또는 가구 내 이러한 성과 및 자원 재분배 양상 등 여러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혼인상태로 보면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자가 인지된 사회 불안과 지수화된 사회 불안 전체에서 그 수준이 높지만 개인 불안은 낮고 영역별로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에서는 불안 수준이 낮았다. 가구주가 응답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의 응답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신뢰와 적응/도태에서는 자녀의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가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큰 폭으

로 불안이 더 높았다. 개인 불안도 높았고 영역별로는 안전에서 불안이 큰 차이로 높았다. 응답자가 장애인인 경우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불안이 높았는데 개인 불안의 차이가 매우 컸고 영역별로는 적응/도태에서 사회적 불안이 큰 차이로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교 졸업 학력의 응답자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대학졸업자의 경우 경쟁/불평등 불안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큰 차이로 높았고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에서는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집단보다 불안이 낮았다. 다만 개인 불안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았다.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의 사회 불안 인지 수준이 가장 높았고 개인의 불안 수준도 높았다. 그러나 개인 불안 수준은 도시지역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의 사회적 불안, 개인 불안이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의 영역별로 보면 정부 신뢰에 대한 불안에서 지역차이가 컸다.

〈표 3-1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성별	남성	3.99	3.67	3.91	4.06	3.51	3.34	3.24	2.29
	여성	4.30	3.80	4.00	4.26	3.46	3.57	3.37	2.46
연령대	19세~24세	4.08	3.68	3.81	4.06	3.55	3.45	3.28	2.35
	25세~29세	4.10	3.74	3.92	4.18	3.52	3.46	3.34	2.42
	30세~34세	4.21	3.80	4.02	4.20	3.56	3.53	3.38	2.45
	35세~39세	4.22	3.76	4.01	4.21	3.48	3.44	3.32	2.40
	40세~44세	4.09	3.69	3.98	4.14	3.34	3.38	3.21	2.26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4.06	3.72	3.97	4.13	3.46	3.42	3.28	2.36
	배우자	4.32	3.79	4.03	4.27	3.48	3.50	3.32	2.42
	자녀	4.12	3.72	3.89	4.12	3.52	3.45	3.33	2.37
	기타	4.04	3.68	3.82	4.11	3.48	3.52	3.21	2.37
만성질환	없음	4.12	3.72	3.94	4.15	3.49	3.44	3.29	2.34
	있음	4.22	3.79	4.03	4.21	3.47	3.54	3.38	2.60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장애 여부	비장애인	4.13	3.73	3.95	4.16	3.49	3.45	3.30	2.37
	장애인	4.23	3.74	3.93	4.04	3.53	3.52	3.42	2.70
혼인 상태	배우자 없음	4.11	3.73	3.92	4.12	3.52	3.46	3.33	2.40
	배우자 있음	4.18	3.74	4.00	4.20	3.44	3.44	3.27	2.34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12	3.71	3.89	4.08	3.55	3.47	3.33	2.41
	대학교 졸업	4.15	3.74	3.98	4.19	3.46	3.45	3.30	2.37
	대학원 이상	4.08	3.71	3.93	4.19	3.47	3.40	3.24	2.27
지역1	서울시	4.17	3.74	3.95	4.19	3.51	3.44	3.31	2.38
	경기도	4.16	3.72	3.94	4.16	3.49	3.42	3.27	2.37
	기타 도시	4.12	3.75	3.97	4.16	3.49	3.47	3.32	2.38
	기타 농어촌	4.07	3.67	3.88	4.06	3.40	3.43	3.28	2.35
지역2	대도시	4.17	3.75	3.97	4.18	3.52	3.47	3.33	2.38
	중소도시	4.12	3.72	3.95	4.15	3.47	3.44	3.29	2.38
	농어촌	4.06	3.66	3.87	4.04	3.39	3.44	3.24	2.33
전체		4.14	3.73	3.95	4.16	3.49	3.45	3.30	2.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응답자의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선 가구규모가 3인인 응답자가 다른 가구규모 대비 인지된 사회 불안과 지수화된 사회 불안 수준이 높았고, 2인, 1인 가구의 응답자의 개인 불안 수준이 높았다. 3인 가구의 응답자는 정부 신뢰, 경쟁/불평등 영역에서 불안 수준이 높았는데 가족으로 경쟁/불평등에 직면하는 이슈가 많고 이로써 정부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상과 달리 혼자 사는 응답자의 불안 인지나 지수화된 불안이 더 높지는 않았다. 아동이 있는 가구는 없는 가구의 응답자와 비교하여 개인 불안은 낮지만 공정성과 경쟁/불평등 불안은 더 높았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응답자와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응답자 모두 사회 불안이 높다고 느끼고 있었고 개인 불안, 지수화된 불안이 모두 높았다. 다만 공정성, 경쟁/불평등 불안은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서 더 낮았다.

〈표 3-13〉 응답자의 가구구성 특성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가구 규모	1인	4.08	3.73	3.97	4.16	3.47	3.44	3.29	2.39
	2인	4.13	3.74	3.98	4.16	3.44	3.47	3.34	2.42
	3인	4.18	3.78	4.01	4.21	3.54	3.48	3.35	2.37
	4인	4.12	3.70	3.89	4.12	3.47	3.42	3.27	2.35
	5인 이상	4.17	3.71	3.91	4.13	3.49	3.46	3.25	2.38
아동 유무	없음	4.12	3.73	3.94	4.15	3.50	3.45	3.32	2.38
	있음	4.16	3.73	3.96	4.16	3.46	3.45	3.28	2.36
노인 유무	없음	4.14	3.73	3.95	4.16	3.48	3.44	3.29	2.37
	있음	4.14	3.75	3.96	4.09	3.51	3.49	3.40	2.41
장애인 유무	없음	4.13	3.73	3.95	4.16	3.48	3.45	3.30	2.36
	있음	4.17	3.75	3.93	4.07	3.56	3.52	3.42	2.60
만성질환자 유무	없음	4.10	3.71	3.92	4.14	3.48	3.42	3.27	2.32
	있음	4.23	3.80	4.04	4.21	3.50	3.53	3.39	2.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적 불안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또는 사회적 불안의 어느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집단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이하다. 둘째, 일반적 예상과 달리 1인 가구의 불안이나 가구주의 불안이 다인가구 또는 배우자 등 여타 집단과 비교하여 크게 높지는 않았다. 셋째, 혼인상태에 있거나 가구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일 때, 미혼보다 또는 가구주보다 불안의 수준이 더 낮지 않았다. 사회적 불안이 가구의 소득을 책임지는 주 소득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졸자의 불안 수준이 공정성, 경쟁/불평등 불안을 중심으로 여타 집단에 비하여 높아 우리 사회의 청·중년들이 학력이 높아도 사회에서 과열된 경쟁과 이와 관련된 불공정으로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4절 주요 요인별 사회적 불안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언급된 바 있다. 제4절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비교하였다. 주요 요인들로 주목하는 고용상태, 본인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 전통적 문화에 대한 인식과 세대인식, 생애주기의 특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삶의 자유에 대한 인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경험유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1. 경제적 특성과 사회적 불안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취업 여부는 청·중년의 불안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되어 왔다. 앞에서 국가 단위 불안에서도 실업률과 사회적 불안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취업 여부에 따라 사회적 불안 수준은 상이하였는데 취업한 중년 응답자는 사회가 불안하다고 덜 느끼고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수준도 낮았다. 청년은 취업한 청년이 사회가 불안하다고 덜 느끼는 것은 유사하였으나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수준은 동일하였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 응답자는 적응/도태에서 불안 수준이 취업 청년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차이로 높았다. 개인 불안은 청년의 경우 취업한 응답자가 미취업 응답자와 비교하여 높았고, 중년의 경우에는 반대로 미취업 응답자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4〉 취업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취업	19세~34세	4.11	3.74	3.92	4.14	3.54	3.49	3.31	2.43
	35세~44세	4.10	3.70	3.98	4.14	3.41	3.39	3.24	2.30
미취업	19세~34세	4.15	3.74	3.91	4.16	3.55	3.45	3.38	2.35
	35세~44세	4.40	3.81	4.06	4.29	3.42	3.50	3.37	2.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의 주부가 가장 높은 사회적 불안 수준에 있었다.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하고 공정성과 경쟁/불평등, 안전에서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개인 불안의 수준은 실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부 신뢰와 적응/도태로 인한 불안 수준은 기타 비경활에서 높았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하는 집단의 불안 수준이 낮았으며 상용직의 불안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임시/일용직은 다른 취업집단과 비교하여 정부 신뢰와 안전, 적응/도태 등 사회 불안과 개인 불안에서 불안 수준이 높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의 불안 수준이 가입 집단과 비교하여 높았는데 적응/도태에서 그리고 개인의 불안에서 불안 수준이 높았다. 월평균소득에서는 소득이 없는 집단뿐 아니라 저소득 집단의 사회적 불안도 높았다. 저소득 집단은 공정성과 정부 신뢰, 안전에서 불안 수준이 높았고 개인 불안의 수준도 높았다.

〈표 3-15〉 경제활동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4.07	3.72	3.96	4.14	3.47	3.44	3.26	2.33
	임시/일용	4.17	3.74	3.93	4.14	3.52	3.48	3.34	2.48
	고용주/자영자/무급 가족 종사자	4.18	3.69	3.91	4.13	3.42	3.43	3.24	2.41
	실업자	4.25	3.78	3.98	4.21	3.49	3.47	3.41	2.50
	주부	4.35	3.82	4.07	4.29	3.45	3.55	3.37	2.42
	학생	4.12	3.70	3.85	4.12	3.54	3.40	3.31	2.28
	기타 비경활	4.19	3.78	3.94	4.16	3.60	3.46	3.50	2.35
고용보험	가입	4.08	3.72	3.95	4.15	3.47	3.44	3.26	2.35
	미가입	4.17	3.72	3.94	4.13	3.49	3.45	3.31	2.43
월 평균 근로소득	소득 없음	4.21	3.74	3.92	4.18	3.48	3.44	3.36	2.37
	150만 원 미만	4.17	3.73	3.92	4.14	3.55	3.46	3.31	2.42
	150~300만 원 미만	4.14	3.77	4.00	4.18	3.51	3.51	3.32	2.42
	300~450만 원 미만	4.07	3.70	3.95	4.12	3.46	3.41	3.26	2.34
	450만 원 이상	4.03	3.66	3.90	4.12	3.41	3.36	3.20	2.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전체적으로 취업 여부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여부는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비경제활동 중 주부의 사회적 불안이 높았는데 이는 아동양육과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성별로 불안의 수준이 다르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과 비교하여 불안이 높고 이 점은 남성과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은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에서 불안 수준이 높아 기회의 감소와 사회적 활동의 위축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불안이 악화한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표 3-16〉 성별·자녀 유무별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남성	자녀 없음	3.99	3.66	3.89	4.05	3.54	3.33	3.25	2.31
	자녀 있음	3.98	3.68	3.96	4.10	3.42	3.35	3.21	2.25
여성	자녀 없음	4.26	3.80	3.97	4.24	3.45	3.61	3.40	2.48
	자녀 있음	4.35	3.80	4.03	4.28	3.49	3.51	3.32	2.44
전체		4.14	3.73	3.95	4.16	3.49	3.45	3.30	2.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청·중년의 취업활동과 관련된 특징으로 자주 거론되는 현상 중 하나는 이직이다. 과거와 비교하여 청·중년의 이직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직은 이직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이다. 이직을 경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수준도 높고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수준도 높았다.

이직경험도 소득계층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직경험이 있어도 불안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수준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직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과 개인 불안이 낮았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 영역별로 보면 이직 경험 응답자의 안전과 적응/도태 불안은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졌어도 공정성과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불안은 그렇지 않았다. 이 영역에서는 연관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직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이 낮았다.

이직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도 높아지는데 2년을 넘기면서 오히

려 불안 수준이 낮아졌다. 사회적 불안의 영역별로 보면 2년까지 이직 준비기간이 늘면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불안이 높아졌고, 반면 2년 이상으로 준비기간이 늘어나면 다른 불안은 오히려 낮아져도 공정성 불안은 높아졌다.

〈표 3-17〉 이직 경험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이직 경험	있음	4.18	3.76	4.01	4.19	3.49	3.48	3.32	2.41
	없음	4.07	3.69	3.87	4.10	3.48	3.41	3.28	2.33
이직 경험 있음	~150만 원	4.16	3.78	3.99	4.17	3.56	3.50	3.38	2.51
	150~300만 원	4.22	3.78	4.05	4.21	3.50	3.49	3.33	2.42
	300~450만 원	4.12	3.72	3.93	4.17	3.41	3.44	3.28	2.34
	450만 원~	4.18	3.74	3.95	4.21	3.55	3.44	3.25	2.32
이직 경험 없음	~150만 원	4.13	3.76	3.98	4.15	3.48	3.47	3.45	2.43
	150~300만 원	4.09	3.69	3.88	4.11	3.50	3.41	3.29	2.31
	300~450만 원	4.02	3.66	3.85	4.07	3.51	3.39	3.20	2.34
	450만 원~	3.98	3.61	3.74	4.06	3.39	3.38	3.17	2.22
이직 준비 기간	바로 이직	4.11	3.72	3.97	4.22	3.44	3.41	3.15	2.25
	1년 미만	4.20	3.76	4.01	4.19	3.50	3.48	3.32	2.40
	2년 미만	4.24	3.81	4.00	4.19	3.54	3.55	3.48	2.53
	2년 이상	4.15	3.77	4.02	4.19	3.44	3.47	3.37	2.4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청·중년과의 인터뷰 및 관련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취업 여부뿐 아니라 취업한 일자리의 문화와 환경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권위적 조직문화나 조직 내 협업에서의 어려움 등이 취업 이후 일에 대한 만족을 저해하고 결국 불안을 가중하며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다. 개인 불

안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불안의 영역별로 보아도 전 영역에서 일자리 만족이 낮을수록 불안이 높았다.

〈표 3-18〉 일자리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부정	4.32	3.90	4.13	4.28	3.70	3.57	3.55	2.58
보통	4.05	3.71	3.94	4.11	3.45	3.45	3.31	2.44
긍정	4.02	3.61	3.84	4.09	3.35	3.36	3.06	2.1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일자리의 선택기준 분석에서도 취업 여부 외 일자리의 성격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자신의 적성이나 개인이나 직업의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불안 수준이 낮았고, 반면 공정성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선택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사회적 불안이 높은 집단이 공정성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공정성이나 사회적 평판보다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미래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사회적 불안이 낮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청·중년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문화를 또는 안전망을 조성,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볼 일이다.

〈표 3-19〉 일자리 선택 기준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근로소득, 근로시간	4.10	3.72	3.95	4.15	3.46	3.45	3.28	2.37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전공분야와 관련성	4.05	3.69	3.91	4.11	3.44	3.43	3.20	2.30
업무량	4.11	3.75	3.93	4.09	3.58	3.49	3.41	2.50
개인 또는 직업의 발전 가능성, 직장(고용) 안정성	4.09	3.67	3.92	4.14	3.41	3.34	3.18	2.28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4.11	3.76	4.00	4.18	3.50	3.47	3.31	2.40
출퇴근 거리	4.18	3.74	3.97	4.14	3.51	3.48	3.30	2.41
사회적 평판	4.00	3.78	3.96	4.17	3.67	3.52	3.32	2.44
채용/승진 등 직장 운영의 공정성	4.39	3.96	4.18	4.33	3.74	3.65	3.61	2.58
기타	4.27	3.60	3.84	4.08	3.32	3.25	3.18	2.36
전체	4.14	3.73	3.95	4.16	3.49	3.45	3.30	2.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응답자 개인의 경제적 여건뿐 아니라 가구의 경제적 여건도 응답자의 불안에 영향을 주었다. 가구 내 실업자가 있는 경우, 응답자의 불안이 높았다. 그리고 자가인 응답자와 비교하여 전세와 월세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 주거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인데 사회적 불안의 영역별로 보면 주거점유형태가 자가가 아닌 응답자의 경우 정부 신뢰, 적응도태, 안전에서 불안이 자가와 비교하여 조금 더 큰 차이로 높았다. 앞에서 지역별 사회적 불안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서울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사회적 불안이 높았고, 불안의 영역 중 정부 신뢰의 불안이 높았는데, 그 이유로 주거안정성이 지역별로 상이한 사회현상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청년의 주거 특성이 결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의 결과와 상당히 맥을

같이 한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회적 불안을 분석한 결과,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았다. 사회적 불안의 영역을 고려할 때 공정성과 적응/도태 불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의 차이를 보였다. 계층귀속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도 낮아져 객관적 소득계층뿐 아니라 주관적인 계층의식에 따라서도 역시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달리하였다. 특히 공정성과 적응/도태 불안에서 주관적 계층의식 수준별 차이가 컸다.

〈표 3-20〉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실업자	없음	4.09	3.71	3.93	4.13	3.47	3.43	3.26	2.34
	있음	4.23	3.78	3.99	4.21	3.52	3.49	3.39	2.45
주거 점유 형태	자가	4.13	3.72	3.93	4.14	3.47	3.43	3.29	2.34
	전세	4.16	3.74	3.97	4.17	3.49	3.46	3.30	2.40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4.08	3.74	4.00	4.17	3.45	3.45	3.28	2.39
	월세(사글세)	4.15	3.78	3.95	4.16	3.60	3.53	3.41	2.49
	기타(무상, 사택 등)	4.16	3.78	4.03	4.21	3.52	3.46	3.32	2.40
지난 3개월 평균 가구 소득	150만 원 미만	4.15	3.77	3.98	4.16	3.52	3.48	3.41	2.48
	150~300만 원 미만	4.17	3.75	3.98	4.17	3.50	3.46	3.31	2.38
	300~450만 원 미만	4.08	3.69	3.90	4.13	3.45	3.42	3.25	2.34
	450만 원 이상	4.09	3.68	3.85	4.14	3.47	3.41	3.21	2.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3-21〉 계층귀속의식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계층 의식	하	4.23	3.83	4.08	4.24	3.53	3.52	3.43	2.49
	중간	4.07	3.65	3.82	4.08	3.46	3.40	3.18	2.28
	상	3.88	3.50	3.68	3.93	3.35	3.23	3.02	2.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가치관과 사회적 불안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족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성역할 등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기성의 문화와 청년의 가치관의 괴리로 인하여 청년들은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은 매우 많은 연구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의 문화, 가치관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에 비하여 더욱 관심을 집중시킨다.

전통적인 관습에 대한 태도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보니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인식을 가진 청·중년일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불안도 더 높았다.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수용한 청·중년이 현실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순조롭게 구현되지 않는 경험을 하고 이로써 사회적 불안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수용적이지 않은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녀출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중년은 그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기존의 기성세대의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험을 적

지 않게 하게 될 것이고 기성세대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는 압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남녀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에서는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가 조금 복잡하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인지하는 응답자가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약하고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 수준은 높았다. 한편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는 인식을 하는 청·중년의 개인 불안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단문으로 측정하는 사회적 불안 인지의 안정성에 대하여 재고를 필요로 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청·중년의 불안 수준이 그렇지 않은 청·중년의 불안 수준에 비하여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전통적 가치관을 수용한 응답자의 불안 수준이 더 낮은 것과 경향이 상이하다. 가족주의 또는 전통적 가치관이 청·중년의 일상에서 기대불일치를 초래하고 이로써 사회적 불안을 높일 가능성과 배치된다. 하지만 이 결과는 사회적 불안이 더 강한 청·중년이 부모의 지원을 조금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결혼과 출산, 가사분담에서의 인식차이가 불안 수준 차이를 더 크게 하고 있어서 전통적인 가치관의 수용 여부와 실제 생활에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격차가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남녀의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은 인식에 따른 개인 불안의 수준 차이가 커서 더욱 민감한 가치관이라고 추정된다.

〈표 3-22〉 가족관련 가치관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부정	4.02	3.54	3.73	3.96	3.41	3.24	3.07	2.22
	긍정	4.16	3.78	4.00	4.20	3.51	3.50	3.36	2.41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부정	4.15	3.73	3.95	4.18	3.45	3.44	3.29	2.34
	긍정	4.06	3.76	3.95	4.05	3.67	3.52	3.40	2.53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부정	3.99	3.57	3.80	3.96	3.42	3.28	3.10	2.25
	긍정	4.17	3.77	3.98	4.20	3.50	3.49	3.35	2.40
부모라면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부정	4.13	3.70	3.93	4.16	3.42	3.42	3.25	2.31
	긍정	4.14	3.77	3.98	4.15	3.59	3.49	3.38	2.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부모[13]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가족주의 문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불안과 관련을 지닐 것으로 추정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그 자체로 청·중년의 자원으로 작용, 불안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재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사회적 불안이 대체로 높았다. 공정성, 경쟁/불평등 영역에서 이들의 불안 수준이 특히 높았다. 반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인 경우 차이는 작으나 부모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집단과 비교하여 정부 신뢰 불안이 높았다.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낮았다. 집단 간 불안 수준의 차이는 부모의 재산이 하층인 집단과 부모의 재산이 중간/상층인 집단 사이에서 컸는데 부모의 재산이 하층인 경우 불안이 높았다. 특히 공정성 불안에서 집단차이가 컸다.

13)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된 양육자인 경우 주된 양육자를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이다.

〈표 3-23〉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부모의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4.14	3.74	4.00	4.19	3.38	3.42	3.32	2.35
	중학교 졸업	4.16	3.76	4.05	4.21	3.44	3.40	3.32	2.33
	고등학교 졸업	4.17	3.75	3.97	4.17	3.49	3.47	3.32	2.41
	대학교 졸업	4.12	3.73	3.93	4.14	3.51	3.47	3.29	2.38
	대학원 이상	4.01	3.60	3.75	4.06	3.47	3.31	3.13	2.25
부모의 재산 수준	하	4.22	3.81	4.06	4.23	3.52	3.52	3.39	2.44
	중간	4.06	3.65	3.85	4.08	3.46	3.38	3.21	2.30
	상	4.01	3.64	3.80	4.07	3.45	3.41	3.20	2.3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3. 미래 전망과 사회적 불안

청·중년은 생애주기적 특성으로 볼 때 미래의 여러 측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가능성을 열어 둔 연령집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사회에 대한 전망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가능하다면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 무엇도 선택할 수 없거나 노력을 하여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안이 높아질 것이다. 요는 청·중년은 그 연령의 특성상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인지가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청·중년은 삶의 선택 자유가 높을수록 불안은 낮아질 것이다. 아래 표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삶의 선

택 자유 1)',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삶의 선택 자유 2)'는 삶의 선택 자유와 관련된 문항이다. 이 두 문항은 ILO에서 삶의 선택 자유를 질문하는 문항이기도 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이 질문을 번역하면서 모호한 번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두 가지 질문으로 번한하여 조사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사회가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는지를 묻는 다분히 제도적 안정성을 묻는 문항이다. 삶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불안 수준도 개인 불안도 높았다. 삶의 선택 자유를 묻는 두 개 문항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적 불안의 영역별로 보면 적응/도태 불안과 공정성 불안에서 불안 수준의 차이가 더 컸다. 삶의 자유가 적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암시한다.

미래에 대한 무망감('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으로 조사)은 청년 불안의 근본적인 특성과 연관된다. 미래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는 청년에게 불안을 감지하는 중요한 인식의 측면이다. 미래무망감이 클수록, 즉 미래 희망이 없어보일수록 사회적 불안과 개인 불안이 더 높다. 이 요인은 집단 간 불안 수준의 차이가 매우 컸는데 미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특히 적응/도태, 공정성, 정부 신뢰 불안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높았다. 청·중년이 미래 희망을 가지는가는 또는 가질 수 있는가는 불안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표 3-24〉 삶에 대한 전망과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삶의 선택 자유 1	부정	4.29	3.93	4.18	4.36	3.63	3.57	3.56	2.58
	보통	4.06	3.65	3.86	4.06	3.41	3.39	3.24	2.31
	긍정	4.07	3.62	3.81	4.05	3.43	3.40	3.11	2.22
	부정-긍정	0.277	0.265	0.348	0.203	0.244	0.172	0.366	0.304
삶의 선택 자유 2	부정	4.36	3.94	4.22	4.33	3.68	3.59	3.56	2.58
	보통	4.06	3.68	3.89	4.09	3.44	3.40	3.29	2.38
	긍정	4.09	3.67	3.87	4.12	3.44	3.42	3.20	2.28
	부정-긍정	0.468	0.725	0.661	0.406	0.929	0.656	1.230	0.726
미래 무망감	부정	3.92	3.39	3.65	3.98	3.04	3.15	2.70	2.02
	보통	4.09	3.68	3.89	4.10	3.45	3.40	3.27	2.35
	긍정	4.39	4.12	4.31	4.39	3.97	3.80	3.93	2.74
	부정-긍정	0.469	0.576	0.734	0.650	0.228	0.514	0.564	0.288
자아존중감	부정	4.32	3.96	4.18	4.32	3.66	3.69	3.67	2.73
	보통	4.15	3.78	3.98	4.17	3.51	3.51	3.45	2.50
	긍정	4.06	3.62	3.85	4.09	3.41	3.33	3.09	2.17
	부정-긍정	0.116	0.123	0.138	0.138	0.102	0.095	0.128	0.130
회복 탄력성	부정	4.27	3.96	4.17	4.27	3.72	3.67	3.73	2.84
	보통	4.20	3.84	4.04	4.18	3.56	3.59	3.54	2.60
	긍정	4.10	3.68	3.90	4.13	3.44	3.39	3.19	2.26
	부정-긍정	0.169	0.284	0.272	0.134	0.285	0.281	0.533	0.58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4. 코로나19와 사회적 불안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에 진행되었다. 이 감염병은 당연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사회적 불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현재의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일

뿐만 아니라 여타 요인의 영향에서 코로나19라는 사건의 영향을 통제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코로나19로 건강, 학업, 돌봄 부담, 정서적 영향을 받는 집단을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수준이 높고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도 높았으며 개인 불안도 높았다. 사회적 고립/정서적 문제의 경험 여부가 사회적 불안의 차이를 가장 크게 넓혔는데 이 점은 이번 코로나19의 영향 중 정서적 문제에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의 근거가 된다. 사회적 고립 외 영향을 받은 집단은 주로 안전과 적응/도태 불안이 높았고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집단은 적응/도태와 함께 경쟁/불평등 불안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25〉 코로나19와 사회적 불안

(단위: 점)

구분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개인 불안
			전체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건강악화/치료 중단	없음	4.11	3.71	3.93	4.14	3.47	3.41	3.26	2.30
	있음	4.32	3.92	4.11	4.24	3.62	3.72	3.62	2.90
학습환경 악화/학업 중단	없음	4.07	3.68	3.91	4.10	3.44	3.39	3.25	2.30
	있음	4.29	3.84	4.03	4.28	3.59	3.58	3.43	2.53
고용 불안/소득 감소	없음	4.00	3.62	3.85	4.07	3.37	3.33	3.14	2.20
	있음	4.23	3.81	4.02	4.21	3.56	3.53	3.41	2.49
가족 돌봄 부담 가중	없음	4.07	3.68	3.89	4.10	3.46	3.41	3.25	2.30
	있음	4.26	3.83	4.06	4.26	3.54	3.53	3.41	2.52
사회적 고립/정서적 문제	없음	4.00	3.60	3.83	4.04	3.38	3.33	3.13	2.18
	있음	4.31	3.89	4.10	4.30	3.62	3.60	3.52	2.6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4장

사회적 불안의 설명요인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제2절 사회적 불안의 중심 요소
제3절 사회적 불안의 외재적 설명요인
제4절 소결

제 4 장 사회적 불안의 설명요인

제1절 분석 목적과 방법

1. 분석 목적: 사회적 기제의 규명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의 압축적 근대화, 산업화와는 결을 달리하는 사회변화를 경험하였다. 완전고용과 제도적인 사회보장 같은 산업사회의 기반이 약화되고 기업과 노동 환경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외환위기로 촉발된 변화는 사회구조적, 거시적 변화뿐 아니라 교육, 가족, 여가 등의 일상생활과 생활양식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한준 외, 2017). 교육-취업-결혼-은퇴라는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생애과정은 해체되고 허약한 사회복지 기반으로 인해 증폭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사회적 위험은 고스란히 개인의 책임으로 떠안겨졌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근대화의 신념은 불안하고 유동적인 노동에서 비롯된 삶의 조건과 마주하면서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감과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절망감으로 대체되었다.

1990~2000년대 본격화된 불안정성, 불확실성의 시기(남춘호, 남궁명희, 2012) 이후 성인기를 맞이하게 되는 197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기회구조의 변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 그리고 청년 자신의 자기인식과 자기기대의 변화를 가져왔다(전상진, 2017. p. 133). 청년들에게 주어진 구조가 불안정하고 청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가족의 지원도 사회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은 자기계발과 자기관리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들에 대응해야 했다. 그리하여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는 기조 감정과 서바이벌을 향한 과열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를 위해 자신 존재의 가능성들을 전략적으로 계발하려는 집요한 계산으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마음"(김홍중, 2015, p. 186) 상태를 공유한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의 삶을 살아온, 또는 살고 있는 이들에게 확산되는 불안은 그래서 개인적, 심리적인 불안으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기원을 갖는다. '사회 체계 불안정'과 '개인 체계 불안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구성원 다수가 경험하는 불안(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49)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불안은 때문에 '사회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현상이다.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은 생물학적인 뇌기전의 작동에서부터 개인의 기질, 또는 성격,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경험들, 환경에 대한 인식과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사회제도나 체계의 탄력성 등 다양하다. 이 장의 목적은 한국의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을 찾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불안의 핵심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과 중년 사이에 그 요인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한국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불안과 연관된 요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불안 발생의 기제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2.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분석을

시도한다. 네트워크 접근은 다양한 상태로 표출되는 관찰이 가능한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또한 관찰된 현상을 발생시키는 잠재적 요인의 변화가 현상의 변화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 내 요소들 간의 관계구조의 변화가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한다(Borsboom & Cramer, 2013; Schmittmann et al., 2013). 사회적 불안은 여러 차원의 인식과 믿음,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때 네트워크 접근은 이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도 수행할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은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할 때 '다른 요인들이 같다고 할 때, 특정 변수 X의 변화에 따라 Y가 변화할 확률은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때문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개별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와 그 효과를 모델링하고 추정하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네트워크 접근은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추정하고 시각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요소가 가장 중심적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변수 간 연결관계를 파악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변수들과 그 상호작용의 구조와 패턴을 알아볼 수 있다(Epskamp & Fried, 2018). 아울러 척도 변수들의 네트워크에 공변인을 추가하여 전체 구성변수와 공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Armour, Fried, Deserno, Tsai, & Pietrzak, 2017). 여기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네트워크 접근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14].

14)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pskamp & Fried(2018)를 참조하기를 바

가. 네트워크 접근 방법

1) 네트워크 접근 방법의 개요

네트워크 접근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 또는 관찰변수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변화가 서로 연결된 다른 요소의 변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호의존 구조를 보여준다. 개별 변수들은 네트워크 내의 역할과 기능을 통해 이해된다. 그동안 네트워크 접근은 주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연구할 때 많이 적용해왔다. 이 경우 네트워크 내 노드 간의 연결은 대체로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관계를 표시한다.

최근 정신병리학이나 성격심리학, 임상심리학, 정치심리학 분야에서 네트워크 분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Armour, Fried, Deserno, Tsai, & Pietrzak, 2017; Boutyline & Vaisey, 2017; Costantini et al., 2015; Cramer et al., 2012; Fried, Epskamp, Nesse, Tuerlinckx, & Borsboom, 2016 등). 이들은 개념이나 증상, 태도나 성격 같은 분야의 연구에 네트워크 접근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접근방식은 실제 경험적으로 관찰되지 않은 두 노드 간의 연결 상태를 추정하여 네크워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도 추정에 의한 네트워크 분석이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점(노드)과 선(엣지)으로 이루어진다. 점은 연구 대상이나 변수를, 선은 이들 간의 관계(예를 들어 변수 간 관계 유무,

---

란다.

관계의 강도, 관계의 방향성 등)를 나타낸다. 점 간의 관계는 방향성을 가정할 수도 있고(베이지언 네트워크) 방향성을 가정하지 않을 수도(마르코프 랜덤 필드) 있다. 불안 같은 심리적 구성물의 경우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를 가정한다. 이 장에서도 사회적 불안을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변수가 연속형이어서 가우시안 그래피컬 모델(Gaussian graphical model), 또는 편상관관계 모델(partial correlation model)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변수들은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는 네트워크 내 다른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즉 편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선의 가중치는 편상관계수의 값으로 추정한다.

네트워크 접근은 네트워크 내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할 때 사용하는 변수의 수가 증가하면 추정해야 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고 한다면 (20*(20-1))/2, 즉 190개의 파라미터의 추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최소제곱회귀계수 추정량의 분산이 커짐으로 인해서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변수 간 관계에 대한 해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를 이용하여 조절한다. LASSO 조절은 영향력이 매우 적은 계수값을 0으로 조절하여 중요한 변수의 선택과 해석력을 높여준다. 최적의 네트워크 선택은 EBIC(Extend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Chen & Chen, 2008).

네트워크 내에서 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해당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상호의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반면 두 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들 간의 조건부 독립(conditional independence)관계를 나타낸다. 선의 굵기는 연결의 강도를 나타내며, 대체로 붉은색 선은 그 관계가 부적임을, 푸른색 선은 정적임을 나타낸다.

2) 노드 중심성

최적의 네트워크가 선택되면 이를 바탕으로 노드 중심성(node centrality)을 확인할 수 있다. 노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노드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다. 노드 중심성은 강도(strength), 근접성(closeness), 매개성(betweenness), 기대효과(expected influence) 등의 값을 구하여 파악한다. 노드 강도는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고, 근접성은 다른 노드까지 도달하는 길이가 짧을수록 중심적이라는 가정하에 특정 노드와 다른 노드와의 최단거리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매개성은 다른 노드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를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노드 간 관계의 방향, 즉 상호관계가 부적 관계인지 정적 관계인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노드의 강도를 계산한 것이다. 노드 중심성이 크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 노드의 영향력이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드 중심성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노드들과의 관계가 독립적이고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추정값의 정확성과 안정성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노드 간 연결강도가 정확하게 추

정되었는지(edge-weight accuracy), 노드 중심성이 하위 표본을 추출하여 산출했을 때에도 안정적인지(centrality stability), 노드 간의 연결이 다른 노드 간의 연결값과 노드 중심성 면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testing for significant differences) 등을 테스트하여 확인한다. 연결강도의 정확성은 부스트랩(boostrap)을 수행하여 추정된 엣지값에 대한 신뢰구간을 구한 값으로 확인하고, 노드 중심성의 안정성은 해당 자료의 사례수를 차례로 줄여나가도 노드 중심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중심도 안정성계수(Centrality Stability-coefficient)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값이 0.25 이상이면 노드 중심성의 순서가 안정적이라고, 0.5 이상이면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4) 네트워크 차이 검증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비교하는 경우에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차이 검증을 수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본을 재배열(permutation)하고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내 연결값의 강도(global strength), 특정 연결값 간의 차이(edge difference), 네트워크 구조(network structure)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한다.

분석에 활용한 프로그램은 R 기반의 qgraph(Epskamp, Cramer, Waldorp, Schmittmann, & Borsboom, 2012) version 1.6.5, 추정치의 정확도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은 bootnet(Epskamp, Borsboom, & Fried, 2018) version 1.4.3, 그리고 네트워크 차이 비교 검증에는 NCT(NetworkComparisonTest, van Borkulo, Epskamp, & Miller, 2016) version 2.2.1이다.

나. 변수 구성

1) 사회적 불안

이 연구를 위해 수행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는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단일 변수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과 함께 24개의 사회적 불안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사회적 불안을 척도 문항들의 결합으로 파악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적 불안은 다면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최인철, 김범준, 2005;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이 연구에 활용된 사회적 불안 척도 문항도 이러한 다면적인 성격을 담고자 하였으므로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불안 척도의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를 각각 공정성 불안, 경제 불평등 불안, 적응/도태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등으로 개념화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유형 이외에 사회적 불안 척도 24개 변수들을 종합하여 평균을 구한 지수 점수도 함께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와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개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3장 〈표 3-5〉와 〈표 3-9〉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사회적 불안의 외재적 요인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또 대체로 사회적 불안이 높은 영역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서(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p. 11) 어떤 변수가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인철과 김범준(2005)은 사회 불안을 통제감 상실, 공정성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후 세대별, 성별, 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발견은 소득 수준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세대별, 성별로는 차이가 났으며, 특히 공정성 불신에 대한 세대 차이, 사건, 사고에 대한 취약성 면에서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또한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 사회 불안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분석한 결과, 신뢰가 사회 불안 총점뿐 아니라 개인의 취약성, 공정성불신, 통제감 상실 등의 하위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홍영호와 그의 동료들은(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은 성, 연령, 결혼상태, 계층의식, 교육수준, 거주지역, 거주유형, 월평균 가구소득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과 한국사회의 문제와 특성에 대한 지각, 그리고 한국사회의 예측 불가능성, 이동 불가능성, 불공정성, 통제 불가능성, 불확실성, 불신성 등에 대한 평가를 사회적 불안의 설명요인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성, 연령, 계층의식에 따른 차이와 한국사회에 대한 평가에 따라 사회적 불안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2019)은 사회적 불안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불안 경험이 빈곤, 취업, 사회적 지위, 가족 및 사회환경 요인, 그리고 개인적 가치 추구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불안은 비록 그 관계가 일관되지는 않지만(박수애, 홍영오, 송관재, 2003;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p.133에서 재인용) 직접적인 사건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이나 사회적 박탈, 차별피해와 같은 원하지 않은 상황이나 사건의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결과를 초래한다(예: 탁진국, 2010; 전지혜, 2010; 류한수, 2016; 김주희, 유정원,

송인한, 2015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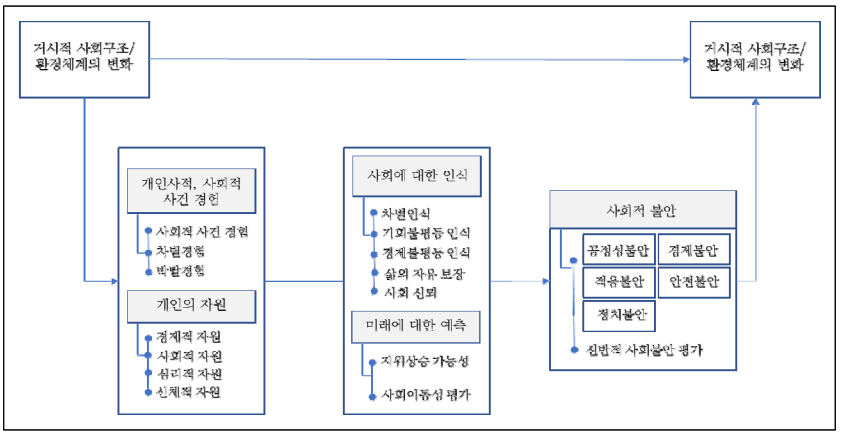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경험을 한다고 해서 모두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효과는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통해 조절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나 신뢰와 사회적 지원망과 같은 사회적 자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개인사적, 사회적 사건의 경험이 불안을 야기하는 효과를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상영 외, 2015. pp. 20-21).

사회심리적으로 불안은 사건, 또는 특정 상황의 발생확률, 시기, 장소, 영향력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성,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 적절히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불확실성,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주어진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없음으로 인한 통제 불가능성이 기저에 깔려 있다(Grupe & Nitschke, 2013, pp. 489-490). 이러한 정신적 작용은 경험하지 않은 것들, 미래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다. 뇌는 저장된 정보와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를 조합하여 정신적 표상을 만들어낸다." 과거 사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은 기억이고, 현재에 대한 표상은 인식이며, 미래에 대한 표상은 시뮬레이션이다(Gilbert & Wilson, 2007, p. 1352). 정신적 시뮬레이션(mental simulation)은 불확실성과 감정적 반응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발견을 토대로 이 장에서는 사회적 불안을 개인 체계 내에서의 경험, 환경 체계 내에서의 변화에 대한 관찰, 현 사회구조와 현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요인을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선별하였다.

선택한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에 사용한 변수명은 〈표 4-1〉과 같다.

[그림 4-1] 사회적 불안 설명 변수 구성 틀



〈표 4-1〉 변수 설명

a. 사회적 불안 척도 변수

변수명	설문 문항	요인
N7	문2. (7)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공정성 불안
N9	문2. (9)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N10	문2. (10)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N11	문2. (11)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N12	문2. (12)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N20	문2. (20)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N1	문2.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경쟁/ 불평등 불안
N3	문2.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N5	문2. (5)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질 것이다.	
N6	문2. (6)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N19	문2. (19)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N21	문2. (21)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N2	문2.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적응/ 도태 불안
N8	문2. (8)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N18	문2. (18)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N25	문2. (25)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생각	
N13	문2. (13)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안전 불안
N14	문2. (14)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N15	문2. (15)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N16	문2. (16)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N17	문2. (17)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N22	문2. (22)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정부 불신
N23	문2. (23)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N24	문2. (24)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b. 설명 변수

변수명	설문 문항	개념 구분	변수 설명
UNRST	문1.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불안	전반적인 사회 불안
SUNR	24개 사회적 불안 척도 종합 평균 점수		사회 불안지수
just	공정성 불안 요인 6개 변수 평균		공정성 불안
inequl	경쟁, 불평등 요인 6개 변수 평균		경쟁/불평등 불안
bhind	적응/도태 불안 요인 4개 변수 평균		적응/도태 불안
safe	안전 불안 요인 5개 변수 평균		안전 불안
gov	정치 불안 요인 3개 변수 평균		정부 불신
DISC	문12. 8개 종류의 차별 경험 건수	생애 사건 경험	차별 경험
DPRV	문11. 8개 종류의 박탈 경험 건수		박탈 경험
SEVNT	문13.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문제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DICM	문7. 성별, 연령, 장애, 외모, 학력으로 인한 사회의 차별 인식 평균	사회 인식	차별 인식
OPGAP	문7. 교육기회, 취업기회, 승진기회의 불평등 인식 평균		기회 불평등 인식
ECGAP	문7. 소득 불평등,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평균		경제 불평등 인식
MOVUP	문5.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		지위상승 가능성
FUTUR	문6.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		미래사회 이동성 평가
CHOIC	문2. (4)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삶의 선택 가능성
TRUST	문3.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신뢰
SUP	문19.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있음	관계 자원	사회적 지원망
CLASS	문30.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계층 소속 지위	경제적 자원	계층 지위
NOWRK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음		취업상태
HOUS	문31.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 : 자가=1, 기타=0		자가 소유 유무
ANX	문17. (1)~(20) 심리적 불안 척도 평균점수	심리적 자원	심리적 불안
EFF	문2. (2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와 문2. (27)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균		자기효능감
HLTH	문43. 주관적 건강상태: ① 매우 좋다 ~ ⑤ 매우 나쁘다	신체적 자원	주관적 건강 인식
LIFSAT	문25.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삶의 만족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분석 전략

사회적 불안은 복합적인 차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불안 척도 내의 요소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효과와 개인과 집단 간의 사회적 불안의 차이를 유발하는 외재적 요인에 의한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의 내재적 효과는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의 구조와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알아본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에 대해 어떤 변수가 직간접적으로 어떤 변수에 관계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청년과 중년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불안 척도 종합 점수로 산출한 사회 불안 지수와 사회적 불안의 하위 유형 변수, 그리고 단일 척도로서의 사회적 불안 문항을 대상으로 위에서 선별한 설명요인들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특정 유형의 불안을 설명하는 요인들 간에 일관된 패턴이 존재하는지, 어떤 요인이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 불안 척도 문항들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안의 하위유형 변수와 설명 변수들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각각의 유형들에 어떤 변수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러한 관계가 청년과 중년에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제2절 사회적 불안의 중심 요소

1. 사회적 불안의 네트워크 구조와 노드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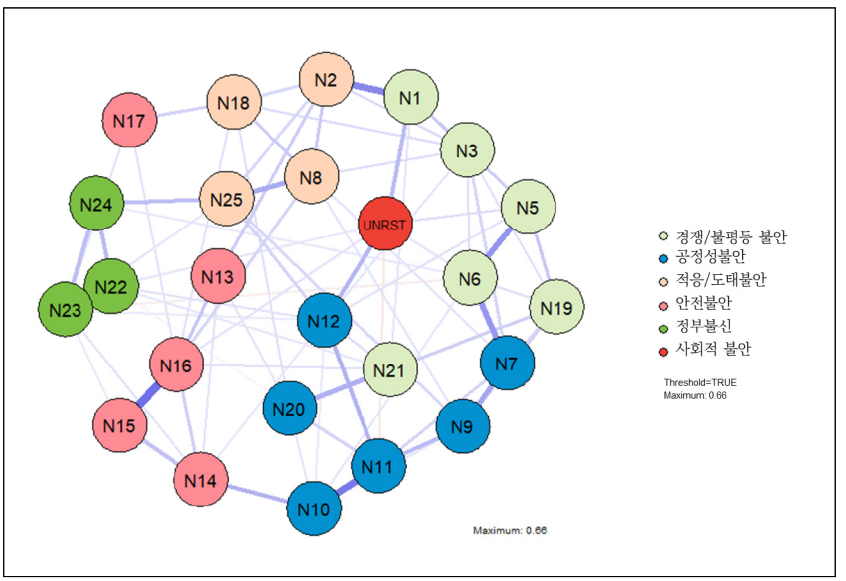
[그림 4-2]는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24개의 변수들과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평가 변수를 이용하여 변수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추정한 것이다.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Jones, Mair, & McNally, 2018) 여기서는 프루터만레인골드(Fruchterman-Rein gol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프루터만레인골드 알고리즘은 변수 간의 연결 여부와 강도를 기반으로 점들이 겹치지 않도록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대신 네트워크 내에서 변수의 상대적 위치, 예를 들어 변수가 중앙부에 있는가 주변부에 있는가, 어느 변수와 가깝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없다. 이 점을 유의하여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불안 변수들 간에 상대적으로 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변수들이 발견되는데, 정부 불신(N22)과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불신(N23), 안전사고 위험(N15)과 범죄 두려움(N16), 법 집행의 불공정함(N10)과 원칙보다는 편법이 잘 통한다는 인식(N11)이 그것이다. 이렇게 강한 연결을 가진 변수들은 약한 연결을 가진 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도 커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반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변수들, 예를 들어 N9(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믿음)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불확실하다고 보

는 인식(N12)과는 상관이 없다.

[그림 4-2]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 청·중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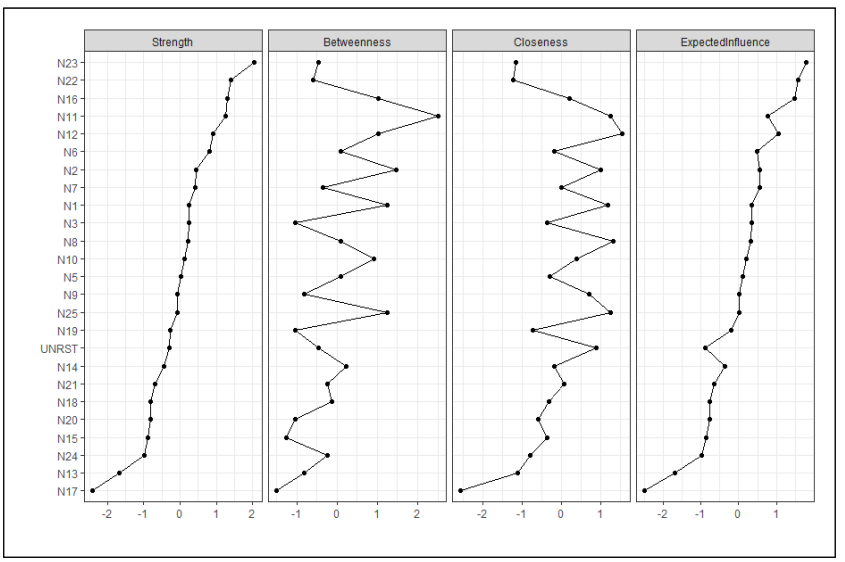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 인식 변수(UNRST)와 연결되어 있는 변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은 모두 7개의 변수(N1, N5, N6, N11, N12, N16, N22)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고받는 변수는 한국 사회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N12)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다(N1)는 생각, 그리고 현재 취업불황이 지속될 것 같다는 우려(N5) 등이다. 뒤처짐에 대한 불안(N1)은 정보로부터의 소외(N2)와 경쟁으로 인한 여유 없음(N3)과 같이 경쟁 불안의 요소들을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UNRST)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인식(N12)은 공정성 불안의 다른 요소들(N10, N11)과 사회적 불안 인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경쟁과 관련된 불안 요소들은 뒤쳐짐에 대한 불안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경로와 법 집행의 불공정(N10)이나 편법이 통하는 사회(N11)라는 인식과 같은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경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요소들 간의 네트워크 추정을 통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불안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림 4-3]은 노드 중심성의 값들을 노드 강도값을 기준으로 정렬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한국의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N23)과 정부 불신(N22)임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 두려움(N16), 편법이 통하는 사회(N11), 그리고 사회의 불확실한 미래(N12) 등의 요소 또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이러한 불안의 요소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사회적 불안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전쟁에 대한 불안(N17)이나 사기피해의 두려움(N13), 정치 불신(N24) 등은 노드 중심성이 낮아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림 4-3]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 노드 중심성: 청·중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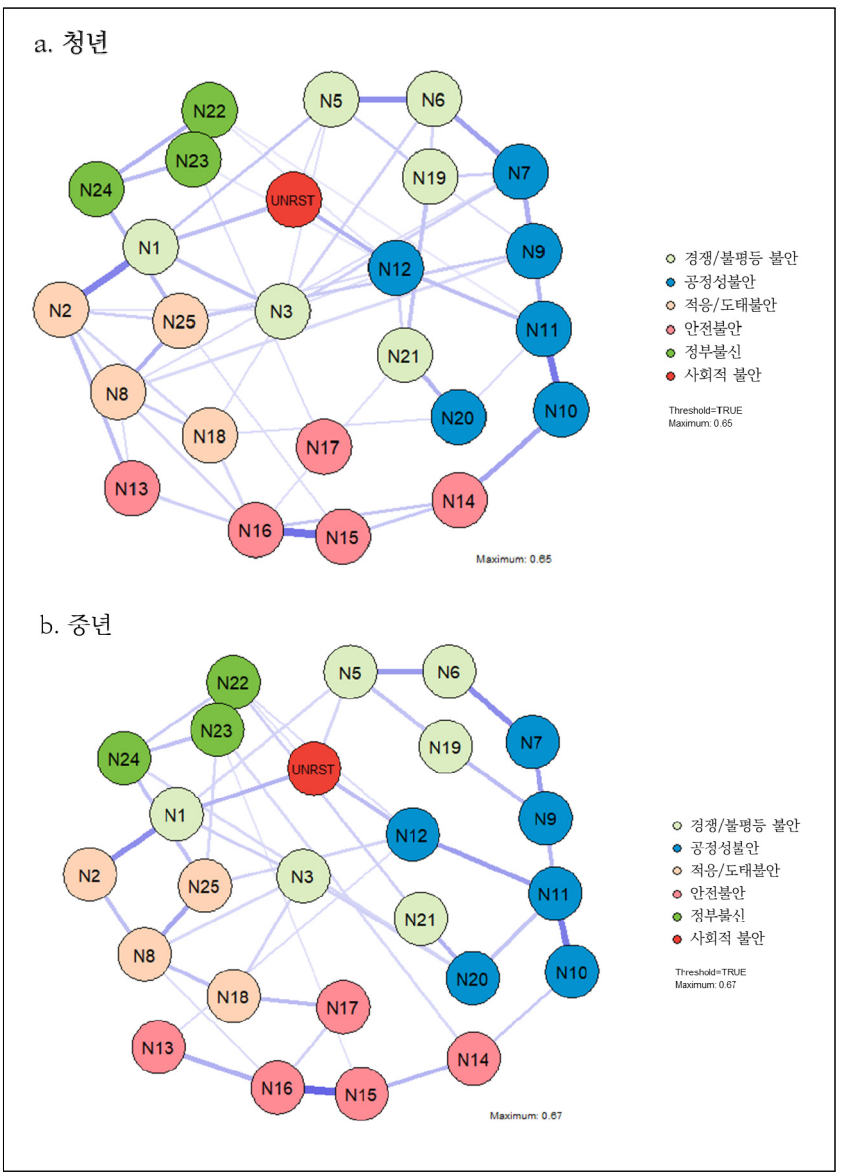


주: 노드 강도에 대한 중심성 안전성 지수(centrality stability coefficient)=0.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청년과 중년의 사회적 불안

다음은 이러한 결과가 청년과 중년의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4-4]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 청년과 중년의 네트워크상의 변수들의 배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설정한 후 네트워크를 그려본 것이다. 두 네트워크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청년과 중년의 네트워크 간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전반적인 연결 강도의 차이(difference in global strength) 검증 결과 p=0.358; 연결값들 간의 차이(maximum of difference) 검증 결과 p=0.3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중년의 네트워크에서 몇 가지 차이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림 4-4] 청년과 중년의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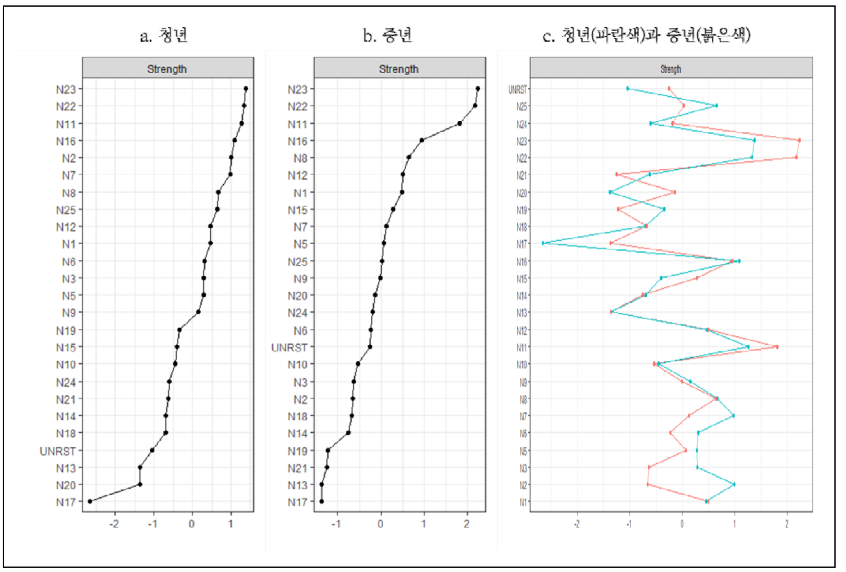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먼저 눈에 띄는 차이는 공정성 불안 요소들과 적응 불안, 그리고 공정성 불안과 경쟁/불평등 불안 요소들이 청년 네트워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호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서 중년 네트워크에서는 그 연결이 적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에게 공정성 불안과 적응 불안, 공정성과 경제 불평등/경쟁 불안은 서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중년층에게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이 적응 불안이나 경쟁 불안과 함께 증가하는 현상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임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 변수(UNRST)과 연결되어 있는 요소에서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청년층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 인식(UNRST)은 뒤처짐에 대한 불안(N1), 취업불황(N5), 사회의 불확실한 미래(N12)와 연결되어 있는데, 중년층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불신(N22)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두 네트워크의 노드 강도를 비교해 보면([그림 4-5] 참조) 청년과 중년 모두 정부에 대한 불신(N22, N23)과 편법이 통하는 사회(N11)가 중심 노드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은 정보로부터의 소외(N7)가, 중년층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N12)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노드로 나타났다.

노드 중심성 면에서 더 주목할 만한 차이는 청년층의 경우 적응/도태 불안과 관련된 요소(N2, N8, N25)들이 중심성이 높은 요소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소외에 대한 불안(N2)은 중년층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층에게 적응의 불안은 정보로부터의 배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청년과 중년 사회적 불안 네트워크 노드 강도 비교



주: 노드 강도에 대한 중심성 안전성 지수(centrality stability coefficient): 청년층=0.44; 중년층=0.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3절 사회적 불안의 외재적 설명요인

1. 회귀분석 결과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사회적 불안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요인들이 사회적 불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을 묻는 단일 변수와 사회적 불

안 척도를 종합한 변수, 그리고 사회적 불안 척도로 구성한 하위 불안 유형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2〉에 정리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은 중년과 비교하여 단일 문항으로 묻는 사회적 불안 인지에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 사회적 불안 종합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하위 차원의 불안 중에서 공정성 불안과 안전 불안, 정부 불신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의 방향도 일관되지 않았다. 청년의 공정성 불안은 중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안전에 대한 불안과 정부 불신은 높았다.

여성은 여러 성격의 사회적 불안에 유미의한 관계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 인식과 안전 불안, 그리고 경쟁/불평등에 대한 불안은 남성과 비교하여 높았지만 공정성 불안이나 적응 불안, 정부 불신은 낮았다. 경제적 자원과 관련하여 자가 소유 여부는 사회적 불안의 모든 유형에서 유의미한 설명요인이 아니었으며, 가구소득은 경쟁/불평등 불안에만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즉 상층의 의식을 가질수록 전반적인 사회 불안이 낮았다. 비정규직의 경우 예상과 달리 사회 불안이 정규직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추후에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차별 경험과 박탈 경험, 그리고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의 경험 등은 몇 가지 불안 유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 반면 사회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인식은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사회적 불안에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즉 우리 사회의 차별과 기회 공정성, 경제 불평등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의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전반적인 불안 인식과 사회적 불안 척도를 포함하여 모든 유

〈표 4-2〉 사회적 불안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지수		불평등 불안		공정성 불안		적응/도태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B	Sig.	B	Sig.	B	Sig.	B	Sig.	B	Sig.	B	Sig.	B	Sig.
여성	.194	***			.056	**	-.062	**	-.067	**	.082	***	-.136	***
청년	-.060	*					-.082	***			.046	*	.061	*
자가 소유														
가구소득					.034	*								
비정규직(정규직 기준)			-.052	**	-.042	*	-.072	**			-.057	*		
비취업(정규직 기준)	.079	*							.061	*				
계층의식	-.042	*												
대도시 거주	.062	*	.032	*	.037	*			.045	*				
차별 경험			.007	*					.020	***	.012	*		
박탈 경험			.008	*	.011	*	.012	*						
사회적 사건 경험					.046	*							-.071	*
차별인식	.139	***	.135	***	.123	***	.131	***	.115	***	.199	***	.084	**
기회 불평등 인식			.076	***			.101	***	.130	***	.083	***	.074	**
경제 불평등 인식	.094	***	.140	***	.275	***	.238	***			.042	*		
사회신뢰	-.236	***	-.194	***	-.109	***	-.194	***	-.116	***	-.182	***	-.491	***
지위상승 가능성			-.029	**			-.067	***					-.048	*
미래 사회 이동성			-.029	**	-.035	**	-.035	**					-.059	**

	사회 불안 인지		사회 불안 지수		불평등 불안		공정성 불안		적응/도태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 불안	
	B	Sig.	B	Sig.	B	Sig.	B	Sig.	B	Sig.	B	Sig.	B	Sig.
사회적 지원망									-.116	***				
자기효능감	.055	**	.019	*			.024	*	-.058	***	.061	***	.067	***
삶의 자유					.022	*								
심리적 불안	.135	***	.239	***	.053	**	.121	***	.534	***	.347	***	.272	***
주관적 건강상태											-.037	**		
삶의 만족도	-.088	***	-.029	**	-.063	***	-.041	**	-.034	*				
F	34.348		142.108		86.639		110.072		94.628		66.701		53.372	
sig.	***		***		***		***		***		***		***	
adjusted R^2	.198		.510		.387		.446		.409		.327		.279	

주: * p<.05; ** p< .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형의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기회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여러 불안 유형 중 경쟁불안을 제외한 공정성 불안과 적응 불안, 안전 불안, 정부 불신을 높이는 것으로, 경제 불평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적응 불안과 정부 불신을 제외하고 공정성 불안, 경쟁불안, 안전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신뢰는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 인식을 비롯하여 모든 유형의 불안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노력에 따라 지위상승이 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사회이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안을 낮게 인식하였다.

사회적 지원망은 사회적 불안과 관련해서는 적응 불안을 낮추는 것 이외에 의미 있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안전 불안을 낮추는 것 이외에 다른 불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삶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불안과의 관계는 특정 유형의 불안에 대해 기대한 방향과는 다르게 나왔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적응 불안은 낮았지만 안전 불안이나 정치 불안, 공정성 불안,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불안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높았다. 또 삶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할수록 경쟁불안 수준은 높았다. 이러한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는 추가적인 검증과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심리적 불안은 사회적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심리적 불안이 높으면 모든 유형의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적응 불안과 안전 불안에 대한 효과는 다른 설명 변인과 비교하여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된 변수들은 전반적 사회 불안 인식의 변량 약 20%를 설명했으며, 사회적 불안 척도 변수의 절반(R^2=.51)을 설명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하위 차원의 불안에 대해서도 불안 유형에 따라 약 28~45% 정도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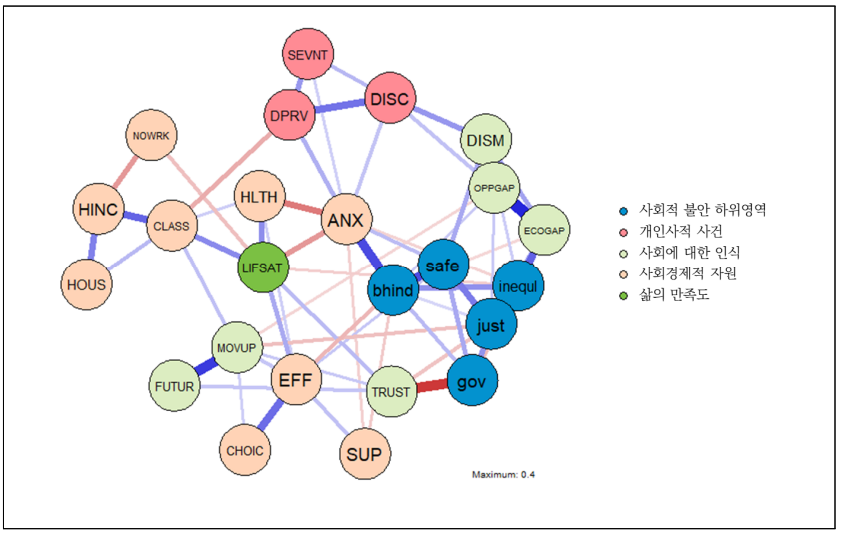
2. 관련 요인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요인

앞에서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는 여러 설명요인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른 설명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설명변수와 사회적 변수 간의 일대일 관계를 검증하고 있어 실제 설명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을 알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명요인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망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절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하위유형과 여러 외재적 변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그림 4-6]은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차별 경험을 비롯한 개인사적, 사회적 경험(DISC, DPRV, SEVNT 등)은 심리적 불안(ANX)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사회적 불안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대신 차별인식(DISM), 기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OPPGAP)과의 연결을 통해 사회적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앞선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이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인 과거의 개인사적 경험이 사회적 불안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주관적인 인식과 심리적 불안을 경유해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림 4-6] 사회적 불안 하위 유형과 외재적 요인 간 네트워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또한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을 연결하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개인의 경제사회적 자원과 사건들은 심리적 불안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 반해 사회에 대한 인식들은 사회적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불안은 심리적 불안과는 다른 기원을 갖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개별적인 노드들 간의 연결패턴을 보면, 사회신뢰(trust)는 정부 불신 불안(gov)과, 심리적 불안(anx)은 적응 불안(bhind)과, 차별의식(dism)은 안전 불안(safe)과, 그리고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ecogap)은 경쟁/불평등 불안(ineql)과 강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ecogap)은 또한 공정성 불안(just)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강도가 기회 불평등(oppgap)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는 공정성 불안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에서 경제 불평등 인

식의 효과가 기회 불평등 인식보다 두 배 이상 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사회의 공정성 불안은 기회 불평등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내에서의 간접적인 연결경로를 확인해보면 기회 불평등은 지위상승 가능성(movup)을 경유해서 공정성 불안(just)에 영향을 줌으로써 추가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는 지위상승 가능성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회귀분석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회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이것이 공정성 불안에 대한 기회 불평등 인식의 직접적인 경로와 함께 공정성 불안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원망(sup)은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적응불안(bhind)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도 자기효능감(eff)를 높여 이를 통해 적응불안을 낮추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세대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평가(futur)는 사회적 불안의 하위유형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위상승 가능성(movup)과 사회신뢰(trust)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공정성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년과 중년의 사회적 불안 요인

다음은 이상에서 살펴본 변수들 간의 관계 패턴이 청년과 중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림 4-7] 참조). 우선 청년과 중년의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두 집단의 네트워크 행렬, 즉 각 요소 간의 연결값들의 행렬 간의 상관계수는 0.81(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로 그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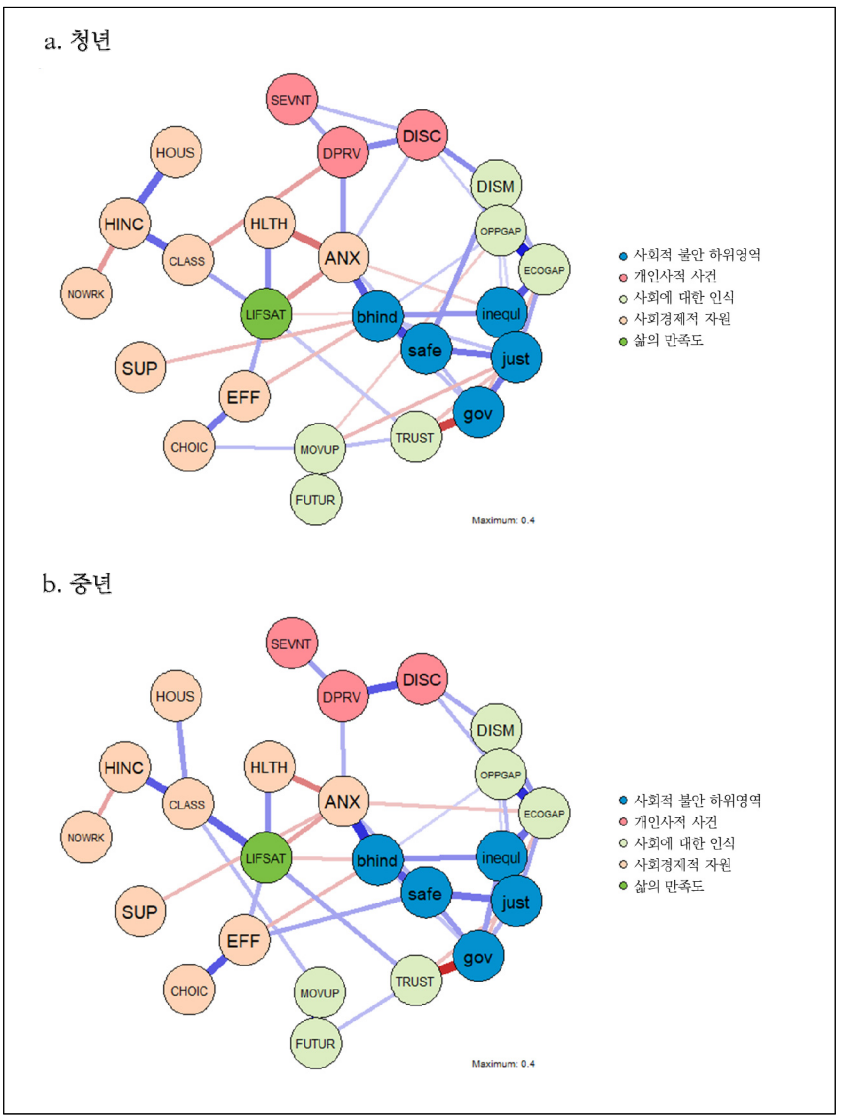
성이 매우 높다. 네트워크 차이 검증을 한 결과도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연결 강도 면에서의 차이는 없다(difference in global strength test, p=0.869). 반면 몇 개의 연결값 간의 차이는 유의미했는데(edge difference test, p=0.00), 중년의 경우 박탈 경험(dprv)과 계층의식(class) 간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청년의 경우 박탈 경험은 계층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청년층에서는 박탈 경험이 낮은 계층의식으로 연결되지만, 중년에서는 그런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중년에게서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높은 심리적 불안과 연결되어 있지만 청년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지위상승 가능성(movup) 변수 또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중년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변수이다. 청년층에게 지위상승 가능성은 공정성 불안과 직접적으로, 정부 불신과는 사회신뢰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중년층에게서 지위상승 가능성은 계층의식에만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 불안 변수들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는 앞에서 전체 청·중년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에서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의 하나인데 이러한 특징은 청년층에 국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심리적 불안(anx)은 두 집단 모두 안전 불안(safe)과 적응 불안(bhind)과 강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보이며, 차별에 대한 인식은 청년층에게만 안전 불안(safe)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울러 적응 불안(bhind)과 사회적 지원망(sup)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청년층에서만 발견되고 중년층에서는 사회적 지원망의 효과는 심리적 불안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효과일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eff)은 청·중년층 모두에 대해 적응/도태 불안(bhind)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중년층의 경우 자기효능감은 안전 불안(safe)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선 회귀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불안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세대별 사회적 불안 하위 유형과 외재적 요인 간 네트워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4절 소결

지금까지 이 장에서는 한국 청·중년층의 사회적 불안의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한국 청·중년층의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이었다. 이는 청년층과 중년층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나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원칙이 통하지 않는 편법 사회라는 인식이 두 집단 모두에게 사회적 불안의 핵심적인 노드였다. 노드 중심성 면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청년층에게는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불안이 다른 적응불안 요소들과 함께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청년층과 중년층 네트워크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청년의 경우 공정성 불안의 요소들과 적응 불안, 경쟁/불평등 불안의 요소들이 서로 많은 연결을 가지면서 서로를 강화하였으나 중년층에게는 그러한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외재적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과 네트워크분석 결과는 차별 경험과 박탈 경험, 그리고 사회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조건은 사회적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차별인식, 기회 공정성과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인 요인들을 통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사회신뢰와 심리적 안정은 사회적 불안을 일관되게 낮추는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몇 가지 함의를 준다. 먼저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불신이 청·중년층이 갖는 사회적 불안의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다양한 위기와 재난, 위험이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의 대처가 허술하고 관리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목도한 바 있다. 외환위기, 카드대란, 금융위기, 그리고 세월호 사고까지 반복되는 사회적 사건들에서 정부는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취업난이나 경제불황, 주거 불안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개인의 치열한 삶을 정부는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그리고 최근 인천 두 형제 화재 사고가 그러했다. 이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일상에서 누적되는 경험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킨다.

현대 사회의 위험은 개인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중심에 정부 위기관리에 대한 불신, 정부가 하는 일들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주어야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사회적 불안은 개인 수준의 경험과 자원보다는 사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평가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생활세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경험과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불안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심리적 불안이나 차별의식, 공정성 의식, 불평등 의식과 같은 주관적 인식을 매개로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준다. 이는 사회적 불안이 개인 수준의 불안과는 그 기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청년층에게 지위상승에 대한 기대감, 즉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정성과 관련된 불안과 정부 불신으로 인한 불안에 부적인 방향으로 직간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실 한국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사회 이동성이 실제 줄

었다는 데 대한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율, 2020)에도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앞에서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인식이 공정성 불안과 정부 불신으로 인한 불안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반대로 공정성 불안과 정부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장의 분석은 사회적 불안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사회적 불안의 구성요소들과 설명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분석을 횡단자료에 의존하고,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였으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적 불안의 구성요소와 설명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네트워크 구성요소 선택의 엄밀함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한계가 분석 결과 자체의 엄밀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정교한 이론적 근거를 가진 변수를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 발견된 세대 간 차이가 출생코호트의 서로 다른 경험,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과 특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생애단계에 따른 차이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5장

사회경제적 계층과 청·중년 사회적 불안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제2절 계층과 사회적 불안의 인지
제3절 계층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
제4절 계층별 생애 경험과 사회적 불안
제5절 소결

제 5 장 사회경제적 계층과 청·중년 사회적 불안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1. 분석의 목적

본 장에서는 청년과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로 측정한 사회계층에 따라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과 영역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어서 주요 사회경제적 사건과 박탈 경험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누적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청년과 중년을 출생코호트로 구분할 때,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주요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과 박탈 경험은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귀속지위-주요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 경험-현재의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 계층과 사회적 불안

산업사회 이후 인간의 생애는 '교육-완전고용-은퇴' 과정으로 표준화(standardization)되었다. 그러나 고성장 시대의 종말과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 등은 인간의 생애과정이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되도록 만들었다(Marshall & Mueller, 2003; Settersten, 2003). 우리나라 청년과 중년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는 교육 기간의 연장과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의 변동성 증대, 조기 퇴직과 노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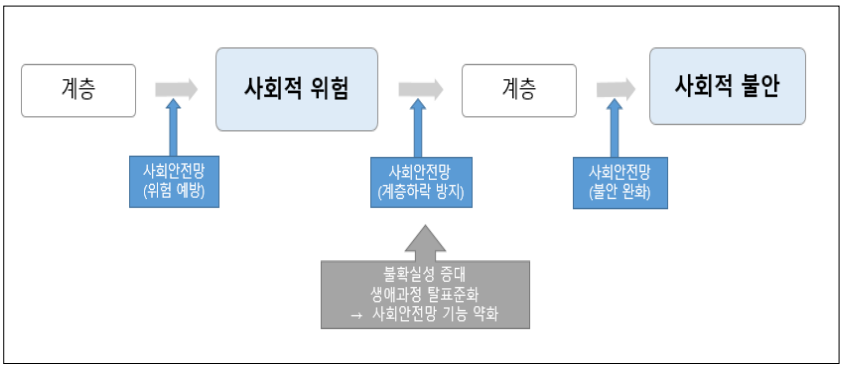
안 확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는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생애과정의 탈표준화는 소수 개인에게 일어났던 사회적 위험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대되고, 사회적 위험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울리히 벡은 개인화와 위험에 관한 논의에서 사회적 위험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위험은 보편화되었으며, 위험의 결과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사회에 직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Beck, 1992).

이와 관련하여 생애과정 불평등 분야의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험이 보편화 되었지만, 위험의 영향은 계층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Elman & O'Rand, 2004; Lui, Chung,, Wallace, & Aneshensel, 2014).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위험에 대처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이는 공적 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사회에서는 더욱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표준화된 생애과정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던 전통적 사회보장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의 영향은 개인이 위치한 계층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의 확대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인다.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공적 사회안전망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이 속한 계층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불안 수준을 낮추거나,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요컨대,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 수준도 어느 계층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 [그림 5-1]은 사회적 위험, 사회적 불안과 계층의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5-1] 계층, 사회적 위험, 사회적 불안의 관계



청년과 중년의 생애주기 특성, 역사적 맥락,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양상은 개인이 속한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을 계층 간 차이, 불평등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고용불안정이나 우울, 공정성 인식의 계층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을 뿐이다. 고용불안정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학교 노동이행의 불안정성 등의 청년기 고용불안정이 부모의 직업 지위, 교육수준, 소득계층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연아, 정원오, 2016; 변금선, 2015; 변금선, 2018b). 우울과 관련해서는 가구빈곤이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거나(조혜정, 염동문, 권혁창, 2020), 기초생활보장 수급과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였다(이원진, 2010).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에 관해서는 청년의 계층에 따라 공정성이나 불평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희정, 2018).

나. 청·중년의 사회경제적 경험과 사회적 불안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에서 보면 개인은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애과정을 형성하는 역동적 행위자이다(Elder & O'Rand, 1995; 변금선, 2018a, p. 29에서 재인용). 역사적, 사회경제적 환경 속의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에 관한 인식은 사회변화를 투영해 나타나고, 개인의 인식과 생애과정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게 된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과 중년은 개인의 생애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적 불안을 인식하며, 이러한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이 전 사회의 불안을 형성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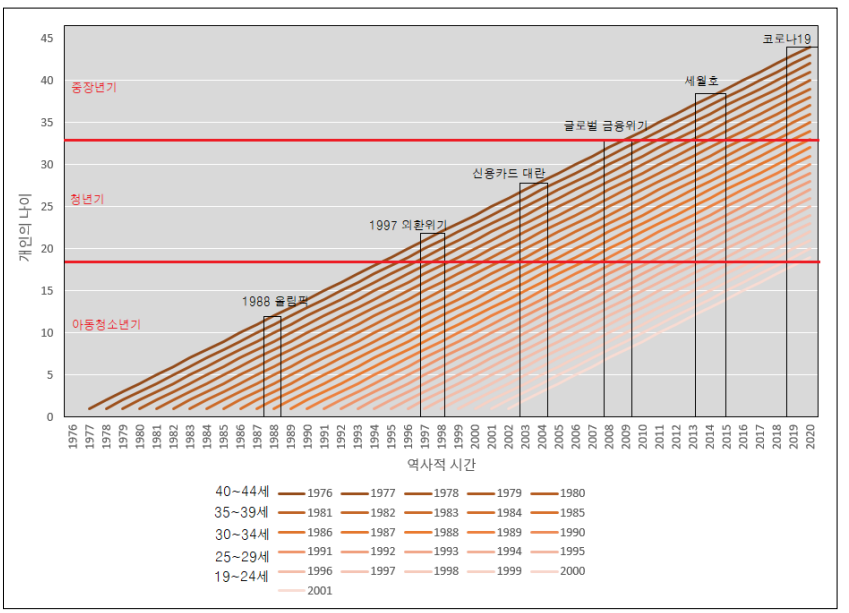
청년과 중년은 핵심 근로연령대의 단일집단으로 간주 되어왔다. 그러나 청년과 중년의 생애주기 차이를 고려할 때 사회적 불안을 촉발하는 원인과 맥락이 다를 수 있다.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변화하는 시기'를 경험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생애주기상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갖는 중년과 구별된다.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이 성인 이행기의 변동성과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중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안은 스스로 획득한 지위의 유지와 하락 위험에서 비롯되는 현재의 지위 불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청년과 중년의 사회적 불안과 관련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청년과 중년이 위치한 사회경제적 맥락이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연령집단 분석은 생물학적 나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년과 중년은 특정 나이의 '연령집단'임과 동시에, 역사적 시간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출생코호트'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태어난 시점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사건과 그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시기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 생애주기의 어디에 위치하고, 그 시기 개인이 지닌 자원(혹은 계층적 지위)에 따라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기와 중년기의 사회적 불안은 개인이 지나온 생애과정 경험이 누적된 결과이다. 개인의 생애는 한 시기마다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며, 특정 생애 사건의 영향은 이후 생애에도 유지되거나 확대,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청년과 중년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주요 사건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표 5-1〉과 [그림 5-2]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출생부터 현시점의 나이까지 역사적 시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35~39세와 40~44세 중년은 1985~1981년생, 1976~1980년생 출생코호트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 경제 호황기에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IMF 경제위기 시점에 청년기를 경험하였으며,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고, 성인으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인 중년기에 2020년 코로나19를 경험한 집단이다. 30~34세 청년은 1986~1990년생 출생코호트로, IMF 시기와 그 이후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 시기에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청년기를 경험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정착하여 이제 막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는 시기에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다. 19~24세와 25~29세 청년은 1996~2001년, 1991~1995년생으로 IMF 이후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코로나19로 신규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는 상황에 청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림 5-2] 2020년 현재 청년·중년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사건(1976~2020년)



자료: Van Winkle, Z., & Fasang, A. (2016). Complexity in Employment Life Courses in Europe in the Twentieth Century—Large Cross-National Differences but Little Change across Birth Cohorts. Social Forces, 96(1), 1-29의 [그림 2]를 참고하여 재구성.

〈표 5-1〉 출생코호트별 사회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연령

역사적 시간	주요 사건	개인의 연령(출생연도)				
		40~44세 (1976~80)	35~39세 (1981~85)	30~34세 (1986~90)	25~29세 (1991~95)	19~24세 (1996~01)
1988	1988 올림픽	8~12세	3~7세	0~2세	0세	0세
1997~1998	1997 외환위기	18~21세	12~17세	7~11세	2~6세	0~1세
2003~2005	신용카드 대란	24~28세	19~23세	14~18세	9~13세	3~8세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8~32세	23~27세	18~22세	12~17세	6~11세
2014	세월호	34~38세	29~33세	24~28세	19~23세	13~18세
2020	코로나19	40~44세	35~39세	30~34세	25~29세	19~24세

자료: Elder, G. H., & Pavalko, E. K. (1993). Work careers in men's later years: Transitions, trajectories, and historical change. Journal of Gerontology, 48(4), S180-S191의 〈표 2〉를 참고해 구성함.

2. 분석 방법

다음 〈표 5-2〉는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계층은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로 측정하였다.[15]

〈표 5-2〉 불평등과 청년·중년의 사회적 불안 분석 방법

분석 내용		분석 방법
일반특성	■분석 대상의 특성 - 연령 집단별 성별, 평균연령, 거주지역, 혼인상태, 자녀유무, 가구주 여부, 부모와 동거 여부, 자가거주 여부, 1인 가구 여부, 계층 변수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계층과 사회적 불안	■계층별 사회적 불안 수준 차이 검증 - 대상 특성별 차이: 전체, 청년, 중년의 귀속지위(성별, 연령, 부모 재산과 교육수준)와 획득지위(본인 교육, 소득계층), 성인 이행기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평균, 분포, 여부) 차이 -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계층 간 차이 - 계층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 분석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χ^2-test, t-test, F-test ■선형확률모형 - 종속변수(사회적 불안) - 독립변수(계층)
생애과정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	■계층별 생애 경험 차이 검증 - 주요 사건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박탈 경험의 계층별 차이 ■계층별 생애 경험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 ■계층별 생애 경험의 누적적 영향 분석 - 주요 사건의 경제적 어려움, 박탈의 중복 경험의 계층 간 차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χ^2-test, t-test, F-test ■선형확률모형 - 종속변수(사회적 불안) - 독립변수(계층. 생애경험)

15) 사회계층(social strata)은 사회를 구성하는 이질적인 층위를 의미하며, 인종, 성별, 연령 등 수평적 체계로서의 계층과 사회계급(social class), 직업과 소득계층 등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ses),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가족배경(family background) 등 수직적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계층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선천적 특성의 귀속지위(ascribed status, social origin)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이용해 성취하는 획득지위(성취 지위, achieved status)로 구분된다. 귀속지위는 획득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획득지위에는 개인의 순수한 능력, 노력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무형과 유형의 자원에 의한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귀속지위는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의 최종 교육수준과 재산(상, 중, 하)으로 측정하였으며, 획득 지위는 본인의 교육수준(대학졸업 여부)과 본인의 소득수준(상, 중, 하)으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재산과 본인의 소득은 5점 척도(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를 상, 중, 하로 전환해 분석하였다.

부모 교육수준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는 16.7%,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는 37.5%, 대학 졸업 이상은 45.8%였는데, 중졸 이하의 비율은 19~24세의 12.2%로 가장 낮았고, 40~44세의 31.3%로 가장 높았다.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로 인한 부모세대의 교육수준 상향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재산 수준은 '상층' 11.0%, '중층' 38.5%, '하층' 50.5%였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29세의 18.3%로 전체 연령집단 중 가장 높았으며,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2%로 가장 낮았다.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보다 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16] 귀속지위의 영향이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인 교육수준이 대학졸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0.4%였는데, 19~24세는 22.2%로 매우 낮았다. 20대 초반에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인한 결과이다. 휴학과 졸업 유예 등을 고려할 때 20대의 교육수준은 최종적 획득지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 소득계층을 분석한 결과, '상층' 7.3%, '중층' 40.0%, '하층' 52.7%였으며, 19~24세의 경우 부모 재산과 유사하게 '상층' 비중이 가

16)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9년 현재 19~29세 20대 청년 중 '다음 세대 계층 상향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9%로, 전체 평균, 60세 이상 32.5%보다 낮았다(통계청, 2019).

장 높고, '하층' 비중은 가장 낮았다. 부모 가구에서 독립하지 않고,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실제 본인의 소득계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5-3〉 분석 대상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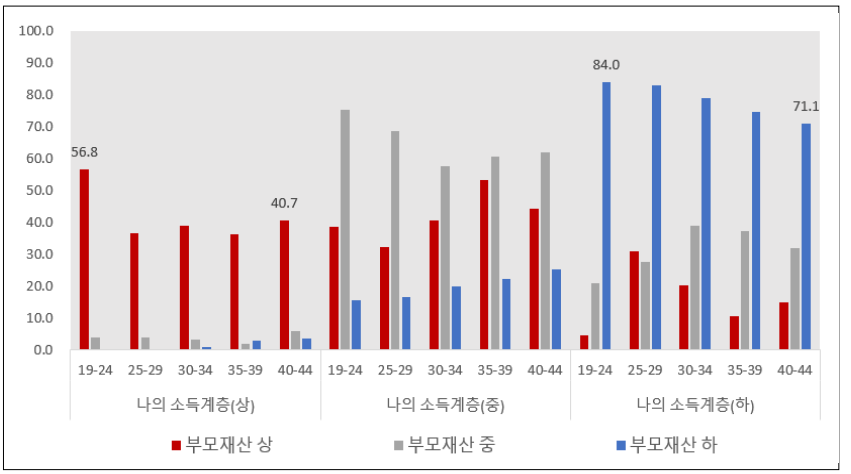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청년			중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사례 수(명, %)		3,117	608(19.5)	601(19.3)	584(18.7)	637(20.4)	687(22.0)
부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7	4.5	10.0	13.3	22.3	31.3
	고졸	37.5	43.9	46.2	41.6	31.6	25.9
	대졸 이상	45.8	51.6	43.8	45.1	46.1	42.8
부모 재산 수준	상	11.0	18.3	11.8	10.1	7.4	7.9
	중	38.5	42.6	42.9	36.0	38.0	33.6
	하	50.5	39.2	45.3	53.9	54.6	58.5
본인 교육(대학졸업 이상)		70.4	22.2	77.2	83.9	83.4	83.7
본인 소득 계층	상	7.3	12.2	6.2	5.7	5.0	7.3
	중	40.0	45.2	40.8	35.6	39.3	39.2
	하	52.7	42.6	53.1	58.7	55.7	5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의 소득계층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결과는 [그림 5-3]과 같다. 부모 재산 수준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본인의 소득계층이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본인이 소득계층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원 가구에서 독립하지 않은 20대를 제외한 30대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귀속지위에 따라 획득지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3] 부모 재산 수준과 본인 소득계층 분포 비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2절 계층과 사회적 불안의 인지

1. 청·중년 전체의 계층과 사회적 불안 인지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인식하는지 5점 척도(전혀 불안하지 않다~매우 불안하다)로 조사한 결과를 평균 점수, 분포,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로 확인하였다.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재산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4〉와 같다. 전체 분석 대상의 사회적 불안 평균 점수는 4.1점이었으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9%로 대다수의 청년과 중년이 현재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적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불안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남성(4.0점)보다 높았으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2%에 달했다. 심리적 측면의 불안과 우울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 연령집단 중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34세(87.2%)와 25~29세(87.1%)였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정착하는 과정에 놓인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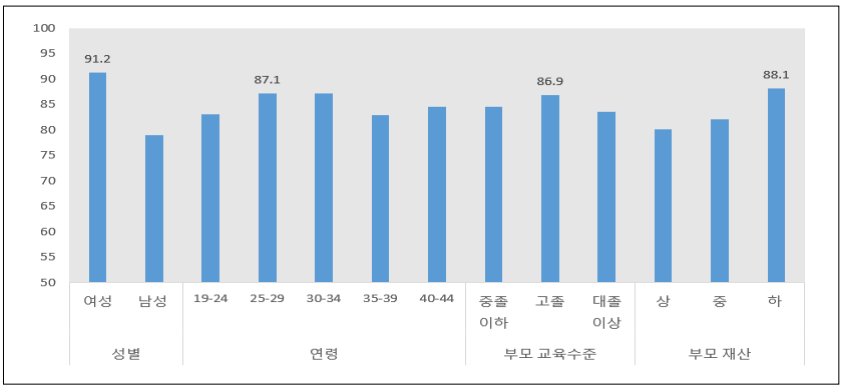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 졸업 이상→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은 상층→중층→하층 순서로 높았다.

〈표 5-4〉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구분			평균(sd)	전혀 불안하지 않음 ↔ 매우 불안					불안함(%)	카이 검증
				1	2	3	4	5		
전체 (n=3,117)			4.1(0.8)	0.7	3.5	10.9	51.4	33.6	84.9	-
성별	여성		4.3(0.7)	0.0	1.3	7.5	51.4	39.8	91.2	***
	남성		4.0(0.9)	1.3	5.5	14.2	51.4	27.7	79.0	
연령	청년	19~24	4.1(0.8)	0.7	5.0	11.2	51.2	31.9	83.1	**
		25~29	4.1(0.8)	0.3	3.5	9.1	48.2	38.9	87.1	
		30~34	4.2(0.7)	0.3	2.6	9.9	50.5	36.6	87.2	
	중년	35~39	4.2(0.8)	1.0	2.3	13.8	51.6	31.3	82.9	
		40~44	4.1(0.8)	1.0	3.8	10.7	55.4	29.1	84.5	
부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4.1(0.8)	0.2	5.6	9.6	48.4	36.1	84.5	*
	고졸		4.2(0.8)	0.7	2.8	9.6	52.8	34.1	86.9	
	대졸 이상		4.1(0.8)	0.9	3.5	12.1	51.4	32.1	83.6	
부모 재산	상		4.0(0.8)	1.5	2.9	15.5	53.8	26.3	80.1	***
	중		4.1(0.8)	0.9	4.6	12.4	51.8	30.3	82.1	
	하		4.2(0.7)	0.3	2.7	8.8	50.5	37.7	88.1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4]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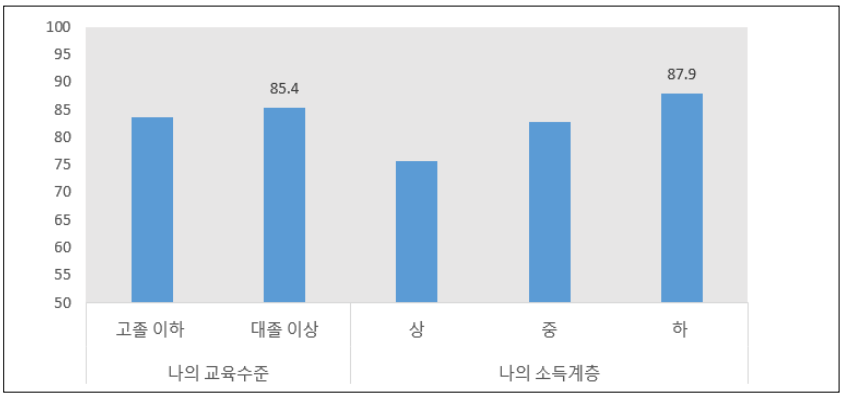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5〉와 같다. 본인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7%였으며,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는 85.4%로 다소 높았다.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을 한 결과 p〈.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 중 청년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인 소득계층 인식이 상층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75.7%로 하층(87.9%)보다 낮았다.

〈표 5-5〉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구분		평균(sd)	전혀 불안하지 않음 ↔ 매우 불안					불안함(%)	카이 검증
			1	2	3	4	5		
전체 (n=3,117)		4.1(0.8)	0.7	3.5	10.9	51.4	33.6	84.9	-
본인 교육 수준	고졸 이하	4.1(0.8)	1.1	2.7	12.5	50.9	32.9	83.7	#
	대졸 이상	4.1(0.8)	0.5	3.8	10.3	51.6	33.9	85.4	
본인 소득 계층	상	3.9(0.9)	1.8	5.3	17.3	54.4	21.2	75.7	***
	중	4.1(0.8)	0.9	4.1	12.4	52.9	29.8	82.7	
	하	4.2(0.8)	0.4	2.7	9.0	49.8	38.1	87.9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5]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성인 이행기의 주요 과업(취업, 부모 독립, 주거, 결혼과 가족 형성)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자가 여부와 자녀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동거와 배우자 유무는 $p<.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상태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 미취업자, 임시일용·비정규직·프리랜서, 상용·정규직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달랐는데, 미취업자 중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한 경우는 9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학생(87.2%), 실업자(86.9%)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학생 중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실업자, 임시일용·비정규직·프리랜서보다 높다는 점이다. 현재 재학 중이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측정되는 청년의 다수가 오히려 더 불안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6〉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구분		평균(sd)	전혀 불안하지 않음 ↔ 매우 불안					불안함(%)	카이 검증
			1	2	3	4	5		
전체 (n=3,117)		4.1(0.8)	0.7	3.5	10.9	51.4	33.6	84.9	-
현재 상태	학생	4.2(0.8)	0.6	2.8	9.5	55.1	32.1	87.2	***
	미취업	4.3(0.7)	0.3	1.4	6.9	51.1	40.3	91.4	
	실업자	4.3(0.8)	0.0	2.5	10.6	46.0	40.9	86.9	
	임시일용 비정규직	4.1(0.8)	0.6	2.3	15.4	47.2	34.5	81.7	
	상용 정규직	4.1(0.8)	0.9	4.9	11.0	52.0	31.2	83.2	
분모 동거 여부	비동거	4.2(0.8)	0.7	3.8	9.6	51.8	34.2	85.9	#
	동거	4.1(0.8)	0.6	3.1	12.6	50.9	32.8	83.7	
자가 여부	비자가	4.1(0.8)	0.9	3.3	10.5	51.5	33.9	85.4	×
	자가	4.1(0.8)	0.5	3.6	11.3	51.3	33.3	84.6	
혼인 상태	배우자 없음	4.1(0.8)	0.9	3.4	11.6	52.3	31.9	84.1	#
	배우자 있음	4.2(0.8)	0.4	3.5	9.9	50.0	36.2	86.2	
자녀 유무	자녀 없음	4.1(0.8)	0.8	3.6	11.6	51.9	32.1	84.1	×
	자녀 있음	4.2(0.8)	0.5	3.3	9.7	50.2	36.4	86.6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청년의 계층과 사회적 불안 인지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위 연령대별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불안 수준은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7〉, [그림 5-6]과 같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청년의 비율은 85.7%로 중년(83.7%)보다 높았다. 특히 25~29세, 30~34세 여성 청년의 비율은 93.8%, 92.8%로 남성 청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청년 여성의 높은 우울 및 자살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은 전체 집단과 유사하게 고졸인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19~24세의 경우 부모가 중졸 이하 저학력인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귀속지위의 영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 재산 수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은 전체 집단 대상 분석과 유사했는데, 19~24세의 경우 부모 재산이 하층인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1.6%로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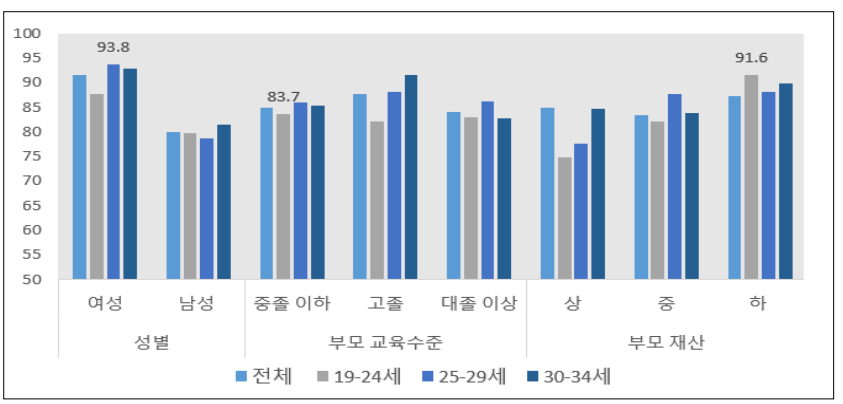
〈표 5-7〉 청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n=1,908)		85.7	83.1	87.1	87.2
성별	여성	91.6	87.7	93.8	92.8
	남성	79.9	79.7	78.6	81.5
부모 교육수준	중졸 이하	84.8	83.7	86.0	85.3
	고졸	87.7	82.1	88.1	91.5
	대졸 이상	84.0	83.0	86.1	82.7
부모의 재산	상	85.0	74.8	77.5	84.7
	중	83.3	82.2	87.7	83.8
	하	87.3	91.6	88.2	8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6] 청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청년층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본인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9~24세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전문대학 졸업자가 대졸자로 분류되고, 4년제 대학 재학생은 고졸 이하로 측정되는 것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인의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하층인 경우 상층이나 중층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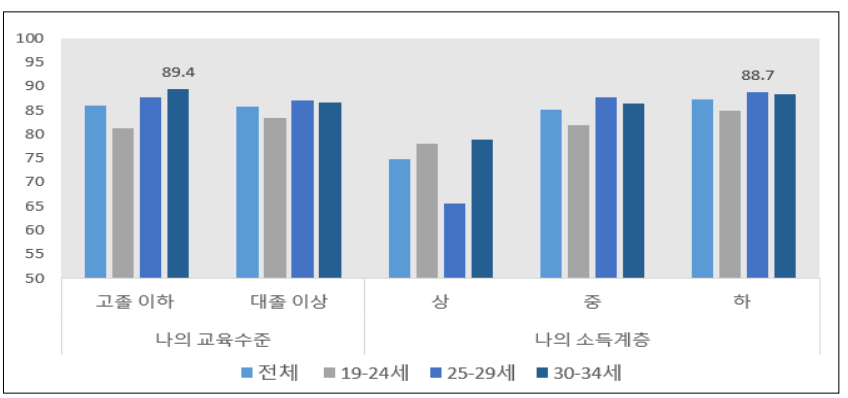
〈표 5-8〉 청년층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n=1,908)		85.7	83.1	87.1	87.2
본인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5.9	81.3	87.7	89.4
	대졸 이상	85.7	83.5	87.0	86.7
본인 소득 계층	상	74.8	78.0	65.6	78.8
	중	85.1	81.8	87.6	86.5
	하	87.2	84.8	88.7	8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7] 청년층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5-9〉와 같다. 현재 상태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 미취업자→학생→실업자→상용·정규직→임시일용·비정규직 순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특성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편, 30~34세는 학생인 경우 미취업자보다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원 등에 진학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한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비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5-9〉 청년층의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n=1,908)		85.7	83.1	87.1	87.2
현재 상태	학생	89.0	87.8	85.4	93.9
	미취업	93.3	89.9	98.0	90.5
	실업자	86.2	88.0	92.0	81.1
	임시일용 비정규직	83.6	78.9	88.6	85.0
	상용 정규직	84.1	82.2	83.3	86.8
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86.3	83.4	88.5	87.9
	동거	84.0	81.7	82.6	86.1
자가 여부	비자가	85.9	81.6	88.3	87.8
	자가	85.5	84.1	86.3	86.6
혼인 상태	배우자 없음	84.3	83.2	83.2	85.4
	배우자 있음	86.6	83.1	89.2	89.9
자녀 유무	자녀 없음	84.6	80.0	84.3	86.9
	자녀 있음	86.7	84.5	89.1	8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3. 중년의 계층과 사회적 불안 인지

35~44세 중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5-10〉, [그림 5-8]과 같다. 중년층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0.5%로, 중년 남성(77.7%)보다 크게 높았다.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부모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부모 재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은 상층이 가장 낮고, 하층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40~44세의 경우, 부모의 재산 수준이 상층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하층보다 더 높았다.

〈표 5-10〉 중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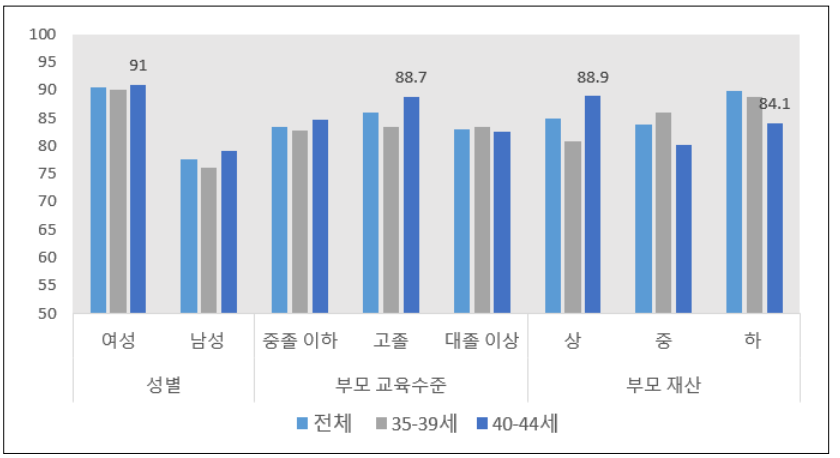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35~39세	40~44세
전체 (n=1,209)		83.7	82.9	84.5
성별	여성	90.5	90.0	91.0
	남성	77.7	76.1	79.2
부모 교육수준	중졸 이하	83.3	82.8	84.6
	고졸	85.9	83.3	88.7
	대졸 이상	82.9	83.5	82.5
부모 재산	상	84.8	80.9	88.9
	중	83.8	86.0	80.1
	하	89.8	88.8	84.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8] 중년층의 귀속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중년층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은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인의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인식은 하층이 상층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표 5-11〉 중년층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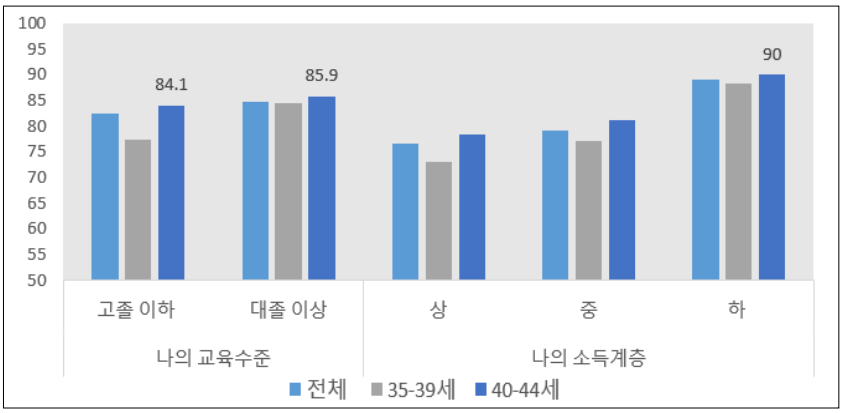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35~39세	40~44세
전체 (n=1,209)		83.7	82.9	84.5
본인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2.6	77.4	84.1
	대졸 이상	84.8	84.5	85.9
본인 소득 계층	상	76.6	73.0	78.4
	중	79.2	77.1	81.1
	하	89.1	88.4	9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9] 중년의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중년층의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표 5-12〉)은 청년층과 유사하게 현재 상태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현재 상태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은 실업자→학생→미취업자→정규직→비정규직 순으로 높았는데, 40~44세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5-12〉 중년층의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분		전체	35~39세	40~44세
전체 (n=1,209)		83.7	82.9	84.5
현재 상태	학생	86.6	88.7	85.8
	미취업	86.5	86.0	86.8
	실업자	87.4	86.1	89.7
	임시일용 비정규직	78.1	75.0	80.6
	상용 정규직	80.1	80.5	78.3
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84.1	82.2	88.2
	동거	83.6	83.2	83.9

구분		전체	35~39세	40~44세
자가 여부	비자가	84.6	82.4	87.1
	자가	83.0	83.3	82.7
혼인 상태	배우자 없음	84.0	83.3	84.6
	배우자 있음	78.6	78.7	77.8
자녀 유무	자녀 없음	83.7	82.6	84.7
	자녀 있음	84.6	87.5	7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3절 계층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척도화된 문항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청·중년의 계층과 사회적 불안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불안을 구성하는 5가지 세부 영역(공정성, 불평등과 경쟁(이하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과 도태(이하 도태))의 불안 수준이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세부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중 50% 이상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공정성은 6개 문항 중 4개 이상, 불평등은 6개 문항 중 4개 이상, 정부 신뢰는 3개 문항 중 2개 이상, 안전은 5개 문항 중 3개 이상, 도태는 4개 중 3개 이상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 각 영역에 대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 계층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정성, 불

평등은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재산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정부 신뢰, 안전, 도태는 일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13〉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불안함				
			전체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전체 (n=3,117)			3.7	3.9	4.2	3.5	3.5	3.3	71.8	86.4	48.6	50.5	33.0
성별	여성		3.8	4.0	4.3	3.5	3.6	3.4	75.2	91.9	48.4	59.1	35.5
	남성		3.7	3.9	4.1	3.5	3.3	3.2	68.7	81.3	48.7	42.5	30.7
연령	청년	19~24	3.7	3.8	4.1	3.6	3.5	3.3	62.7	80.9	53.1	54.9	31.9
		25~29	3.7	3.9	4.2	3.5	3.5	3.3	69.9	86.7	51.8	51.3	36.8
		30~34	3.8	4.0	4.2	3.6	3.5	3.4	75.9	88.5	51.2	53.6	37.7
	중년	35~39	3.8	4.0	4.2	3.5	3.4	3.3	77.1	88.2	46.9	47.4	32.0
		40~44	3.7	4.0	4.1	3.3	3.4	3.2	73.2	87.6	41.1	46.3	27.8
부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7	4.0	4.2	3.4	3.4	3.3	76.5	90.0	43.2	46.8	34.5
	고졸		3.8	4.0	4.2	3.5	3.5	3.3	73.2	86.2	49.4	52.5	34.0
	대졸 이상		3.7	3.9	4.1	3.5	3.4	3.3	69.0	85.5	49.6	50.7	31.6
부모 재산	상		3.6	3.8	4.1	3.5	3.4	3.2	65.5	82.8	48.3	50.6	29.5
	중		3.7	3.9	4.1	3.5	3.4	3.2	65.8	82.5	47.8	46.2	29.3
	하		3.8	4.1	4.2	3.5	3.5	3.4	77.8	90.2	49.2	53.8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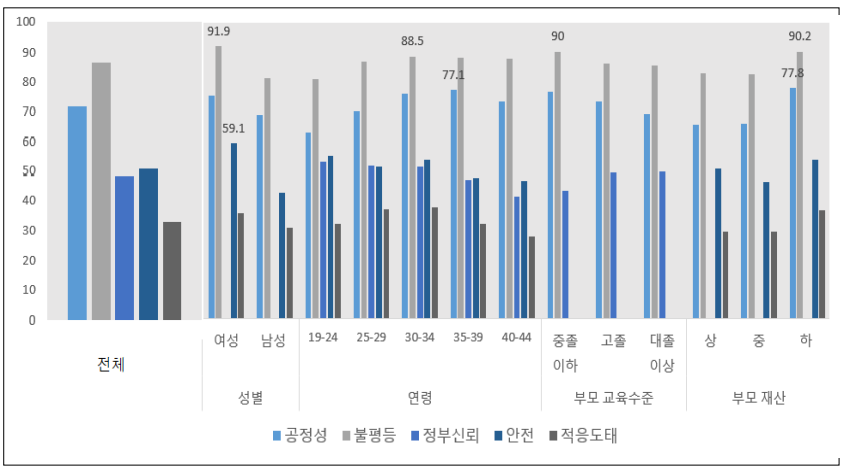
주: t-test, F-test, 카이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 대해 음영 처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5가지 영역 중 불평등에 대한 불안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세부영역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공정성, 불평등 영역의 불안 인식이 높았으며, 청년층은 중년층보다 정부 신뢰, 안전, 적응 영역의 불안 인식이 높았다.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공정성, 불평등 정부 신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부모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 불평등 불안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모 재산에 따른 세부 영역별 불안 인식은 정부 신뢰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는데, 부모의 재산수준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모든 영역에서의 불안 인식이 높았다.

[그림 5-10] 귀속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

(단위: %)



주: 〈표 5-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 도식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도 귀속지위에 따른 차이와 유사하게 공정성, 불평등은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정부 신뢰, 안전, 도태는 일부 유의하지 않았다.

본인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공정성과 불평등 영역의 불안 인식이 고졸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정부 신뢰 불안 수준은 고졸이 대졸 이상보다 높았다.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공정성, 불평등, 안전, 적응/도태에 있어서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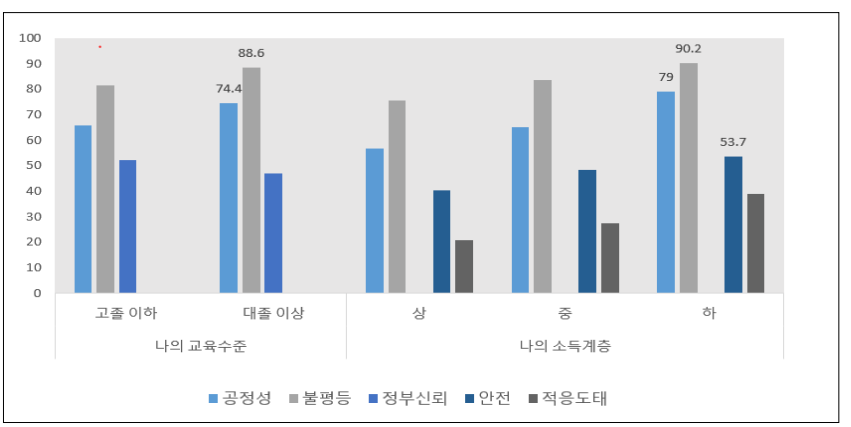
〈표 5-14〉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불안함				
		전체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전체 (n=3,117)		3.7	3.9	4.2	3.5	3.5	3.3	71.8	86.4	48.6	50.5	33.0
본인 교육 수준	고졸 이하	3.7	3.9	4.1	3.6	3.5	3.3	65.7	81.3	52.3	52.1	34.2
	대졸 이상	3.7	4.0	4.2	3.5	3.4	3.3	74.4	88.6	47.0	49.9	32.6
본인 소득 계층	상	3.5	3.7	3.9	3.4	3.2	3.0	56.6	75.7	46.0	40.3	20.8
	중	3.6	3.8	4.1	3.5	3.4	3.2	65.1	83.6	48.3	48.2	27.4
	하	3.8	4.1	4.2	3.5	3.5	3.4	79.0	90.2	49.2	53.7	39.0

주: t-test, F-test, 카이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 대해 음영 처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1]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 수준



주: 〈표 5-1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 도식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정성과 불평등 영역은 미취업→실업자→정규직 순으로 불안 인식이 높았다. 노동시장에 밖에 있는 경우, 그리고 노동시장 안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에서 공정성과 불평등 불안 인식이 높다는 점에서 불안의 특성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성, 불평등 영역의 불안 인식이 높았다. 안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불안 인식이 높았다.

〈표 5-15〉 성인 이행 과업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점, %)

구분		평균						불안함				
		전체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공정성	경쟁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 도태
전체 (n=3,117)		3.7	3.9	4.2	3.5	3.5	3.3	71.8	86.4	48.6	50.5	33.0
현재 상태	학생	3.7	3.9	4.1	3.5	3.4	3.3	67.3	85.3	50.2	49.9	33.8
	비구직 미취업	3.8	4.0	4.3	3.5	3.5	3.4	78.0	91.7	46.0	52.6	32.9
	실업자	3.8	4.0	4.2	3.5	3.5	3.4	73.7	90.4	49.5	56.6	39.9
	임시일용 비정규직	3.7	3.9	4.1	3.5	3.5	3.3	69.2	83.0	49.7	51.8	33.3
	상용정규직	3.7	4.0	4.1	3.5	3.4	3.3	73.1	86.3	47.9	49.0	31.7
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3.7	4.0	4.2	3.4	3.4	3.3	74.0	88.2	46.6	49.8	30.4
	동거	3.7	3.9	4.1	3.5	3.5	3.3	69.2	84.4	50.9	51.4	36.1
자가 여부	비자가	3.8	4.0	4.2	3.5	3.5	3.3	72.6	86.0	50.0	51.1	33.0
	자가	3.7	3.9	4.1	3.5	3.4	3.3	71.2	86.8	47.4	50.1	33.1
혼인 상태	배우자 없음	3.7	3.9	4.1	3.5	3.5	3.3	69.5	84.3	50.2	51.7	34.8
	배우자 있음	3.7	4.0	4.2	3.4	3.4	3.3	75.4	90.0	46.0	48.7	30.3
자녀 유무	자녀 없음	3.7	3.9	4.1	3.5	3.5	3.3	70.2	85.1	49.4	51.4	34.6
	자녀 있음	3.8	4.0	4.2	3.5	3.5	3.3	75.0	89.1	46.9	48.9	29.9

주: t-test, F-test, 카이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 대해 음영 처리함. p<.10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짙은 음영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하위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대한 계층의 영향

5점 척도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을 불안 여부 이분 변수로 전환하여 계층요인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이분 변수이면

프로빗(probit regression model), 로짓(logistic regression model)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한편, 귀속지위에 따라 획득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획득지위만 투입한 모형, 귀속지위만 투입한 모형,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를 모두 투입한 통합모형을 설정해 분석하였다. 획득지위는 귀속지위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므로 획득지위의 영향은 귀속지위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본인의 획득지위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모형'을 통해 확인하고, 귀속지위의 영향은 귀속지위만 투입한 '귀속지위 모형'으로 확인하였다.

분석한 결과,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성인 이행 과업 관련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귀속지위와 획득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귀속지위모형(4)에서 부모 재산이 하층인 경우 상층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6% 높았으며, 통합모형(6)에서 본인 소득이 하층인 경우는 상층인 경우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11%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좋으면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현재 상태가 정규직인 경우보다 학생이거나 미취업자인 경우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연령 집단 간 차이는 현재 상태를 통제하면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사회적 불안의 차이가 개인이 놓여있는 조건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5-16〉 계층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획득지위		귀속지위		통합모형	
		1	2	3	4	5	6
여성		0.11***	0.11***	0.11***	0.11***	0.11***	0.11***
광역시 거주		0.03*	0.02	0.03*	0.03*	0.03*	0.03*
배우자 있음		-0.01	-0.01	-0.02	-0.02	-0.01	-0.01
자녀 있음		0.04	0.04	0.04	0.04	0.04	0.04
건강상태 좋음		-0.06***	-0.06***	-0.06***	-0.06***	-0.06***	-0.06***
부모동거		0.00	0.00	-0.01	-0.01	-0.01	-0.01
가족 수		-0.01	-0.01	-0.01	-0.01	-0.01	-0.01
취업		-0.04**		-0.04**		-0.04**	
현재 상태 (정규)	학생		0.05**		0.05**		0.06**
	미취업		0.03#		0.04#		0.03#
	실업		0.02		0.02		0.02
	비정규직		-0.02		-0.02		-0.02
본인 교육(대졸)		0.03	0.03#			0.02	0.03
본인 소득(상)	중	0.04	0.04			0.03	0.03
	하	0.09**	0.09**			0.06	0.06#
부모 교육(대)	중졸			-0.01	-0.01	-0.01	-0.01
	고졸			0.02	0.02	0.02	0.02
부모 재산(상)	중			0.02	0.02	0.00	0.00
	하			0.07**	0.07**	0.04	0.04
연령 (40~44)	19~24	0.05#	0.04	0.04	0.03	0.06*	0.04
	25~29	0.01	0.00	0.02	0.01	0.01	0.01
	30~34	0.04#	0.04#	0.04#	0.04	0.04	0.03
	35~39	0.02	0.02	0.03	0.02	0.02	0.02
Constant		0.85***	0.82***	0.89***	0.85***	0.84***	0.80***
사례 수		3,117	3,117	2,988	2,988	2,988	2,988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이어서 영역별 불안 여부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귀속지위와 획득지위에 따른 영역별 불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5-17〉, 〈표 5-18〉). 부모 재산이 하층인 경우 상층보다 공정성, 불평등 영역의 불안 수준이 높았으며, 본인의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정부 신뢰 영역의 불안은 귀속지위와 획득지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과 도태 영역의 불안은 부모 재산이 중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본

인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불안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연령에 따른 차이는 정부 신뢰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40~44세보다 청년층이 정부 신뢰 영역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았다.

〈표 5-17〉 계층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공정성		불평등		정부 신뢰	
		귀속지위	통합	귀속지위	통합	귀속지위	통합
여성		0.05**	0.05**	0.10***	0.10***	-0.01	-0.01
광역시 거주		0.01	0.01	0.01	0.01	0.03	0.03
배우자 있음		0.05	0.06#	0.07**	0.07**	-0.02	-0.02
자녀 있음		0.01	0.01	0.00	0.00	0.07#	0.07#
건강상태 좋음		-0.12***	-0.10***	-0.04**	-0.03*	-0.07***	-0.07***
부모동거		0.05#	0.05#	0.04#	0.04#	0.01	0.01
가족 수		-0.02*	-0.02#	-0.02*	-0.02*	0.00	0.00
현재 상태 (정규)	학생	0.01	0.01	0.03	0.04*	-0.03	-0.03#
	미취업	0.03	0.03	0.01	0.02	-0.03	-0.03#
	실업	0.01	0	0.04#	0.04#	-0.02	-0.02
	비정규직	-0.02	-0.03	-0.03	-0.03	0.01	0.01
본인 교육(대졸)			0.08***		0.07***		-0.03
본인 소득(상)	중		0.07#		0.07*		0.02
	하		0.17***		0.10**		0.02
부모 교육(대)	중졸	0.02	0.02	0.01#	0.02	-0.05#	-0.05#
	고졸	0.02	0.03	-0.01	0.00	-0.02	-0.02
부모 재산(상)	중	-0.03	-0.08*	-0.01	-0.04#	0.00	-0.01
	하	0.07*	-0.01	0.05*	0.01	0.02	0.01
연령 (40~44)	19~24	-0.07*	-0.02	-0.04	0.00	0.16***	0.14***
	25~29	-0.01	-0.02	0.01	0.01	0.14***	0.14***
	30~34	0.02	0.02	0.01	0.01	0.11***	0.11***
	35~39	0.04#	0.04	0.00	-0.01	0.07*	0.07*
Constant		0.73***	0.58***	0.81***	0.70***	0.41***	0.43***
사례 수		2,988	2,988	2,988	2,988	2,988	2,988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18〉 계층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안전 불안		적응·도태 불안	
		귀속지위	통합	귀속지위	통합
여성		0.17***	0.17***	0.05**	0.05**
광역시 거주		0.03#	0.03#	0	0.01
배우자 있음		-0.02	-0.02	0.04	0.05
자녀 있음		0.04	0.04	0.05	0.05
건강상태 좋음		-0.14***	-0.14***	-0.15***	-0.14***
부모동거		0.01	0.01	0.13***	0.13***
가족 수		-0.01	-0.01	-0.04**	-0.03**
현재 상태 (정규)	학생	-0.05#	-0.05#	0.01	0.00
	미취업	-0.05#	-0.06#	-0.02	-0.03
	실업	0.01	0.01	0.03	0.02
	비정규직	0.00	0.00	0.02	0.01
본인 교육(대졸)			0.01		0
본인 소득(상)	중		0.08*		0.06#
	하		0.11*		0.15***
부모 교육(대)	중졸	-0.05#	-0.05*	0.02	0.01
	고졸	-0.01	-0.01	-0.01	-0.01
부모 재산(상)	중	-0.05	-0.09*	-0.03	-0.06*
	하	0.02	-0.02	0.03	-0.04
연령 (40~44)	19~24	0.11**	0.12**	0.03	0.04
	25~29	0.05	0.05	0.07*	0.07*
	30~34	0.05#	0.05	0.08**	0.07*
	35~39	-0.01	-0.01	0.03	0.03
Constant		0.47***	0.41***	0.33***	0.28***
사례 수		2,988	2,988	2,988	2,988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사회적 불안과 영역별 불안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모형에 영역별 사회 불안 여부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부모 재산과 본인의 소득계층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앞의 분석 결과와 유사했다. 영역별 사회 불안은 전체적인 사회적 불안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불평등 영역에서 불안하다고 인식할 경우,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은 26%로 매우 높았으며, 공정성, 정부 신뢰도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표 5-19〉 사회적 불안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귀속지위	통합
여성		0.07***	0.07***
광역시 거주		0.02#	0.02#
배우자 있음		-0.04	-0.04
자녀 있음		0.03	0.03
건강상태 좋음		-0.03*	-0.03*
부모동거		-0.03	-0.03
가족 수		0.00	0.00
현재 상태 (정규직)	학생	0.05**	0.05**
	미취업	0.03#	0.03#
	실업	0.01	0.01
	비정규직	-0.01	-0.01
본인 교육(대졸)			0.00
본인 소득(상)	중		0.26***
	하		0.08***
부모 교육(대)	중졸	-0.01	-0.01
	고졸	0.02	0.02
부모 재산(상)	중	0.02	0.02
	하	0.05*	0.04
연령 (40~44)	19~24	0.03	0.03
	25~29	-0.01	-0.01
	30~34	0.02	0.02
	35~39	0.02	0.02
영역별 사회 불안	공정성	0.09***	0.09***
	불평등	0.26***	0.26***
	정부 신뢰	0.07***	0.08***
	안전	0.03*	0.03*
	적응과 도태	0.01	0.01
Constant		0.42***	0.42***
사례 수		2.988	2,988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과 중년층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은 귀속지위와 획득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재산과 본인의 소득계층이 높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공정성, 불평등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4절 계층별 생애 경험과 사회적 불안

1. 연령별 생애 경험의 차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과 박탈 경험이 사회적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부터 다섯 번의 주요 사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가 6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997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43.3%로 그 뒤를 이었다.[17] 1997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청년층보다 중년층의 경험 비율이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중년층보다 청년층의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25~29세 청년의 경험 비율은 63.7%로 가장 높았다.

주요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코로나19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세월호 27.0%, 2008 금융위기 12.3%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어려움의 경우 최근의 경험에 대해 더 높게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20대보다는 3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17) 1997 외환위기의 경우 19~24세, 25~29세 청년은 연령을 고려할 때, 부모를 통해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유추된다.

〈표 5-20〉 연령별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경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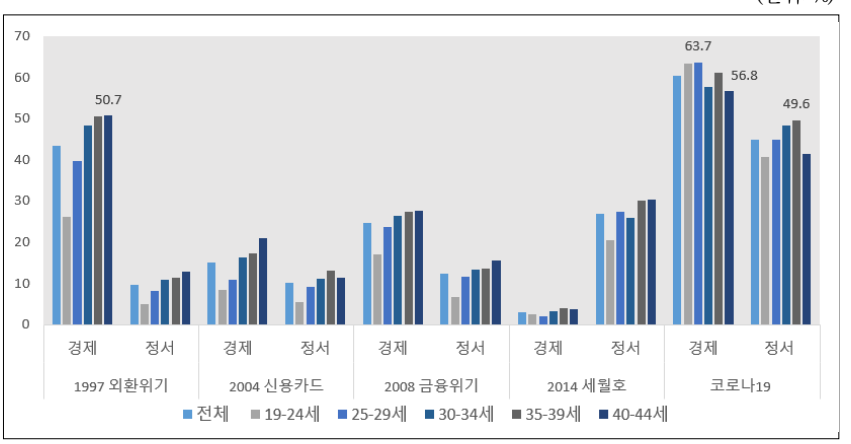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청년			중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사례 수 (n=3,117)		100.0	608(19.5)	601(19.3)	584(18.7)	637(20.4)	687(22.0)
1997 외환위기	경제	43.3	26.2	39.6	48.3	50.6	50.7
	정서	9.7	4.9	8.3	10.8	11.3	12.8
2004 신용카드 사태	경제	15.0	8.4	10.8	16.4	17.4	21.0
	정서	10.2	5.4	9.3	11.1	13.2	11.5
2008 금융위기	경제	24.6	17.1	23.8	26.4	27.5	27.7
	정서	12.3	6.6	11.7	13.4	13.7	15.7
2014 세월호	경제	3.1	2.6	2.0	3.3	3.9	3.8
	정서	27.0	20.4	27.5	26.0	30.1	30.3
코로나19	경제	60.4	63.3	63.7	57.7	61.1	56.8
	정서	44.9	40.6	44.9	48.3	49.6	4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2] 연령별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경험 현황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건강, 돌봄, 주거, 교육 영역의 박탈 경험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주거비나 학비로 인해 빚을 진 경험(주거 부채 42.5%, 학비 부채 34.5%) 비율이 높았는데, 높은 대학진학률과 주택 구매 대출을 받는 중년층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갔다고 응답한 비율(미충족 의료)은 24.0%였으며, 중년층보다 청년층에게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5~29세 청년은 27.3%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았다. 병원비로 인해 빚을 진 경험은 중년층에서 높았다. 돌봄으로 인한 시간 제약을 경험한 비율은 22.6%였으며,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중년층에게서 더 높았다. 돌봄으로 인해 사회관계의 제약을 경험한 비율은 18.1%였으며, 시간 제약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주거와 관련해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리거나 이사 간 경우는 전체 25.2%로 부채를 제외한 박탈 경험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청년층보다 중년층에게서 더 높았는데, 20대 청년 다수가 독립 가구를 형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학비 미납 혹은 학업 중단 경험은 21.9%였으며, 이 역시 중년층이 더 높았다.

〈표 5-21〉 연령별 만 12세 이후 박탈 경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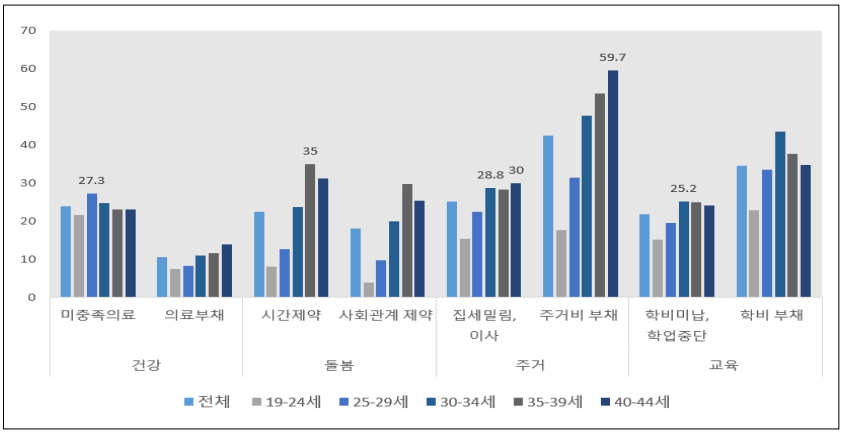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청년			중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사례 수 (n=3,117)		100.0	608(19.5)	601(19.3)	584(18.7)	637(20.4)	687(22.0)
건강	아파도 병원에 못 감	24.0	21.7	27.3	24.7	23.2	23.1
	병원비 부채	10.6	7.4	8.3	11.1	11.6	14.0
돌봄	시간 제약	22.6	8.2	12.8	23.8	35.0	31.3
	사회관계 제약	18.1	4.0	9.7	19.9	29.8	25.5
주거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리거나 이사함	25.2	15.5	22.6	28.8	28.4	30.0
	주거비 부채	42.5	17.6	31.5	47.8	53.5	59.7
교육	학비미납, 학업중단	21.9	15.3	19.5	25.2	25.0	24.2
	학비 부채	34.5	22.9	33.6	43.5	37.8	34.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3] 연령별 만 12세 이후 박탈 경험 현황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계층별 생애 경험의 차이와 사회적 불안

이어서 계층별 생애 경험의 차이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계층별 차이는 귀속지위에 따른 차이로 확인하였다. 생애과정의 시간 순서를 고려할 때, 획득지위는 생애 경험 이후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 귀속지위에 따른 생애 경험의 차이

귀속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1997 외환위기, 2004 신용카드 사태, 2008 금융위기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2014 세월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각 사건이 갖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97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대상은 여성, 부모교육 중졸 이하, 부모 재산이 하층에서 높았으며, 2004 신용카드 사태와 2008 금융위기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코로나19도 경향은 비슷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 차이가 다른 경제위기 사건보다 크지 않았다. 1997 외환위기의 경우 부모 재산 상층과 하층의 차이는 27%p, 2008 금융위기는 19.5%p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상층과 하층의 차이는 14.8%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전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4 세월호와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세월호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의 집단 간 차이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의 차이가 더 컸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기존 경제적 사건들보다 계층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정서적 영향은 하위 계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22〉 귀속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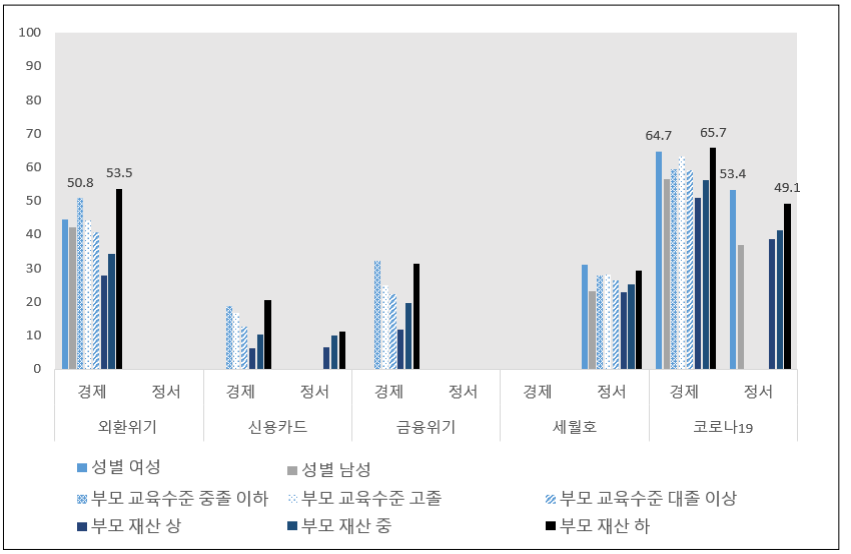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997 외환위기		2004 신용카드		2008 금융위기		2014 세월호		2020 코로나19	
		경제	정서	경제	정서	경제	정서	경제	정서	경제	정서
전체 (n=3.117)		43.3	9.7	15.0	10.2	24.6	12.3	3.1	27.0	60.4	44.9
성별	여성	44.5	9.0	16.0	10.1	25.6	12.1	3.1	31.0	64.7	53.4
	남성	42.1	10.4	14.0	10.3	23.6	12.5	3.2	23.2	56.5	36.9
부모 교육수준	중졸 이하	50.8	8.6	18.7	8.4	32.3	10.8	3.2	27.7	59.4	46.2
	고졸	44.2	9.5	16.6	10.4	24.9	13.3	3.7	28.1	63.2	45.0
	대졸 이상	40.7	10.1	12.6	10.5	22.4	12.1	2.8	26.4	59.1	45.1
부모 재산	상	27.8	9.9	6.1	6.4	11.7	12.6	1.5	22.8	50.9	38.6
	중	34.3	9.4	10.2	10.0	19.6	11.4	3.2	25.1	56.3	41.2
	하	53.5	9.9	20.6	11.1	31.2	12.9	3.5	29.3	65.7	49.1

주: 카이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 대해 음영 처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4] 귀속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정서적 어려움

(단위: %)



주: 〈표 5-2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 도식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귀속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은 대부분 영역에서 유의미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돌봄, 주거 부채, 학비 부채 경험만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졸인 경우는 의료 부채를 제외한 모든 박탈 경험이 대졸인 경우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모든 박탈 경험률이 상층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집단 간 차이가 가장 큰 박탈 영역은 교육이었다. 학비 미납과 학업중단 경험의 상층과 하층의 차이는 25%p였으며, 학비 부채는 28.4%p였다. 주거, 의료 중 미충족 의료 경험의 집단간 차이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 5-23〉 귀속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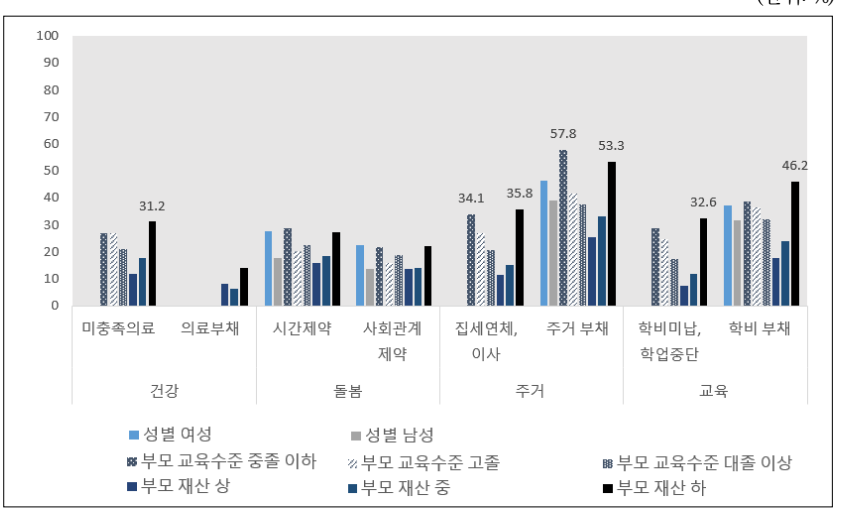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건강		돌봄		주거		교육	
		미충족 의료	의료부채	시간 제약	사회관계 제약	집세 연체 이사	주거 부채	학비 미납 학업중단	학비 부채
전체 (n=3,117)		24.0	10.6	22.6	18.1	25.2	42.5	21.9	34.5
성별	여성	23.6	10.3	27.7	22.6	26.0	46.3	22.9	37.4
	남성	24.3	10.9	17.8	13.8	24.4	39.1	20.9	31.8
부모 교육수준	중졸 이하	26.9	12.9	28.7	21.9	34.1	57.8	28.7	38.6
	고졸	26.9	10.3	20.2	16.0	27.0	41.7	24.8	36.6
	대졸 이상	21.1	10.3	22.4	18.8	20.7	37.7	17.5	32.1
부모 재산	상	12.0	8.2	16.1	13.7	11.4	25.4	7.6	17.8
	중	17.8	6.5	18.4	14.2	15.2	33.3	11.9	23.9
	하	31.2	14.2	27.2	22.0	35.8	53.3	32.6	46.2

주: 카이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에 대해 음영 처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5-15] 귀속지위에 따른 박탈 경험

(단위: %)



주: 〈표 5-2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 도식화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생애 경험과 사회적 불안의 계층 간 차이

주요 사건과 박탈 경험은 각 집단이 그 사건을 경험한 생애주기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하여 귀속지위와 주요 사건 경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귀속지위와 주요 사건 경험의 관계는 세월호는 정서적 어려움을, 나머지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에 관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교육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모 재산 수준에 따른 차이는 세월호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부모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1997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22% 높았으며, 2008 금융위기는 18%, 2020 코로나19는 16%, 2004 신용카드 사태는 12%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1997 외환위기는 당시 태어나지 않았거나, 나이가 어렸던 청년층과 중년층 간 경험률 차이가 컸다. 한편, 모든 연령층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40~44세보다 19~24세, 25~29세 청년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귀속지위와 박탈 경험의 관계는 의료(미충족 의료), 돌봄(시간제약), 주거(집세 연체와 이사), 교육(교육비 미납과 학업중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모 교육수준은 주거와 교육 영역에서 유의미했는데, 부모 교육수준이 중졸인 경우는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집세 연체 혹은 이사를 경험할 확률이 5% 높았으며, 고졸은 대졸 이상보다 학비를 미납하거나 교육중단을 경험할 확률이 4% 높았다. 부모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상층보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 경험을 할 확률이 19% 높았으며, 교육비 미납이나 교육 중단을 경험할 확률은 23%, 집세 연체 혹은 이사 경험 확률은 21%, 돌봄으로 인한 시간 제약을 경험할 확률은 8% 더 높았다. 연령별 차이는

돌봄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대가 40대 중년층보다 돌봄으로 인한 시간 제약을 경험할 확률이 낮았다.

〈표 5-24〉 귀속지위와 주요 사건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1997 외환위기	2004 신용카드	2008 금융위기	2014 세월호(정서)	2020 코로나
부모 교육 (대)	중졸	0.00	0.00	0.04	-0.02	-0.02
	고졸	0.01	0.03	0.00	0.01	0.01
부모 재산 (상)	중	0.05	0.03	0.07**	0.01	0.06
	하	0.22***	0.12***	0.18***	0.05	0.16***
연령 (40~49세)	19~24	-0.21***	-0.11***	-0.06**	-0.10***	0.09**
	25~29	-0.09**	-0.09***	-0.01	-0.03	0.08**
	30~34	-0.02	-0.05*	0.00	-0.05*	0.00
	35~39	-0.01	-0.04	0.01	0.00	0.04
Constant		0.37***	0.13***	0.14***	0.28***	0.46***
사례 수		2,988	2,988	2,988	2,988	2,988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표 5-25〉 귀속지위와 박탈 경험의 관계(Linear probability model)

		건강 (의료 미이용)	돌봄 (시간 제약)	주거 (집세 연체, 이사)	교육 (미납, 학업중단)
부모 교육 (대)	중졸	0.01	-0.01	0.05*	0.04
	고졸	0.02	-0.02	0.03	0.04*
부모 재산 (상)	중	0.05*	0.01	0.02	0.03
	하	0.19***	0.08***	0.21***	0.23***
연령 (40~44세)	19~24	0.01	-0.21***	-0.10***	-0.04
	25~29	0.06*	-0.17***	-0.04	-0.02
	30~34	0.02	-0.07**	0.01	0.02
	35~39	0.01	0.04	0.00	0.02
Constant		0.09***	0.27***	0.15***	0.08***
사례 수		2,988	2,988	2,988	2,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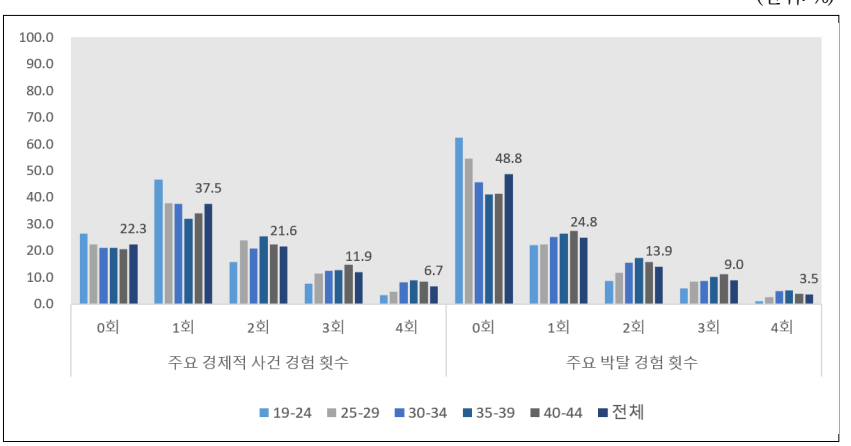
주: # p<.1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박탈의 중복 경험률을 연령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그림 5-16]과 같다.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1997 외환위기, 2004 신용카드 사태, 2008 금융위기, 2020 코로나19로 총 4번의 경제적 사건 경험의 횟수를 분석하였으며, 박탈은 4개 영역 중 〈표 5-25〉에 제시한 4개의 박탈 경험 횟수를 분석하였다.

연령별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횟수와 박탈을 경험한 횟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1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으며, 2번 이상은 40.0%였다. 청년층이 중년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 번이라도 박탈을 경험한 경우는 52.2%였으며, 2회 이상 박탈을 중복해서 경험한 비율은 26.4%였다. 청년보다 중년층의 박탈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35~39세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5-16] 연령별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박탈 중복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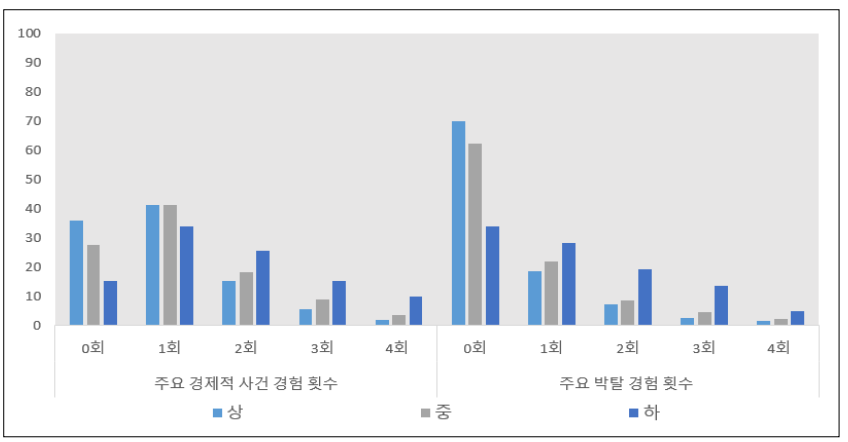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부모의 재산수준에 따른 중복 경험 횟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재산수준이 상층인 경우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박탈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5-17] 귀속지위(부모 재산)별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따른 박탈 중복 경험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앞에서 분석한 계층별 사회적 불안 차이 분석 모형에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박탈 경험 횟수를 더미변수로 변환, 투입하여 귀속지위와 획득지위-생애경험-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사건 횟수만 투입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 보다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으며, 주요 경제적 사건을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박탈 횟수를 추가로 투입해 분석한 결과, 박탈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박탈 경험을 통제한 뒤에도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였다.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직접적인 박탈보다 주요

사건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불안 수준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표 5-26〉 귀속지위에 따른 주요 사건·박탈 중복 경험과 사회적 불안(Linear probability model)

		주요 사건 중복 경험		박탈 중복 경험		전체 통합 모형
		귀속지위	통합모형	귀속지위	통합모형	
부모 교육 (대)	중졸	-0.01	-0.01	-0.01	-0.01	-0.01
	고졸	0.02	0.02	0.02	0.02	0.02
부모 재산 (상)	중	0.01	-0.00	0.02	-0.00	-0.00
	하	0.06*	0.03	0.06**	0.04	0.03
본인교육 (고졸)	대졸		0.03		0.03	0.03
본인 소득(상)	중		0.03		0.03	0.03
	하		0.05		0.06	0.03
연령 (40-44)	19~24	0.04	0.05	0.03	0.05	0.05
	25~29	0.01	0.04	0.01	0.01	0.01
	30~34	0.04	0.02	0.04	0.03	0.04
	35~39	0.02	0.02	0.02	0.02	0.02
주요사건 경제적 어려움 (없음)	1회	0.02	0.02			0.02
	2회	0.06**	0.06**			0.06**
	3회	0.07**	0.06**			0.06**
	4회	0.08**	0.07**			0.07**
박탈 경험 (없음)	1회			0.02	0.02	0.01
	2회			0.03	0.03	0.01
	3회			0.02	0.02	0.00
	4회			-0.00	-0.00	-0.02
Constant		0.72***	0.68***	0.74***	0.69***	0.68***
사례 수		2,988	2,988	2,988	2,988	2,988

주: 1) # p<.10, * p<0.05, ** p<0.01, *** p<0.001.
2) 성별, 지역, 혼인상태 등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앞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청년과 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귀속지위와 획득지위로 구분한 계층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계층별 생애 주요 사건과 박탈 경험, 그리고 계층-생애경험-불안 수준의 누적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전체 분석 대상의 사회적 불안 평균 점수는 4.1점이었으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9%였다. 대부분의 청년과 중년이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30~34세와 25~29세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25~29세 집단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30~34세는 IMF 시기에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 지위를 획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한 집단이다. 과거의 경제적 위험과 현재의 위험이 중첩된 결과일 수 있다.

사회적 불안 수준은 부모의 재산과 본인의 소득계층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19~24세 청년 중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1.6%로 상층(74.8%)보다 높았다. 다른 연령집단에서도 부모의 재산 수준이 낮은 경우에 높은 경우보다 불안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40~44세는 상층인 경우, 불안 수준이 높았다. 청년과 중년이 인식하는 불안의 요인이 다른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획득지위인 본인의 소득계층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는데, 전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정성,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도태 영역 중 불평등 영역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았다. 중년층은 청년층보다 공정성,

불평등 영역의 인식이 높았으며, 청년층은 중년층보다 안전, 도태 영역의 불안 인식이 높았다. 영역별 불안 수준도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더 높았다. 소득계층이 하층이면 공정성, 불평등, 안전, 도태 영역의 불안 수준도 높았다.

부모의 재산 수준, 본인의 소득계층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뒤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6% 높았으며, 본인 소득이 하층인 경우는 상층인 경우보다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11% 높았다. 연령 집단 간 차이는 현재 상태를 통제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규직보다 학생, 미취업자가 사회적으로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컸다. 계층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도 확인되었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상층인 경우보다 공정성, 불평등 영역의 불안 수준이 높았다. 정부 신뢰, 안전, 적응과 도태 영역은 계층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연령별 차이만 일부 확인하였다.

계층에 따른 생애 경험의 차이와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재산 수준이 하층인 경우, 사회경제적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컸다. 주요 영역별 박탈 경험도 부모의 재산 수준과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귀속지위, 주요 사건과 박탈 경험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귀속지위와 박탈 경험이 사회적 불안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주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중복 경험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적 불안 인식이 개인이 속한 계층, 특히 부모의 재산과 본인의 소득계층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단지 소득, 고용 등의 경제적 불안정을 넘어 사회적 불안 수준을 높여, 사회 전체의 불안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제6장

청·중년 사회적 불안과 대처기제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제2절 집단별 대처방식과 사회참여 비교
제3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의 영향
제4절 소결

제 6 장 청·중년 사회적 불안과 대처기제

제1절 분석의 목적과 방법

1. 분석의 목적

이 장에서는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를 분석하고 있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대처방식이 갖는 특징, 사회참여와 사회 불안 간의 관계, 그리고 청·중년이 겪는 여러 영역의 사회적 불안이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 불안이 장기화되어 더 큰 부적응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완충 혹은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20)에서 발표한 '국민을 위한 마음건강지침'에 따르면,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으로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정서이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불안을 인지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를 대처방식이라고 부른다(Lazarus & Folkman, 1984). 대처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당면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적응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이은희, 2004). 만약 개인이 당면한 스트레스 및 불안을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로 남게 되지만, 스트레스 및 불안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 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Moos & Billings, 1982). 청·중년의 이러한 부적응은 향후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 결혼율 및 출산율 감소 등 이후 생애에 있어 여러 가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 불안의 대처기제 중,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사회참여는 가족 및 친구와의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및 조직 내에서의 모든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본 연구가 특별히 사회참여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인은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Webber, 2005). 여기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우울증, 불안 같은 정서적 불행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Williams & Galliher, 2006). 즉, 사회참여는 개인의 네트워크 및 인적 교류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며,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다(Webber, 2005; Webber, Huxley, & Harris, 2011).

사회적 불안은 대처방식의 선택과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한 사회적 불안 요인에 놓인 사회구성원이라 하여도 대처방식의 선택에 따라 결과적인 불안의 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참여는 사회적 불안과 개인 불안에 주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데 거의 이의가 없을 것이다. 대처방식과 사회참여의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점을 지적해왔다.

2. 분석의 배경

가. 불안과 대처방식

Lazarus와 Folkman(1984)은 개인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고 적응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대처방식으로 명명하였고, 대처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문제 중심 대처 방식이다. 문제 중심 대처란 '환경적 요구를 조정하기 위해 대안적인 계획을 개발하고,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더 많이 구하고,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를 다루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 자신의 행동 혹은 환경조건 등을 변화시키려는 인지적 및 행동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말한다(최승애, 정현희, 2004, p. 354). 즉, 적극적인 방식을 통하여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변화시키거나 관리하려는 노력이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로는 정서 중심 대처방식이 있다. 이는 스트레스에서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스트레스의 원인을 무시 혹은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자아와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에만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이루어지는 대처행위'를 일컫는다(윤진희, 2011, p. 8).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인내하려고 시도하는 인지적 및 행동적인 노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최승애, 정현희, 2004, p. 354). 예를 들어, 운동, 이완, 명상, 감정의 해소, 정서적 지지, 과식, 약물복용, 음주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윤진희, 2011; 최승애, 정현희, 2004, p. 354).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사람일수록 문제 중심 대처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1990). 또한, 우울한 사람일수록 문제 중심 대처보다는 정서 중심 대처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oos & Billings, 1982). 국내 연구 중 이정원(2008)의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가 스트레스 지각을 감소시키며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지만,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지각, 불안 및 우울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혜정, 백용매(2006)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감소와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문제 중심 대처이며,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 중심 대처방식은 생활 만족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보면, 문제 중심 대처를 차용한 사람이 정서 중심 대처를 사용한 이보다 사회 불안을 적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조건 문제 중심 대처방식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최승애, 정현희(2004)는 주장하였다.

나.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박희봉, 2006, p. 3). 많은 학자들은 사회참여라는 개념을 광의 그리고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협의의 개념은 한 사회집단이 그 필요와 욕구를 나타내고 동 이익을 옹호하며 특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직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변루나, 김영숙, 현택수, 2011). 광의의 개념은 취업활동, 지역사회 조직 및

단체 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포함한다(박정은, 원영애, 1994; 한경혜, 김주현, 박경숙, Hiroko A., 이재인, 2011).

선행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참여 패턴이 다양하다고 보았다. 허준수(2002)는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은 여가활동 및 사회적 활동 참여가 활발하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태가 나쁜 이들은 사회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정병은, 이기홍, 2009; 허준수, 2002). 또한, 학력 및 소득 역시 사회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참여 정도가 활발하고 사회적 관계가 더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기, 2009). 연령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사회활동 참여 욕구 및 의지가 높았다(정병은, 이기홍, 2009).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공적 성격의 사회활동이라도, 여성은 종교 모임 등의 활동 참여가 높은 반면, 남성은 동창회, 향우회 같은 직업 중심형의 사회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2009).

다음으로, 사회참여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Goggin(2005)은 사회참여를 시민참여의 개념으로 보고, 자원봉사, 시민서비스, 상호부조, 정치참여로 분류하였다. 조용하(2004)는 사회참여를 사회단체 활동, 교육문화 활동, 가족공동체 지향 활동, 감성 활동, 단순 소일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한경혜, 김주현, 박경숙, Hiroko A., 이재인(2011)은 사회참여를 지역사회 모임, 노동조합·동업자 단체, 시민사회 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참여는 주로 정치 활동, 종교 및 친목 모임 활동 그리고 기타 모임 활동 등이 주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에, SNS 참여와 같은 온라인 내에서의 참여를 포함하였다.

3. 분석 방법

사회적 불안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을 사용하였고 총점과 함께 5개의 영역별 사회적 불안을 활용하였다. 또한, 〈표 6-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참여를 온라인 참여, 오프라인 참여, 공적 모임 참여, 사적 모임 참여 그리고 선거 참여로 구분하였다. 온라인 참여로는 지난 1년 동안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오프라인 참여에는 탄원서 및 청원서에 서명한 경험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적 모임 참여에는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같은 단체 소속 여부와 활동 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적 모임 참여로는 종교모임, 취미모임이나 동창모임 등 친목모임 그리고 학부모 모임 및 주민참여 활동을 묻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선거 참여는 2016년부터 2020년에 진행된 선거에 참여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을 묻는 문항을 〈표 6-1〉과 같이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사회참여 등 주요 요인 외 관련 요인의 통제를 위하여 성별(남/여), 세대(청년: 19~34세/ 중년: 35~44세), 학력(중졸 이하/고졸/대졸 이상), 혼인여부(있음/없음), 주거점유형태(월세/전세/자가), 경제활동상태(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8], 장애여부(있음/없음), 거주 지역(17개 시도), 개인 근로소득을 포함하였다.

이 장에서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를 분석한 방식은 아래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그리고 사회 불안 수준에 따라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

18) 일부 분석에서는 경제활동상태를 근로형태로 명명하고, '상용직 임금근로자 /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 고용주·자영업자 / 무급가족 종사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도 하였음.

로,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 청년 그리고 중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참여가 전체적인 사회적 불안 그리고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영역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6-1〉 기타 활용 변수

구분		주요 문항
사회참여	온라인 참여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SNS에 사회적 이슈 관련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프라인 참여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탄원서 및 청원서 서명하기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오프라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공적 모임 참여	귀하는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과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사적 모임 참여	- 귀하는 종교모임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 귀하는 취미모임이나 동창모임 등 친목모임 등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 귀하는 학부모 모임 및 주민참여나 활동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선거 참여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자아존중감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2절 집단별 대처방식과 사회참여 비교

1. 불안 대처방식

가. 청·중년의 집단별 대처방식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물어 보았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사이에서 정서 중심 대처방식 관련 응답이 1,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즉, ‘수면을 취하거나,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25.1%)가 1위를, ‘그냥 참는다’(19.4%)는 2위,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는 응답이 11.2%로 3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 응답으로는 ‘흡연이나 음주 등 유흥/과식/폭식/미식 등을 한다’가 4위(11%), ‘기타 지인과의 교류한다(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가 5위(10.3%)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 및 중년의 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청년은 모든 대처방식에서 중년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이 중년보다 그냥 참기(33.8%), 수면,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44.3%), 그리고 취미/문화생활 혹은 쇼핑(22.1%)을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대처방식 중 유흥/과식/폭식/미식, 가족과의 교류 그리고 운동 및 여행은 청년과 중년 사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6-2〉 전체, 청년 및 중년의 대처방식

(단위: %)

	전체	청년	중년
그냥 참기	19.4	33.8	24.4
의료적 도움	2.1	3.9	2.2
심리상담	1.2	2.4	1.2
수면,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	25.1	44.3	30.9
유흥/과식 /폭식/미식 등	11.0	16.6	16.3
가족과의 교류	8.9	13.5	13.2
기타 지인과의 교류	10.3	18.5	12.4
운동 및 여행	8.2	13.4	11.2
취미/문화생활 혹은 쇼핑	11.2	22.1	11.5
종교 활동	1.7	2.0	3.0
기타	1.0	1.9	1.3
전체	100.0	57.5	4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주요 요인별 대처방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처방식을 살펴보았다. 유흥, 과식/폭식/미식 등을 하겠다는 중년의 응답(38.3%)이 청년(28.9%)보다 많았다. 남성은 유흥/과식/폭식/미식(39.9%)을, 여성은 수면/TV/PC 시청(79.9%)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은 그냥 참는다(63.3%), 중졸 이하는 유흥/ 과식/폭식/미식(50%)이 많았다. 혼인 여부의 경우, 무배우자는 심리 상담(14.3%), 유흥/과식/폭식/미식(42.9%) 등의 응답이 유배우자에 비해 많았다. 주거점유형태별로는,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수면/TV/PC(76.1%), 유흥/과식/폭식/미식(37%)을 주로 하고, 전세거주자는 기타 지인과의 교류(30.5%)를 통해 불안에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자가인 경우에는 가족과 교류(28.8%)한다는 응답이 월세 및 전세에 비해 많았다. 마지막으로, 비장애인은 수면/TV/PC (75.4%)가 많은

반면, 장애인은 기타 지인과의 교류(38.7%)와 의료적 도움(14.7%) 및 심리상담(13.3%)을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6-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대처방식(3개까지 응답)

(단위: %)

구분		그냥 참기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수면/TV/PC	유흥/과식/폭식/ 미식
연령	청년	58.8	6.8	4.2	77.0	28.9
	중년	57.3	5.3	2.7	72.8	38.3
성별	남	59.6	6.5	4.6	70.9	39.9
	여	56.7	5.8	2.5	79.9	25.4
학력	중졸 이하	40.0	5.0	10.0	60.0	50.0
	고졸	63.3	6.2	3.7	76.6	33.9
	대졸 이상	56.3	6.2	3.5	74.8	32.3
혼인 여부	무 배우자	57.1	0.0	14.3	71.4	42.9
	유 배우자	56.9	4.8	3.0	73.5	35.2
주거 점유 형태	월세	54.6	8.4	4.2	76.1	37.0
	전세	61.4	6.5	3.6	74.4	31.7
	자가	57.8	5.1	3.4	75.3	32.0
장애 여부	비장애인	58.4	6.0	3.4	75.4	32.8
	장애인	48.0	14.7	13.3	66.7	37.3
구분		가족과의 교류	기타 지인과의 교류	운동 및 여행	취미/문화생활, 쇼핑	종교 활동
연령	청년	23.5	32.1	23.4	38.5	3.5
	중년	31.0	29.2	26.3	27.0	7.2
성별	남	22.7	27.2	31.4	30.4	4.3
	여	30.9	34.9	17.4	37.0	5.8
학력	중졸 이하	35.0	15.0	35.0	35.0	10.0
	고졸	21.1	32.5	20.6	36.0	2.5
	대졸 이상	28.9	30.4	26.2	32.6	6.0
혼인 여부	무 배우자	42.9	14.3	28.6	14.3	0.0
	유 배우자	38.8	27.7	23.5	27.0	6.5
주거 점유 형태	월세	21.8	30.0	23.7	36.6	5.2
	전세	25.9	30.5	24.8	32.0	5.9
	자가	28.8	31.3	25.2	33.6	4.1
장애 여부	비장애인	26.9	30.7	24.7	33.6	5.0
	장애인	18.7	38.7	20.0	33.3	8.0

주: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에서 '⑪ 기타' 응답을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처방식

근로 형태에 따른 대처방식을 비교하면, 〈표 6-4〉와 같다.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모든 대처방식에서 응답률이 높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들은 유흥/과식/폭식/미식(56.3%), 운동 및 여행(55.4%)과 가족과의 교류(52.1%)가 가장 많았다.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의료적 도움(24.5%)을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용주·자영업자는 종교활동(11.5%)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적 도움(9.4%)이었다. 실업자는 취미/문화생활 혹은 쇼핑(8%), 의료적 도움(7.3%), 수면/TV/PC(7.2%), 그리고 그냥 참기(7%)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인구는 종교 활동(24.2%), 취미/문화생활(24.1%)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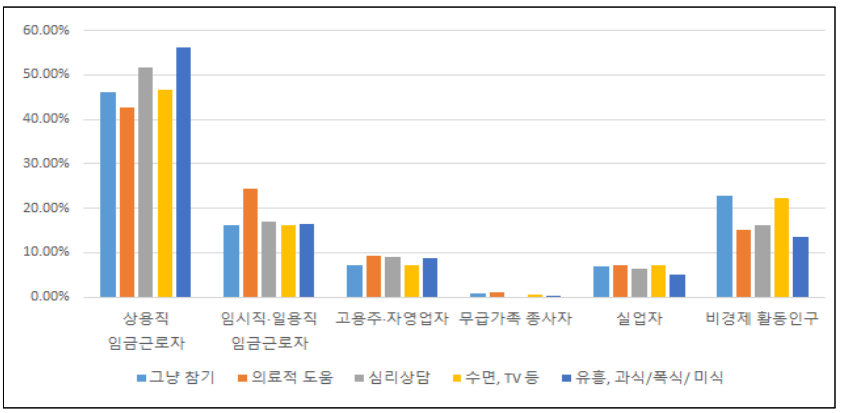
〈표 6-4〉 근로 형태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3개까지 응답)

(단위: %)

구분	그냥 참기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수면/TV/PC	유흥/과식/폭식/미식
상용직 임금근로자	46.1	42.7	51.8	46.6	56.3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16.1	24.5	17.0	16.2	16.4
고용주·자영업자	7.3	9.4	8.9	7.3	8.7
무급가족 종사자	0.7	1.0	0.0	0.6	0.2
실업자	7.0	7.3	6.3	7.2	5.1
비경제활동인구	22.8	15.1	16.1	22.2	13.4
구분	가족과의 교류	기타 지인과의 교류	운동 및 여행	취미/문화 생활, 쇼핑	종교 활동
상용직 임금근로자	52.1	46.0	55.4	43.2	43.9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12.5	17.8	14.9	16.7	15.9
고용주·자영업자	8.5	7.7	7.6	7.9	11.5
무급가족 종사자	0.7	0.8	0.3	0.1	0.0
실업자	4.2	6.0	4.4	8.0	4.5
비경제활동인구	21.9	21.7	17.5	24.1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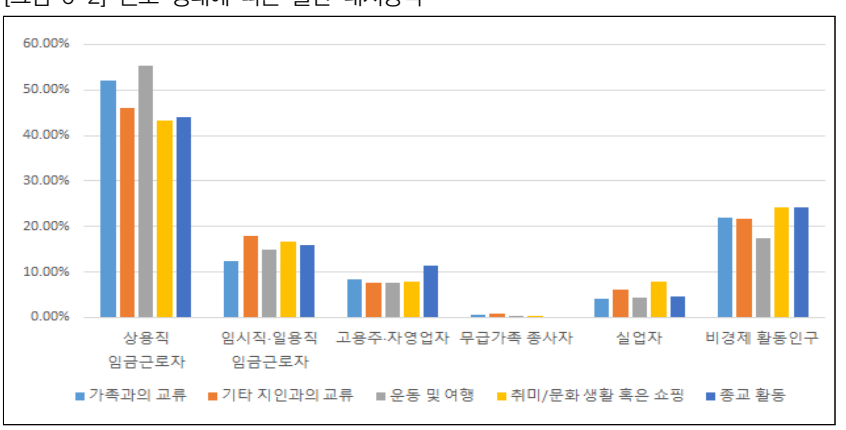
주: 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에서 '⑪기타' 응답을 제외함.
2)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 학생, 군복무 등을 포함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6-1] 근로 형태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6-2] 근로 형태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으로, 개인의 소득계층에 대한 불안 대처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6-5). 소득 1분위의 경우, 취미/문화생활 혹은 쇼핑(29.4%), 그냥 참기(27.3%), 수면/TV(27.3%) 종교 활동(26.1%) 등의 순으로 불안에 대처한다고 응답했다. 소득 2분위는 의료적 도움(38%), 심리상담(36.6%), 기타 지인과의 교류(32.3%) 등을 불안을 느낄 때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득 3분위는 유흥/과식/폭식/미식(23.9%), 의료적 도움(23.4%), 그리고 종교 활동(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득 4분위는 운동 및 여행(31.2%), 유흥/과식/폭식/미식(30.1%), 가족과의 교류(29.1%), 심리상담(2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6-5〉 개인의 소득계층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3개까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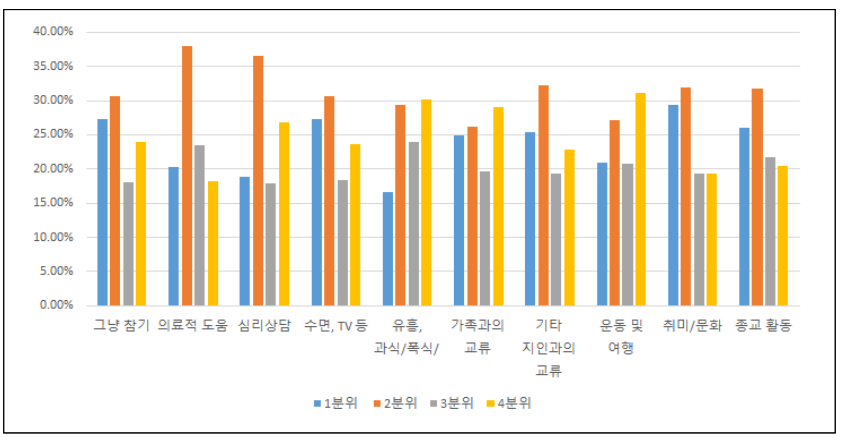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그냥 참기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수면/ TV 등	유흥/ 과식/ 폭식/ 미식
1분위	27.3	20.3	18.8	27.3	16.7
2분위	30.7	38.0	36.6	30.7	29.3
3분위	18.0	23.4	17.9	18.3	23.9
4분위	24.0	18.2	26.8	23.7	30.1
구분	가족과의 교류	기타 지인과의 교류	운동 및 여행	취미/문화 생활, 쇼핑	종교 활동
1분위	24.9	25.4	21.0	29.4	26.1
2분위	26.2	32.3	27.1	31.9	31.8
3분위	19.7	19.4	20.7	19.3	21.7
4분위	29.1	22.8	31.2	19.4	20.4

주: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에서 '⑪기타' 응답을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그림 6-3] 개인의 소득계층에 따른 불안 대처방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3) 거주 지역에 따른 대처방식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사람들은 운동 및 여행(24%), 취미/문화생활 혹은 쇼핑(21.6%), 수면/TV/PC (20.6%)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의료적 도움(9.4%)과 심리상담(8.9%)을 가장 많이 받았다. 대구 사람들은 부산지역 사람들처럼 의료적 도움(5.7%)을 가장 많이 받았고, 기타 지인과의 교류(5.1%), 그냥 참기(4.9%) 순이었다. 인천 사람들은 종교 활동(8.9%), 취미/문화생활 혹은 쇼핑(6.5%) 등을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극복하였다. 광주 사람들은 심리상담(6.3%)과 종교 활동(5.1%)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대전 사람들은 인천 사람과 마찬가지로 종교 활동(3.8%)을 통해, 불안에 대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울산 사람들은 운동 및 여행(2.9%), 기타 지인과의 교류(2.8%), 심리상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사람들은 취미/문화생활/쇼핑(28.9%), 기타 지인과의 교류(28.8%), 종교 활동(28.7%), 가족과의 교류(28.4%)를 가장 많이 택하였다. 강원도 사람들은 의료적 도움(4.7%)과 심리상담(3.6%)으로 나타났다. 충북 사람들은 유흥/과식/폭식/미식(3.8%)인 반면, 충남(세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심리상담(5.4%)이 가장 높았다. 전북 사람들은 가족과의 교류(3.4%)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전남 사람들은 인천, 대전, 경기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활동(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북 사람들은 가족과의 교류(4.7%), 그냥 참는다(4.5%)와 기타 지인과의 교류(4.5%) 순인 반면, 경남 사람들은 의료적 도움(7.3%)과 심리상담(7.1%)을 받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 사람들은 종교 활동(1.9%)과 가족과의 교류(1.8%)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6-6〉 거주 지역과 불안 대처방식 비교(3개까지 응답)

(단위: %)

구분	그냥 참기	의료적 도움	심리상담	수면/ TV 등	유흥/과식/폭식/미식
서울	20.5	19.8	20.5	20.6	19.5
부산	6.2	9.4	8.9	6.1	6.9
대구	4.9	5.7	3.6	4.1	4.2
인천	6.0	4.2	3.6	5.8	6.1
광주	3.2	2.6	6.3	2.6	2.8
대전	3.1	3.6	2.7	3.1	3.6
울산	2.2	1.0	2.7	2.1	2.0
경기	26.5	25.0	25.9	27.6	27.2
강원	2.5	4.7	3.6	2.1	2.1
충북	2.8	3.6	2.7	3.0	3.8
충남(세종)	4.2	4.2	5.4	4.7	3.9
전북	2.9	1.6	0.0	3.0	3.1
전남	3.0	2.1	4.5	3.4	2.6
경북	4.5	4.2	2.7	4.4	4.4
경남	6.1	7.3	7.1	6.1	6.6
제주	1.4	1.0	0.0	1.2	1.0
구분	가족과의 교류	기타 지인과의 교류	운동 및 여행	취미/문화 생활, 쇼핑	종교 활동
서울	20.2	20.0	24.0	21.6	19.7
부산	6.4	5.8	6.1	5.9	5.7
대구	4.9	5.1	4.6	3.5	2.5
인천	5.5	4.7	5.9	6.5	8.9
광주	3.0	3.4	2.3	2.6	5.1
대전	2.6	2.2	2.6	3.0	3.8
울산	2.4	2.8	2.9	1.5	1.3
경기	28.4	28.8	25.2	28.9	28.7
강원	1.8	2.8	2.9	3.2	3.2
충북	2.5	2.7	2.3	2.9	3.2
충남(세종)	4.7	4.6	4.7	4.0	3.2
전북	3.4	3.3	3.1	3.2	1.9
전남	2.5	2.9	2.7	3.0	5.1
경북	4.7	4.5	4.2	3.7	4.5
경남	5.1	5.6	5.2	5.6	1.3
제주	1.8	.8	1.3	1.0	1.9

주: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에서 '⑪ 기타' 응답을 제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사회 불안 수준에 따른 대처방식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그리고 적응/도태 불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6-7〉). 주목할 점은 낮은 수준의 공정성 불안을 인식한 사람들은 수면/TV/PC 등을 통해 불안을 대처한다는 응답(75.7%)이 많았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불평등 불안을 인식한 사람들은 수면/TV/PC 등(75.7%)을 통해 불안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수준의 경쟁/불평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안감에 대처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그리고 낮은 수준의 정부 신뢰 불안을 인식한 사람들은 수면/TV/PC 등(75.7%)을 통해 대처하였다. 중간 수준의 안전 불안을 인식한 사람들은 수면/TV/PC 등(75.6%)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간 수준의 적응/도태 불안을 인식한 사람들은 수면/TV/PC 등(75.3%)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불안감에 대처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6-7〉 사회 불안 수준에 따른 대처방식

(단위: %)

구분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상	중	하	상	중	하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그냥 참기	61.4	52.4	48.6	59.7	52.5	41.2	62.7	57.4	64.1	58.9	50.9	60.9	59.5	51.8
의료적 도움	6.4	5.8	2.7	6.1	6.5	0.0	8.4	5.8	14.1	5.7	5.4	17.4	6.5	3.9
심리상담	3.2	4.3	5.4	2.9	6.3	5.9	3.6	3.6	8.1	3.2	3.9	17.4	3.8	2.1
수면/ TV/ PC	75.4	74.9	75.7	75.7	73.5	70.6	73.6	75.7	74.2	75.6	73.7	60.9	75.3	75.6
유흥/과식/폭식/미식	34.8	29.5	27.0	33.5	31.0	11.8	32.9	33.2	35.4	32.8	32.2	52.2	33.4	29.6
가족과의 교류	24.6	30.6	27.0	25.6	31.5	17.6	20.8	27.8	21.7	26.8	28.0	17.4	25.9	30.8
기타 지인과의 교류	30.3	31.5	43.2	32.0	25.3	58.8	30.8	30.8	27.8	30.9	32.2	21.7	30.2	34.7
운동 및 여행	22.7	28.0	35.1	22.9	31.2	41.2	21.4	25.1	13.6	24.4	31.4	13.0	23.8	29.1
취미/문화생활 혹은 쇼핑	33.3	34.4	29.7	33.6	33.0	52.9	35.6	32.9	34.8	33.6	32.7	39.1	33.6	33.2
종교 활동	4.7	5.8	2.7	4.9	5.8	0.0	8.2	4.6	5.6	4.8	6.4	0.0	4.8	6.6
기타	3.3	2.9	2.7	3.1	3.3	0.0	2.1	3.3	.5	3.3	3.2	0.0	3.3	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사회참여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가. 온라인 참여

〈표 6-8〉은 온라인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SNS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영역의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68.3%로 높았다. 그렇지만 SNS 참여에 따른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그리고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8〉 온라인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분		SNS 참여		
		있다	없다	χ^2
공정성	상	68.3	63.4	7.465*
	중	30.8	35.3	
	하	0.9	1.3	
경쟁/불평등	상	80.7	80.0	2.647
	중	19.1	19.3	
	하	0.2	0.7	
정부 신뢰	중	17.3	14.9	2.851
	하	82.7	85.1	
안전	상	7.4	5.9	3.984
	중	80.9	80.5	
	하	11.7	13.6	
적응/도태	상	0.9	0.7	.517
	중	82.5	82.0	
	하	16.6	17.3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오프라인 참여

〈표 6-9〉는 오프라인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탄원서 및 청원서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영역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67.8%로 확인되었다. 또한, 탄원서 및 청원서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높은 수준의 경쟁/불평등 영역의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83.5%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원서 및 청원서 참여에 따른 정부 신뢰, 안전 그리고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오프라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은 70.2%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 중 중간 수준의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을 인식하는 사람은 88.2%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프라인 집회 및 시위 참여에 따른 공정성, 정부 신뢰 그리고 안전 영역의 불안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9〉 오프라인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 분		탄원서 및 청원서			오프라인 집회 및 시위		
		있다	없다	χ^2	있다	없다	χ^2
공정성	상	67.8	59.7	23.216***	60.0	65.3	2.915
	중	31.4	38.5		38.4	33.6	
	하	0.9	1.8		1.6	1.1	
경쟁/불평등	상	83.5	74.3	42.550***	70.2	81.1	16.752***
	중	16.2	24.6		29.0	18.4	
	하	0.3	1.1		0.8	0.5	
정부 신뢰	중	16.3	14.5	1.669	12.8	15.8	1.501
	하	83.7	85.5		87.2	84.2	
안전	상	6.5	6.1	3.991	6.5	6.3	.353
	중	81.4	79.2		81.6	80.5	
	하	12.2	14.7		11.8	13.2	
적응/도태	상	0.5	1.2	5.109	0.0	0.8	7.435*
	중	81.9	82.7		88.2	81.7	
	하	17.6	16.2		11.8	17.5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공적 모임 참여

〈표 6-10〉은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등 공적 모임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공적 모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높은 수준의 공정성 영역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52.4%로 나타났고, 높은 수준의 경쟁/불평등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은 63.2%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적 모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중간 수준의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을 경험하는 비율은 84.3%로 높았다. 반면, 공적 모임 참여에 따른 정부 신뢰와 안전 영역의 불안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0〉 공적 모임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 분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있다	없다	χ^2
공정성	상	52.4	65.6	13.807**
	중	45.4	33.3	
	하	2.2	1.1	
경쟁/불평등	상	63.2	81.3	35.658***
	중	35.7	18.2	
	하	1.1	0.5	
정부 신뢰	중	10.5	15.9	3.823
	하	89.5	84.1	
안전	상	9.7	6.1	3.856
	중	78.4	80.7	
	하	11.9	13.1	
적응/도태	상	2.2	0.6	6.998*
	중	84.3	82.0	
	하	13.5	17.3	

주: 1) *p<0.05, **p<0.01, ***p<0.001.
2) 귀하는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는 문항의 4점 척도(① 소속된 적이 없다 ②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③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④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중 있다는 ③과 ④ 응답의 백분율을 합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라. 사적 모임 참여

종교모임, 친목모임 그리고 학부모모임 및 주민참여나 활동 등과 같은 사적 모임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의 비율 차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종교모임 참여에 따른 정부 신뢰, 안전 그리고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종교모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낮은 수준의 공정성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60.6%, 낮은 수준의 경쟁/불평등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73.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낮은 수준의 공정성 영역의 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62.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목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중간 수준의 정부 신뢰 불안(86.10%) 그리고 안전 영역의 불안(81.1%)을 느끼는 비율은 높았다. 친목모임에 참여한 사람 중에 높은 수준의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78.8%로 나타났다. 반면, 친목모임 참여에 따른 경쟁/불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모임 및 주민참여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낮은 수준의 경쟁/불평등 영역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7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 모임 및 주민참여나 활동에 따른 공정성, 정부 신뢰, 안전 그리고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11〉 사적 모임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 분		종교모임			친목 모임			학부모 모임 및 주민참여나 활동		
		있다	없다	χ^2	있다	없다	χ^2	있다	없다	χ^2
공정성	상	0.5	1.3	7.456*	1.5	1.0	7.409*	0.4	1.3	5.990
	중	39.0	33.2		36.5	32.3		39.8	33.4	
	하	60.6	65.5		62.1	66.6		59.9	65.3	
경쟁/불평등	상	0.5	0.6	14.517**	0.4	0.6	1.065	0.0	0.6	16.287***
	중	25.9	18.2		19.8	18.9		28.0	18.4	
	하	73.6	81.3		79.8	80.5		72.0	81.0	
정부 신뢰	중	82.9	84.6	.878	86.10	83.30	4.286*	87.9	84.0	2.829
	하	17.1	15.4		13.90	16.70		12.1	16.0	
안전	상	12.6	16.1	4.084	13.9	12.5	7.669*	10.8	13.3	1.529
	중	81.1	77.5		81.1	80.2		83.2	80.3	
	하	6.3	6.4		4.9	7.3		6.1	6.4	
적응/도태	상	19.0	16.8	1.610	20.6	14.8	18.032***	15.4	17.3	2.558
	중	80.0	82.5		78.8	84.3		83.2	82.1	
	하	0.9	0.7		0.6	0.8		1.4	0.7	

주: 1) *p〈0.05, **p〈0.01, ***p〈0.001.
2) '귀하는 종교모임 / 취미모임이나 동창모임 등 친목모임 / 학부모 모임 및 주민참여나 활동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는 문항의 4점 척도(① 소속된 적이 없다 ②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③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④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중 있다는 ③과 ④ 응답의 백분율을 합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마. 선거 참여

선거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6-12〉와 같다. 참고로 여기서 선거 참여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불평등 영역의 불안을 경험한 사람이 81.8%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낮은 수준의 정부 신뢰를 인식한 사람은

85.6%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 참여에 따른 공정성, 안전, 그리고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영역의 불안을 경험한 사람은 66.5%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 중에 높은 수준의 경쟁/불평등 영역의 불안을 인식한 사람은 81.5%로 확인되었다. 반면, 선거 참여에 따른 정부 신뢰, 안전 그리고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12〉 선거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

(단위: %)

구 분		2016년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참여	비참여	χ^2	참여	비참여	χ^2
공정성	상	66.5	64.8	1.706	66.5	64.8	6.323*
	중	32.6	33.5		32.9	32.8	
	하	1.0	1.8		0.9	2.8	
경쟁/불평등	상	81.8	75.4	9.747**	81.5	76.1	20.724***
	중	17.8	23.2		18.1	21.1	
	하	0.4	1.4		0.4	2.8	
정부 신뢰	중	14.4	19.1	4.375*	14.7	19.7	3.184
	하	85.6	80.9		85.3	80.3	
안전	상	5.6	9.2	5.627	5.9	9.4	4.773
	중	81.2	78.9		81.0	80.6	
	하	13.2	12.0		13.1	10.0	
적응/도태	상	0.5	1.1	2.413	0.6	1.1	1.793
	중	81.6	83.8		81.9	84.4	
	하	17.8	15.1		17.5	14.4	

주: 1) *p<0.05, **p<0.01, ***p<0.001.
2) '귀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는 문항의 4점 척도(⓪ 투표권이 없었음 ① 투표했다 ② 투표하지 않았다 ⑨ 모르겠다) 중 ⓪과 ⑨를 제외하고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음으로,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낮은 수준의 정부 신뢰를 경험한 사람은 85.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 참여에 따른 공정성, 경쟁/불평등, 안전 그리고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인식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선거 참여에 따른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계속)

구 분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참여	비참여	χ^2	참여	비참여	χ^2
공정성	상	1.0	1.9	2.496	1.1	1.6	.769
	중	33.0	34.4		34.1	33.3	
	하	66.0	63.8		64.8	65.2	
경쟁/불평등	상	81.3	77.5	3.551	80.5	78.3	3.958
	중	18.2	21.6		19.0	20.6	
	하	0.4	0.9		0.4	1.1	
정부 신뢰	중	14.8	19.6	4.859*	15.2	17.9	2.067
	하	85.2	80.4		84.8	82.1	
안전	상	6.0	7.8	1.561	7.7	6.1	3.014
	중	80.9	79.7		81.2	80.5	
	하	13.1	12.5		11.1	13.4	
적응/도태	상	0.6	0.6	1.655	0.7	1.1	2.692
	중	81.9	84.7		81.9	83.9	
	하	17.6	14.7		17.5	14.9	

주: 1) *p〈0.05, **p〈0.01, ***p〈0.001.
2) '귀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는 문항의 4점 척도(⓪ 투표권이 없었음 ① 투표했다 ② 투표하지 않았다 ⑨ 모르겠다) 중 ⓪과 ⑨를 제외하고 분석.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3절 사회적 불안에 대한 대처기제의 영향

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불안은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온라인 참여, 오프라인 참여, 사적 모임 참여 그리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정성 불안은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그리고 선거 참여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온라인 참여, 오프라인 참여, 사적 모임 및 공적 모임 그리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

경쟁/불평등은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그리고 선거 참여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온라인 참여, 오프라인 참여, 사적 모임 및 공적 모임과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정부 신뢰는 안전,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온라인 참여, 오프라인 참여와 정적 상관관계인 반면, 선거 참여와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안전 불안은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과는 정적 상관관계였지만, 온라인 참여, 오프라인 참여, 사적 모임 및 선거 참여 그리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은 공적 모임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사적 모임과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1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사회적 불안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온라인 참여	오프라인 참여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선거 참여	자아존중감
사회적 불안	1											
공정성	.860***	1										
경쟁/불평등	.806***	.701**	1									
정부 신뢰	.673***	.488***	.413***	1								
안전	.791***	.567***	.478***	.446***	1							
적응/도태	.684***	.439***	.445***	.300***	.520***	1						
온라인 참여	-.037*	-.058**	-.036*	.043*	-.059**	-.013	1					
오프라인 참여	-.040*	-.054**	-.077***	.066***	-.066***	.004	.325***	1				
사적 모임	-.073***	-.075***	-.062**	-.028	-.042*	-.068***	-.101***	-.096***	1			
공적 모임	-.034	-.064***	-.105***	-.031	.019	.073***	-.108***	-.095***	.276***	1		
선거 참여	.010	.076***	.084***	-.085***	-.039*	-.029	.003	-.057**	.056**	-.011	1	
자아존중감	-.162***	-.109***	-.066***	-.060***	-.162***	-.242***	-.005	.042*	.113***	.032	.037*	1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참여의 영향

가. 청·중년 전체

전체 응답자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6-14〉). 모형 1은 선거 참여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주거점유형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월세에 거주할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적·사적 모임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친목 모임과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목 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남성일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모형 3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온·오프라인 참여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집회 및 시위 참여, 성별, 그리고 주거점유형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남성일수록, 월세에 거주할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다.

모형 4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선거 참여, 공적·사적 모임 참여 그리고 온·오프라인 참여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친목 모임 참여, 탄원서 및 청원서 참여, 성별 그리고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목 모임 참여가 적을수록, 탄원서 및 청원서 서명에 참여할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4〉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	B	B
상수		91.512***	93.992***	89.674***	94.659 ***
선거 참여		-.769			-1.105
공적·사적 모임	공적 모임		.117		.267
	종교 모임		-1.110		-1.072
	친목 모임		-1.359**		-1.512**
	학부모/주민 참여		-.884		-.918
온오프라인	SNS			.819	.968
	탄원서 및 청원서			.924	1.129*
	집회/시위			-1.712*	-1.589
통제변수	성별	3.130***	3.049***	2.903***	2.804***
	학력	.858	.926	.760	1.024*
	주거점유형태	-.584*	-.549	-.617*	-.514
	경제활동상태	.094	.063	.084	.044
F(p)		11.706***	9.106***	9.685***	7.200***
R2 (수정된 R2)		.019(.017)	.024(.021)	.022(.020)	.028(.024)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청년

다음으로 청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6-15〉와 같다. 모형 1의 경우, 선거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과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적·사적 모임을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친목 모임, 성별 그리고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목 모임 참여가 저

조할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모형 3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온·오프라인 참여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탄원서 및 청원서 참여, 성별, 그리고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원서 및 청원서 서명에 참여할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다.

모형 4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선거 참여, 공적·사적 모임 참여 그리고 온·오프라인 참여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친목모임 참여, 탄원서 및 청원서 참여, 성별 그리고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목모임 참여가 적을수록, 탄원서 및 청원서에 서명할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 청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	B	B
상수		88.255***	91.009 ***	85.096***	87.762***
선거 참여		.208			-.186
공적·사적 모임	공적 모임		2.099		2.051
	종교 모임		-1.040		-1.053
	친목 모임		-1.600*		-1.862**
	학부모/주민참여		-1.374		-1.232
온오프라인	SNS			.509	.606
	탄원서 및 청원서			1.866**	2.071**
	집회/시위			.028	-.073
통제 변수	성별	3.623***	3.540***	3.214***	3.060***
	학력	1.605*	1.764**	1.606*	1.773**
	주거점유형태	-.549	-.493	-.543	-.483
	경제활동상태	.116	.100	.107	.085
F(p)		9.536***	7.183***	8.300***	5.846***
R2 (수정된 R2)		.027(.024)	.032(.028)	.032(.029)	.039(.032)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중년

〈표 6-16〉은 중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의 경우, 선거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적 사적 모임을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적·사적 모임 관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성별이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3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온·오프라인 참여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회 및 시위 참여 그리고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회 및 시위 참여가 저조할수록, 남성일수록 불안 수준이 높았다.

모형 4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선거 참여, 공적 사적 모임 참여 그리고 온오프라인 참여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선거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그리고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거 참여가 저조할수록, 집회 및 시위 참여가 저조할수록, 남성일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6〉 중년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B	B	B
상수		98.603 ***	98.867 ***	97.686***	106.002***
선거 참여		-2.706			-2.877*
공적·사적 모임	공적 모임		-1.653		-1.188
	종교 모임		-1.056		-1.170
	친목 모임		-1.058		-1.070
	학부모/주민참여		-.591		-.573
온오프라인	SNS			1.245	1.436
	탄원서 및 청원서			-.463	-.250
	집회/시위			-4.025**	-3.550**
통제변수	성별	2.056**	1.984**	2.083**	2.064**
	학력	-.852	-.949	-1.172	-.751
	주거점유형태	-.572	-.576	-.692	-.574
	경제활동상태	.191	.168	.193	.115
F(p)		4.479***	3.298**	4.357***	3.416***
R2 (수정된 R2)		.017(.014)	.020(.014)	.024(.018)	.032(.022)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3.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대한 사회참여의 영향

가. 청·중년 전체

전체 응답자의 사회참여가 영역별로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6-17〉과 같다. 공정성 영역의 불안은 SNS 참여, 탄원서 및 청원서 서명, 공적 모임, 친목모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참여가 활발할수록, 탄원서 및 청원서 서명에 참여할수록, 공적 모임 및 친목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공정성 영역의 불안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불평등 영역의 불안은 탄원서 및 청원서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공적 모임, 종교모임, 학부모 및 주민참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과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원서 및 청원서 서명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집회 및 시위 참여가 적을수록, 공적 및 종교 모임 참여가 적을수록, 학부모 및 주민 참여가 적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쟁/불평등 영역 불안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신뢰 영역의 불안은 SNS 참여, 선거 참여, 공적 및 친목 모임 참여와 더불어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참여가 활발할수록,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공적 및 친목 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여성일수록 정부 신뢰 영역의 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영역의 불안은 공적 모임 참여, 성별, 그리고 주거점유형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 모임 참여가 활발할수록, 남성일수록, 월세에 거주할수록 안전 영역 불안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은 탄원서 및 청원서 참여, 공적 및 친목 모임 참여와 성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원서 및 청원서 서명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공적 모임에 참여할수록, 친목 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남성일수록,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7〉 전체 응답자의 사회참여가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B	B	B	B	B
상수		2.638***	2.712***	1.373***	1.948***	1.860***
온오프라인	SNS	.049*	.003	.034*	.030	.009
	탄원서/청원서	.069**	.082***	.029	.006	-.035*
	집회/시위	-.054	-.080**	-.036	.004	.053
선거 참여		-.017	.034	-.072**	-.048	-.036
공적·사적 모임	공적모임	-.104*	-.097**	-.061*	.087*	.075*
	종교모임	-.031	-.058**	.026	-.034	-.013
	친목모임	-.052**	.009	-.034*	-.032	-.060***
	학부모/주민참여	-.020	-.072*	-.014	-.002	.010
통제변수	성별	.039*	.093***	-.055***	.111***	.056***
	학력	.095***	.099***	-.002	-.004	.008
	주거점유형태	-.022	-.018	-.005	-.022*	-.008
	경제활동상태	.001	.007	.001	-.001	.007
F		6.376***	15.140***	3.590***	6.005***	4.762***
R2 (수정된 R2)		.025(.021)	.057(.053)	.014(.010)	.023 .020)	.019(.015)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청년

청년의 사회참여가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표 6-18). 공정성 영역의 불안은 탄원서 및 청원서 서명, 친목모임 참여,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과 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원서 및 청원서에 서명할수록, 친목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공정성 영역의 불안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불평등 영역의 불안은 탄원서 및 청원서 참여, 공적 모임 참여, 학부모 및 주민 참여, 성별, 학력 및 주거점유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탄원서 및 청원서에 참여할수록, 공적 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학부모 및 주민 참여가 저조할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에 거주할수록 경쟁/불평등 영역의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신뢰 영역의 불안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정부 신뢰 영역의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영역의 불안은 공적 모임 참여와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 모임 참여가 활발할수록, 남성일수록 안전 영역의 불안 인식은 높았다.

마지막으로,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은 탄원서 및 청원서 참여, 집회 및 시위 참여, 공적모임 참여, 친목모임 참여 그리고 학부모/주민참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탄원서 및 청원서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할수록, 공적 및 학부모/주민참여에 참여할수록, 친목모임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 주거점유형태, 그리고 경제활동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성일수록, 월세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가 활발할수록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은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았다.

〈표 6-18〉 청년의 사회참여가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B	B	B	B	B
상수		2.580***	2.625***	1.374***	1.724***	1.559***
온오프라인	SNS	.037	.004	.033	.010	.005
	탄원서/청원서	.083**	.104***	.028	.024	-.041*
	집회/시위	-.023	-.054	-.021	.055	.080*
선거 참여		-.016	.061	-.061	-.037	-.003
공적·사적 모임	공적모임	-.065	-.119*	-.006	.176**	.134**
	종교모임	-.026	-.044	.016	-.034	-.033
	친목모임	-.090**	.006	-.034	-.017	-.040*
	학부모/주민참여	-.043	-.118*	-.080	.003	.130*
통제변수	성별	.053*	.115***	-.092***	.132***	.081***
	학력	.101***	.118***	.001	.003	.028
	주거점유형태	-.024	-.033**	.002	-.017	-.023*
	경제활동상태	.004	.008	-.002	.000	.013**
F		4.858***	13.889***	2.969***	4.988***	5.309***
R2 (수정된 R2)		.033(.026)	.088(.082)	.021(.014)	.034(.027)	.036(.029)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중년

중년의 사회참여가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표 6-19). 공정성 영역의 불안은 SNS 참여와 공적 모임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참여가 활발할수록, 공적 모임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수록, 공정성 영역의 불안 수준은 높았다.

경쟁/불평등 영역의 불안은 집회 및 시위 참여와 종교모임 참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회 및 시위 참여가 저조할수록, 종교모임 참여가 적을수록 경쟁/불평등 영역의 불안 인식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 신뢰 영역의 불안의 경우, 선거 참여와 공적 모임 참여가 영향을 미쳤다. 즉,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공적 모임 참여가 적을수록 정부 신뢰 영역의 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영역의 불안은 친목모임 참여와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목모임 참여가 적을수록, 남성일수록 안전 영역의 불안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은 친목모임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목모임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적응/도태 영역의 불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9〉 중년의 사회참여가 영역별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공정성	경쟁/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도태
		B	B	B	B	B
상수		2.838***	2.975***	1.393***	2.211***	2.198***
온오프라인	SNS	.067*	.003	.038	.052	.012
	탄원서/청원서	.047	.046	.031	-.020	-.026
	집회/시위	-.088	-.110*	-.060	-.064	.025
선거 참여		-.025	-.023	-.088*	-.063	-.086
공적·사적 모임	공적모임	-.135*	-.069	-.089*	.008	-.008
	종교모임	-.033	-.064*	.032	-.042	-.001
	친목모임	.006	.012	-.035	-.057*	-.087***
	학부모/주민참여	-.043	-.048	.003	.016	-.023
통제변수	성별	.015	.044	-.004	.076**	.020
	학력	.036	.034	.006	-.016	-.042
	주거점유형태	-.025	.003	-.016	-.028	.014
	경제활동상태	.004	.011	.000	.000	.004
F		2.140*	3.150***	1.999*	2.534**	2.564**
R2 (수정된 R2)		.020(.011)	.029(.020)	.019(.010)	.024(.014)	.024(.015)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4.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가. 청·중년 전체

사회참여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 =10.683, p <.001), 2단계(F =5.655, p <.001), 3단계(F =17.434, p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7%(수정된 R제곱은 1.5%), 2단계에서 0.9%(수정된 R제곱은 0.7%), 3단계에서 3.3%(수정된 R제곱은 3.1%)로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참여와 사적 모임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 참여를 많이 할수록, 사적 모임 참여가 활발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적 모임 참여(β= -.075 → -.057)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좀 더 낮게 나타나, 사적 모임 참여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0〉 사회참여와 한국사회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상수		9.438***		101.815***		111.955***	
사회참여	온라인 참여	-.048	-.012	-.948	-.035	-.999	-.037
	오프라인 참여	.183**	.059	-.790	-.037	-.593	-.028
	사적 모임	.278***	.114	-1.263***	-.075	-.965**	-.057
	공적 모임	.037	.005	-1.058	-.020	-1.018	-.019
	선거 참여	.030	.034	.075	.012	.107	.018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1.074***	-.155
F		10.683***		5.655***		17.434***	
R2 (수정된 R2)		.017(.015)		.009(.007)		.033(.031)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앞에서 사적 모임 참여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6-21〉과 같이 사적 모임 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21〉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Z	p
사적 모임 참여 → 자아존중감 → 사회적 불안 인식	-5.029***	<.001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나. 청년

청년의 사회참여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9.879, p <.001), 2단계(F=6.472, p <.001), 3단계(F=13.968, p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2.7%(수정된 R제곱은 2.4%), 2단계에서 1.8%(수정된 R제곱은 1.5%), 3단계에서 4.5%(수정된 R제곱은 4.2%)로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참여와 사적 모임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 참여를 많이 할수록, 사적 모임 참여가 활발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참여와 사적 모임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프라인 참여가 저조할수록, 사적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프라인 참여(β= -.093 → -.080)와 사적 모임 참여(β= -.086 → -.061)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조금 낮게 나타나, 오프라인 참여와 사적 모임 참여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2〉 청년의 사회참여와 한국사회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상수		8.847***		103.603***		113.617***	
사회참여	온라인 참여	-.013	-.003	-.641	-.023	-.656	-.023
	오프라인 참여	.238**	.073	-2.047***	-.093	-1.778**	-.080
	사적 모임	.417***	.152	-1.607**	-.086	-1.135*	-.061
	공적 모임	-.017	-.002	1.001	.017	.982	.017
	선거 참여	.016	.020	.226	.042	.243	.045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1.132***	-.167
F		9.879***		6.472***		13.968***	
R2 (수정된 R2)		.027(.024)		.018(.015)		.045(.042)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앞에서 오프라인 참여와 사적 모임 참여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로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 참여와 사회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적 모임 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23〉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Z	p
오프라인 참여 → 자아존중감 → 사회적 불안 인식	-2.716**	0.007
사적 모임 참여 → 자아존중감 → 사회적 불안 인식	-4.646***	〈.001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다. 중년

중년의 사회참여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2.681, p <.05), 2단계(F=4.310, p <.01), 3단계(F=7.325, p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1.0%(수정된 R제곱은 0.6%), 2단계에서 1.6%(수정된 R제곱은 1.2%), 3단계에서 3.2%(수정된 R제곱은 2.8%)로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결과,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참여와 선거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모임 참여가 활발할수록, 선거 참여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참여, 공적 모임 참여 그리고 선거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적 및 공적 모임 참여가 저조할수록, 선거 참여가 낮을수록 사회적 불안 인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불안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거 참여(β= -.066 → -.058)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서 좀 더 낮게 나타나, 선거 참여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중년의 사회참여와 한국사회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상수		9.794***		103.650***		112.678***	
사회 참여	온라인 참여	-.098	-.027	-1.359	-.052	-1.449	-.056
	오프라인 참여	.114	.040	.750	.037	.855	.042
	사적 모임	.138*	.066	-.959*	-.063	-.832	-.055
	공적 모임	.056	.009	-2.880*	-.063	-2.829*	-.062
	선거 참여	.091*	.066	-.655*	-.066	-.570*	-.058
매개 변수	자아존중감					-.922***	-.128
F		2.681*		4.310**		7.325***	
R2 (수정된 R2)		.010(.006)		.016(.012)		.032(.028)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앞에서 선거 참여가 한국사회 불안 인식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6-25〉와 같이 선거 참여와 사회적 불안 인식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6-25〉 소벨 테스트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Z	p
선거 참여 → 자아존중감 → 사회적 불안 인식	-2.134*	0.033

주: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제4절 소결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청·중년의 사회 불안에 대한 대처방식, 사회참여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 그리고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과 각 영역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사회참여가 사회적 불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가 있다. 첫째, 문제 중심 대처방식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응답자는 정서 중심 대처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대처방식은 감정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문제를 잠시 잊게 해줄 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방식과 정서 중심 대처방식을 비교함으로써, 문제 중심 대처방식이 정서 중심 대처방식보다 효과적이며 심리적 적응을 가져온다고 보고한 것이 그 예이다(이정원, 2008; 김혜정, 백용매, 2006; 최승애, 정현희, 2004). 따라서 개인들에게 문제 중심 대처방식을 선택하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상황에서 갑자기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 생겨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성이 높은 정신건강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다른 참여방식과 달리 탄원서, 청원서를 통한 참여는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원서, 청원서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하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탄원서, 청원서가 사회적 불안을 높였다기보다는 이러한 사회참여를 하는 이들의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서 탄원서, 청원서를 통하여 불안이 높은 청·중년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분석, 고찰하는 것이 높은 불안 수준의 청·중년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이 기타 소통의 장에서 그들의 의견이 개진될 기회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적 모임은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담을 가지지 않고 참여하여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공간들이 확충 중에 있다.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청·중년의 모임기회는 청·중년이 건강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물적 기반이 될 수 있고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낮추어 긍정적인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사회 불안 경감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자조모임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공적 및 사적 모임 참여가 사회 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및 사적 모임에 참여할수록 사회 불안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참여는 통상 자발적인 의지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건강상태, 학력, 소득,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참여 모습을 보인다(이현기, 2009; 정병은, 이기홍, 2009; 허준수, 2002). 이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 수준에 따라 개인들의 사회참여가 차이를 보였다. 이렇듯 개인의 특성, 연령 그리고 사회 불안 수준 등 복합적인 속성들을 고려하여, 모임 참여 유인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불안에 대항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성(social connectednes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Lee, Dean, & Jung,

2008). 즉, 높은 사회적 연결성은 자존감을 높이고, 이는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선행연구들은 말하고 있다(Ashida & Heaney, 2008; Twenge & Campbell, 2002; Williams & Galliher, 2006). 따라서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자조 모임을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치되, 정신건강 소외계층이나 위험집단뿐만 아니라 넓게는 정신장애인 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예방프로그램, 자기통제 능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 챙김(mindfulness)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해 물리적 접근이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신기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제안

제1절 주요 결과와 시사점
제2절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안

제 7 장 결론: 주요 분석 결과와 정책제안

제1절 주요 결과와 시사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과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자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구조, 사회적 불안의 요인, 그리고 사회적 불안의 대처기제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불안의 측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때는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제 측면을 포괄하는 문항 구성이 유용하고 한국(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측정할 때는 '공정성', '경쟁과 불평등', '정부 신뢰', '안전', '적응과 도태'로 하위 영역이 구성되는 사회적 불안의 측정이 유용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단문으로 측정하는 사회적 불안은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과 상당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정 내 아내와 남편의 역할 구분을 수용하는 여부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수준이 상이하였고 해석에서 단문의 사회적 불안 인지측정방식은 모호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

둘째, 사회적 불안의 수준과 구조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다. 국가 단위의 사회적 불안은 2019년에 2018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은 변화를 거듭하

여 왔고 최근 불안 수준이 높아졌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측정한 결과, 불안 수준이 높았다.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한 사회적 불안의 인지는 전체 평균 4.14점으로 우리나라 청·중년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지수화된 불안 측정도구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불안 수준이 3.7점을 넘기고 있었다. 사회적 불안의 영역별로 보면 경쟁/불평등과 공정성에서의 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우리나라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의 구조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정부 신뢰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불안의 하위 영역이라는 점이었다. 사회적 불안의 하위영역과 사회적 불안, 개인 불안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그리고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망 분석에서도 정부 신뢰와 공정성은 중심적인 불안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이 결과는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정책에서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 청년과 중년의 사회적 불안에서 불안이 심한 영역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년과 중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요인들의 영향이 더 강하였다. 즉 청·중년이 그 집단 내 연령으로 구분된 집단별 특이성보다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으로 사회적 불안이 상이해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청년과 중년의 연령을 구분하여 이 두 집단을 구분, 분리하는 정책보다 이들의 일상에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제 요인에 대응하는 종합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중년의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정책대상을 표적화할 경우에도 연령보다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세 번째 주요 분석 결과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요인의 영향과 관련된다. 사회적 불안의 요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연구 결과로는 취업, 성, 미래

무망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아동이 있는 여성의 불안이 높아 가치관의 변화와 현실의 괴리가 여성의 불안을 높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구주의 배우자가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았던 것도 이러한 점을 추정하도록 한다.

건강과 장애 여부도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서만 이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거의 전 연령에서 건강과 장애 여부는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만 청·중년의 경우 건강문제나 장애문제를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청·중년에서도 건강과 장애의 문제를 취업, 사회참여, 미래전망 등에서 고려하고 이러한 요인이 현재와 미래의 불안과 관여되는 정도를 완화시키려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청·중년의 취업 여부는 당연히 사회적 불안에 주는 영향이 컸다. 다만 취업여부뿐 아니라 취업한 일자리의 문화 등 여건도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타 경제적 요건은 사회적 불안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었다. 본인의 소득계층, 부모의 재산수준은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대도시의 청·중년이 사회적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정부 신뢰에서 불안이 높았다. 대도시 청·중년의 높은 불안은 주거 불안정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점유형태가 비자가인 경우 사회적 불안이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청년의 경우 미래 무망감은 사회적 불안에 특히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의 전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은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불안의 요인과 관련된 주요 분석 결과 중 하나는 사회적 불안에 대한 인식이 경험과 비교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경향이 발견되었

다는 것이다. 인식 중 차별인식은 사회적 불안에 특히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경험의 영향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층이 더 부정적 경험 빈도가 높은데 이들의 경험은 인식을 통하여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물적 기반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물적 기반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안에 영향을 주는 제 인식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물적 기반 개선을 정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청·중년은 대처기제 중 친목모임이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사회참여와 사회적 불안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청·중년의 오프라인 참여기회를 높이는 것, 그리고 반드시 목적이 분명한 참여 기회뿐 아니라 건강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참여기회를 늘리는 것이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각종 노력이 청·중년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책이 특정 물적 조건을 개선하는 시도라 하여도 해당 정책이 청·중년의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중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청·중년의 자존감 등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한층 세련된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안

사회적 불안은 예방과 대응이 모두 필요한 현상이다. 사회적 불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 있다. 정책 제안은 사회적 불안을 감지하고 사전 대응을 준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과 사회

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제반 요인에 대응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사회적 불안의 주요 요인 점검과 모니터링 기제 구축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댓가를 치르느라 사회구성원들은 온갖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사회적 불안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요한은 사회적 불안의 만성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서면자문에서 "개인의 트라우마처럼 한 사회가 그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적 트라우마(사회적 참사)를 겪고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불안은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사회적 불안이 만성화되면) 이 불안과 긴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뿐더러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이 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언급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인다.

김문조, 박형준(2012)의 연구는 사회정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불만은 내향적 체념이 아닌 외향적 분노의 형태로 표출될 경향이 크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 불안의 한국적 특수성은 불안자체에 있다기보다 그 전가 양식(mode of attribution) 및 표출양식(mode of expression)의 행로를 결정짓는 높은 사회적 불신과 불공정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문조, 박형준, 2012, p. 639).

사회적 불안의 변화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검체계는 사회적 불안의 수준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위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관리체

계에 대해서 이미 국제기구들은 많은 관심을 두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착수하였다(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 2012, p. 310).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험을 점검하고 요인을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 종합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문제인식에 아직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국제기구는 사회적 불안을 모니터링하는 기제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우선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특징 때문에 사회 불안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정량적 모니터링은 가능한데 아래의 원칙을 고려하면 양화되는 매개요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측정 가능하고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지표를 우선하고 둘째, 사회적 불안은 복잡한 것이 특징인데 이를 반영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트위터 분석은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계량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 2012, p. 294). 요는 사회적 불안을 감지하는 데 의미를 지니는 특정 행위를 찾는 것이다. 사회 불안의 전조에 대한 해석은 사회나 정치가 선택, 해석하는 일종의 틀(frame)에 따르므로 이 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 2012, p. 302)

우리나라 사회적 불안의 근저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들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확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히 경험 중인 불안정성의 심화, 경쟁과 불평등 문제의 악화 등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안에도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중 무엇이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요인인지,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차별적인 우리만의 별도 요인

이 작용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앞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볼 때 공정성에 대한 신뢰 수준, 불평등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전망, 사회참여 수준,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수준 등 주요 요인들이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감지하는 중요한 매개 지표들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안과 관계가 깊은 지표들은 변화될 수 있다. 정부 신뢰, 공정성, 실업률, 불평등은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데 적절하고 용이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은 시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누가 무엇을 어떤 주기로 점검하고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하고 이를 안정적인 위기감지 체계의 수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청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개별 정책수준에서 제안하기보다 청·중년의 정책에서 무엇을 더 고려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개별 정책 단위의 정책 개선은 그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청·중년 대상 사회정책에서 반영하여야 하는 정책적 고려 요소를 제안하는 것에 집중한 이유는 이 연구가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초점으로 한 연구이므로 그 함의에 한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청·중년에 대한 정책의 설계와 집행은 정책영역을 넘어 패키지화된 종합적 대응이 되어야 하며, 청·중년의 다양한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각종 요인들이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은 청·중년의 집단마다 상이하였다.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 사회적 불안에 작용하는 방식도 단순하지 않았다. 사회적 불안의 특정 영역에는 긍정으로, 다른 영역에는 부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청·중년 내 하위 집단의 사회적 불안의 경험도 다양하고 복잡하였다. 사회적 불안의 복합적 제 측면을 고려할 때 사회적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별로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은 모두 182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 정책들은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참여·활동, 복지·생활안정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세정 외, 2020, p. 255). 이러한 정책들이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면 그 정책의 기획과 추진에서 보다 종합적이어야 하지만, 한편 정책의 설계는 청·중년 내부의 불안의 요인이 되는 특성을 공유하는 각 집단을 대상으로 각 집단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맞춤형 패키지 정책으로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여야 한다.

서면자문 중 아래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 "청년과 중년 집단 내 이질적 특성에 대응하고 그 불안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미시적인 정책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정책의 대상을 '청년', '중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특성을 구분하되 정책의 집행의 분절성(교육, 복지, 노동 등)을 탈피해야 하며, 이행 과정(또는 상태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안요인을 관리·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19]

청·중년의 가장 핵심적 인생 과제인 취업만 하여도 초기 입직과 재취업으로 과제가 동일하지 않고 장애요인도 취업기회의 부족과 같은 사회적

19) 이 내용은 정지운(2020)의 서면자문 중 정책제언의 일부이다.

요인과 건강, 정서적 문제, 가족 내 돌봄 부담 등 개인 및 가구 요인 등으로 다양하다. 취업지원에서도 정책설계가 청·중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정교하고 세련된 것이어야 실효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청년이 해당하는 사업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각종 주거지원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할만한 기초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되는 정책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청·중년의 불안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서야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청·중년의 실태와 정책의 적응성에 대한 기초정보를 꾸준하게 모아나가야 한다.

청·중년 내부 각 집단의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을 대전제로 앞의 분석 결과 중 주요 결과를 참조하여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정리하였다. 제안하는 정책의 순서가 정책의 중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혀둔다.

둘째, 사회적 통합, 참여의 기제로서 일자리 지원의 의미를 재구축하고 그 기회제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청·중년의 일자리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은 청년 대상 정책 중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과제의 수나 예산의 측면에서 규모가 작지 않다. 2019년 기준 청년 정책 182개 중 일자리 사업은 94개로 61.4%를 차지하였다(김기헌 외, 2020. p. 9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내일채움공제제도, 공공부문 청년의 무고용제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고용지원제도들이 운영 중이며 일부 효과들이 검증되고 있다. 초기 입직의 경험이 이후 일 경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청년지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청년취업이나 구직지원은 단순하게 소득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

으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는 청·중년의 사회적 참여의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기본이 된다. 청·중년의 일자리 지원은 기회의 제공이라는 수량적 측면뿐 아니라 일에 대한 의미부여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 발전 가능성, 자신의 적성·전문성을 일자리 선택의 기준으로 하는 집단의 사회적 불안이 낮았다. 일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도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소득의 원천, 안정성 확보만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 기여로서의 참여로 일이 갖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표 7-1〉 182개 관리과제 청년정책 분류체계 중분류별 정책 과제 수 및 예산

(단위: 개, 억 원, %)

구분		청년정책 과제 수	청년정책 예산 규모 (2019년 기준)
일자리	취업	70 (38.5)	41,124 (18.9)
	창업	24 (13.2)	5,826 (2.7)
교육 · 훈련	교육비	8 (4.4)	41,208 (18.9)
	교육·연수·실습	33 (18.1)	8,292 (3.8)
주거	주택공급	10 (5.5)	41,095 (18.8)
	주거비	3 (1.6)	78,442 (36.0)
참여·문화 ·활동	참여·활동	8 (4.4)	1,010 (0.5)
	권리	9 (4.9)	41 (0.02)
복지·금융 ·건강	금융	6 (3.3)	150 (0.07)
	소득·자산	9 (4.9)	545 (0.2)
	건강	2 (1.1)	444 (0.2)
전체		182 (100.0)	218,178 (100.0)

자료: 변금선, 김기헌, 하형석, 이용해.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외.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부분공개 자료). 국무조정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98에서 재인용.

청·중년의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 이후 직장의 조직문화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새로운 일터 문화를 기대하는 청·중년은 입직 이후 일터의 문화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 최근 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직장 내 교육이나 갑질 처벌 등의 개선방안들이 고안되고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일의 의미는 일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일하는 환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터의 기성세대와 청·중년 세대의 조직문화에 대한 기대가 갖는 격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일터 문화를 조성하는 데 민과 관이 공히 더 많이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방식이지만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개인의 경험 차이를 반영하는 서비스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의 청·중년 대상 일자리 사업은 취업정보의 제공과 자문, 그리고 필요한 교육기회와 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과연 청·중년의 취업의 장애가 정보부족과 취업과정의 경험부족과 미숙함, 그리고 일정한 소액의 금전적 기반 부족이 취·창업 장애의 대표적인 요소들인가를 묻고 확인하여야 한다. 청·중년의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장애는 이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서울시의 청년취업지원이 정신적, 정서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 소기의 효과를 얻은 경험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청년 정책에서 서비스 지원은 아직 비중이 작다. 서비스 지원은 전형적으로 활동능력이 낮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관행을 가져왔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청년은 서비스 필요가 높은 집단은 아니다. 그러나 청·중년 집단에서도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각종 사회문제로부터 유발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

다. 서비스의 확충은 전문인력의 양성, 공간의 구성,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정책을 위한 기반조성을 필요로 한다. 즉 이러한 정책방향을 수용하더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되기 어렵다. 청·중년의 취업을 방해하는 제반 장애요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요인 중 서비스로 대응하여야 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차근하게 준비하는 정책적 노력, 중기기획이 필요하다.

〈표 7-2〉 청년 정책의 지원형태별 예산액(2019 기준)

(단위: 억 원, %)

구분		금전 지원	서비스 지원	금전 + 서비스 지원	전체
일자리	취업	30,785(74.9)	5,674(13.8)	4,665(11.3)	41,124(100.0)
	창업	1,222(21.0)	4,354(74.7)	250(4.3)	5,826(100.0)
교육·훈련	교육비	41,148(99.9)	0(0.0)	60(0.1)	41,208(100.0)
	교육·연수·실습	544(6.6)	183(2.2)	7,566(91.2)	8,292(100.0)
주거	주택공급	0(0.0)	41,095(100.0)	0(0.0)	41,095(100.0)
	주거비	78,442(100.0)	0(0.0)	0(0.0)	78,442(100.0)
참여·문화·활동	참여·활동	0(0.0)	1,010(100.0)	0(0.0)	1,010(100.0)
	권리	0(0.0)	41(100.0)	0(0.0)	41(100.0)
복지·금융·건강	금융	150(100.0)	0(0.0)	0(0.0)	150(100.0)
	소득·자산	545(100.0)	0(0.0)	0(0.0)	545(100.0)
	건강	0(0.0)	444(100.0)	0(0.0)	444(100.0)
전체		152,836(70.1)	52,801(24.2)	12,541(5.7)	218,178(100.0)

자료: 변금선, 김기헌, 하형석, 이용해.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헌 외.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부분공개 자료). 국무조정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98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서비스가 유사한 공통점을 지닌다. 그 공통점은 현금지원과 달리 표준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비스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서비스의 다양성, 전문성, 차별성을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기본적이고 민간이 관여하기에는 역부족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선도적이고 차별적 대응이 중요한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대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청·중년의 경우 단순하게 소득지원만으로는 불안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대상 정책의 적극성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하고 있다. 청년수당이라는 정책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내용은 청년 중 미취업 청년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청년수당이라기보다는 청년취업지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인상을 준다. 성남시는 일정 연령의 청년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지급기한을 최대 4분기로 하였으므로 기본소득과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전 대상층을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유사 정책과 차이를 보였다. 만약 기본소득이 제도로 수용되는 날이 온다고 하여도 사회는 구성원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의무의 수행은 청·중년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인 제도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표 7-3〉 청년수당 지원사업

구분	대상	지원액	지급방법
청년구직 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진행하는 청년	월 30만 원×최대 3개월 = 총 90만 원	현금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2017. 1. 1. 이전 서울 거주,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5,000명(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졸업예정자 포함)	월 50만 원×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 50만 원씩 지급
경기도 청년 카드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200명(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졸업 예정자 포함)	월 50만 원×최대 6개월 = 총 300만 원	경기청년카드 발급 후 지출액 만큼 통장 입금
성남시 청년 배당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 (1992. 7. 2.~ 1993. 7. 1. 출생)	월 25만 원×최대 4분기 = 총 10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분기별 지급
강원도 청년수당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 청년, 대학생(졸업 예정자, 휴학자), 특성화고, 창업, 소상공인 종사, 취·창업 교육 이수자,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제대 군인 등 2,517명	월 30만 원×최대 3개월 = 총 90만 원	강원상품권으로 지급
대전시 청년취업 희망카드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6,000명	월 30만 원×최대 6개월 = 총 180만 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차감
경북 청년 복지카드	중소기업에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5~39세 청년 1,800명(경북 주소지, 연봉 3,000만 원 미만 등)	월 50만 원×2회(5월, 7월) = 총 100만 원	복지카드(추후 100만 원 일괄 지급 예정)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2천 명(졸업 유예자 및 구직자)	월 50만 원씩 연간 지급 = 최대 240만 원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지출액 만큼 통장 입금)
광주 청년 드림 (Dream)	1기: 광주 거주 중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140명 2기: 중위소득 70% 이하, 만 19~29세 청년 240명	1기: 5개월 간 일자리 경험 + 매달 10만 원 2기: 광주청년 교통수당 매달 6만 원×5개월	1기: 현금 지급 2기: 교통카드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수당 모음zip.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7. 9. 16. 인출; 김문길 외.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59-60에서 재인용.

셋째, 사회안전망의 강화, 특히 격차의 축소와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불안에 불평등, 사회경제적 여건은 큰 영향

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격차 축소와 기초적인 삶의 보장은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데 매우 긴요하다.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실효성이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20]이다. 격차의 축소와 기초적 삶의 보장은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을 낮추고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선택으로 인한 결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청·중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첫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대기업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큰 폭으로 확대하여,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줄이고, 필요할 때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을 확대하는 방식[21]" 등의 다양한 격차 축소의 정책이 고려될 수 있다. 국제기구들이 사회적 불안에 주목한 동기 중 주요 동기는 불평등의 악화였다. 이는 격차 축소가 갖는 의미를 암시한다.

소득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래형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적극 고안해 보아야 한다. 기초보장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 중 하나는 '내가 빈곤해지면 기초보장의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을 과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예상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보장은 보장제도로 사회구성원의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되는 것 못지않게 그 제도를 사회구성원이 인지하도록 하고 구성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선별적 제도보다 보편적 제도가 이러한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향후 기본소득, 보편적 사회서비스 같은 보편적 제도로 기초적 삶을 보장하고 그 재원은 행정 정보

20) 한경훈(2020)의 서면자문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21) 이승호(2020)의 서면자문 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로 확인이 가능한 소득에 기초하여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적어도 기초적인 삶의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확고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도의 건강성을 고려하자면 선별주의 제도에서는 자산조사의 엄밀성과 제도의 포괄성을 공히 달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넷째, 공정성과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은 주로 공정성과 경쟁, 정부 신뢰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그리고 사회적 불안에 주관적 인식이 경험보다 강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할 때 공정성 인식이 개선되고 정부 신뢰가 높아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서 일관성과 정책변화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청·중년 정책의 설계와 추진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 방향에 따라 일관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결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는지, 정책결정에서 사회적 공유와 참여가 확보되었는지를 따져볼 일이다. 정부 신뢰는 정책의 개선으로만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변화가 개선이라 하여도 너무 잦은 변화이거나 변화에 대한 인지나 이해가 어렵다면 정부 신뢰를 높이지 못할 위험이 크다.

넷째, 자존감을 높이는 각종 상담이나 교육 등의 대응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존감은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을 낮추는 주요 정서였다. 서면자문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지적한 대응기제는 자존감의 강화였다. “기본적으로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내재적 동기의 원천인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황성용(2020)의 서면자문 중 내용은 여러 참여자의 공통적 지적이었다.

건강하게 소통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등

한시 된 조화의 경험을 쌓아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령기의 과도한 경쟁 경험, 낙오되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위기의식의 잦은 경험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고민해볼 일이다. 순수한 상호작용의 경험 기회를 늘리고 사회적 불안의 경험이 개인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님을 인식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불안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정신건강서비스 등 기타 전문적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적극 추진할 정책 중 하나이다. 문재인정부는 청년 정책으로 사회서비스를 통한 청년 활동 공간의 제공, 문체부의 청년 활동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김기헌 외, 2020. p. 112).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청년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지원하되, 온라인보다는 면대면의 오프라인 기회를 늘리는 방식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돌봄 부담의 사회화, 성차별 관행이 남아 있는 일터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여성의 불안을 높이는 가치관의 혼동과 일-가정 양립갈등을 줄이는 정책은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 정책으로서도 의의를 지닐 것이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교육의 몫도 크게 작용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 사회의 관행은 과거의 관행에서 더디게 변화 중이다. 실제 성역할과 여성의 일 가정양립을 구현하는 실질적 제도화 및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여성의 불안은 여성의 사회적 불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적 불안은 곧 남성의 사회적 불안,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사회적 불안과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상경. (2020).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미발간).

고성수. (2020).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미발간).

고용노동부. **전국 청년수당 모음zip**.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17. 9. 16. 인출.

구인회. (2020).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미발간).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경쟁정책연구부. (2012). **미래전략 해외사례 연구**.

김기헌, 유민상, 변금선, 배정희, 권향원, 김창환, … 배진우.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부분공개 자료)**. 국무조정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ishdu3773tAhVXZt4KHeBJBCYQFjAAegQIAhAC&url=http%3A%2F%2Fwww.opm.go.kr%2Fopm%2Finfo%2Fpolicies.do%3Fmode%3Ddownload%26articleNo%3D128567%26attachNo%3D100662&usg=AOvVaw2ZV4LQue1p4LzXSGuU30BB에서 2020. 12. 8. 인출.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조, 박형준. (2012).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한국인. **사회와이론, 2012, 11**, 611-643.

김미혜, 문정화, 성기옥. (2014). 성인의 생애주기별 주관적 행복감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4**(4), 857-875.

김연아, 정원오. (2016). 비정규직의 세대 간 전승: 부모세대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세대의 비정규직 여부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50**, 334-377.

김지경, 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주희, 유정원, 송인한. (2015).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

회연구, 35(3), 42-70.

김태형. (2010). **불안증폭사회**. 위즈덤하우스.

김혜정, 백용매. (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우울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3), 683-699.

김홍중. (2009).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김희삼. (2015).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제54호.** 1-8.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남춘호, 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기 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91-128.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20). **공지사항 –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 건강 지침.** http://www.knpa.or.kr/file/%EC%BD%94%EB%A1%9C%EB%82%9819_%EC%8B%AC%EB%A6%AC%EB%B0%A9%EC%97%AD%EC%9D%84_%EC%9C%84%ED%95%9C_%EB%A7%88%EC%9D%8C%EA%B1%B4%EA%B0%95%EC%A7%80%EC%B9%A8.pdf에서 2020. 11. 6. 인출.

류한수. (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 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345-356.

문선희. (2017). **중년 기혼여성의 우울감에 대한 가족가치관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문요한. (2020).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미발간).

미스핏츠. (2015). **청년, 난민 되다: 미스핏츠 동아시아 청년 주거 탐사 르포르타주**. 서울: 코난북스.

박수애, 홍영오, 송관재. (2003). **사회 불안의 유발요인**. 미발표 자료.

박정은, 원영애. (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박천규, 이수욱, 손경환. (2009). 가구생애주기를 감안한 주택수요특성 분석 연구. **국토연구**, 171-187.

박형준. (2001). **성찰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의암출판사.

박희봉. (2006). 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1-23.

변금선. (2015). 가구 소득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취업 이행기간 및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8**(1), 129-161.

변금선. (2018a).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변금선. (2018b).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 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궤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변금선, 김기헌, 하형석, 이용해. (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변루나, 김영숙, 현택수. (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1**(4), 315-344.

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경현, 이경순. (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사회비교 및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327-343.

성정혜, 김춘경. (2019). 기혼 직장여성의 가족관련 가치관이 일-가정양립 갈등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여성연구, 101**(2), 111-133.

송관재, 홍영오, 박수애. (2004).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적 불안의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에른스트 디터 란터만. (2019). **불안사회: 혐오와 광신으로 물든 현대사회를 말하다** (이덕임, 역). 책세상. (원서출판 2016).

유민봉, 심형인. (2013).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합의이론을 통한 범주의 발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19**(3), 457-485.

윤진희. (2011). **중년 여성 당뇨병 환자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 우울 및 자가간호행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석사 논문.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이상영, 정진욱, 황도경, 손창균, 윤시몬, 채수미, 차미란, 김효진. (2015).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호. (2020).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미발간).

이원진.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지위 변화와 우울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2**(4), 249-274.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시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삭회지: 건강, 9**, 25-52.

이정원. (2008). **스트레스 대처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상태불안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석사 논문.

이중훈, 박병탁, 정성덕, 강복수, 정종학. (1984). 불안척도에 의한 노인들의 정신건강. **영남의대학술지, 1**(1), 121-128.

이현기. (2009). 생산적 노화활동으로서 노인자원봉사활동: 인적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5**, 317-346.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훈구. (2004). **사회심리학적 안녕-사회 불안, 신뢰 그리고 행복**. 법문사.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장재열. (2020).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미발간).

전상진. (2017). 외환위기와 청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한국 사회구조와 생활세계의 변화**(pp. 133-16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지혜. (2010).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51-80.

정병은, 이기홍. (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953-970.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 김용한.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인관, 최성수, 황선재, 최율.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7**, 12-59.

정지운. (2020).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미발간).

조권중. (2014).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조성호, 菅 桂太(스가 케이타), 渡邊 雄一(와타나베 유이치), 四方 理人(시카타 마사토), 김유경, 김지민. (2017).**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용하. (2004).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조혜정, 염동문, 권혁창. (2020). 청장년층 가구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 연령별 비교. **인문사회 21, 11**(2), 2091-2102.

주은우. (2004). [특집 : 위기의 청년] 419 시대 청년과 오늘의 청년. **문화과학, 37**, 86-117.

최승애, 정현희. (2004). 역기능적 태도, 스트레스 지각, 대처방식, 스트레스 장애 간의 구조경로 분석. **상담학 연구, 5**(2), 353-366.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

탁진국. (2010). 실직상태 지속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변화: 종단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687-698.

통계청. (2019). **사회조사.** 통계청.

통계청. (2020. 6. 18.). 2019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3171&pageNo=1&rowNum=10&navCount=10

&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82%AC%ED%9A%8C%EC%A7%80%ED%91%9C에서 인출.

통계청. (2020. 11. 18.). 2020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24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82%AC%ED%9A%8C%EC%A1%B0%EC%82%AC+%EA%B2%B0%EA%B3%BC**에서 인출.

통계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heckFlag=N에서 2020. 11. 22. 인출.

한경혜. (2009). **Social engagement of the Korean young old: Gendered social engagement**. Presentedat the 62nd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 USA.

한경혜, 김주현, 박경숙, Hiroko A., 이재인. (2011). 도시지역 연소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동기 요인간의 관련성. **한국노년학, 31**(4), 1189-1208.

한경훈. (2020).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미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승헌, 임다혜, 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87-126.

한준, 김수정, 이윤석, 심재만, 박명준, 전상진, 최종렬, 김백영, 임동근, 조은주. (2017). **외환위기 이후 20년, 한국 사회구조와 생활세계의 변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허준수. (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227-247.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29-160.

황서연. (2017. 10. 30.). 청년의 나이는 몇 살일까. **오마이뉴스**. http://www.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340에서 2020. 11. 25. 인출.

황성용. (2020). **'청·중년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서면자문 결과**(미발간).

Alesina, A., & Perotti, R. (1996).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40*(6), 1203-1228.

Armour, C., Fried, E. I., Deserno, M. K., Tsai, J., & Pietrzak, R. H. (2017). A network analysis of DSM-5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correlates in US military vetera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45*, 49-59.

Ashida, S., & Heaney, C. A. (2008). Differential association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nectedness with structural features of social networks and the health status of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Health, 20* (7), 872-893.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Vol. 17). London: Sage.

Borsboom, D., & Cramer, A. O. J. (2013). Network analysis: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 91-121.

Boutyline A., & Vaisey. S. (2017). Belief Network Analysis: a Relational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5), 1371-1447.

Chen, J. & Chen, Z. (2008). Extend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for Model Selection with Large Model Spaces. *Biometrika, 95*(3), 143-155.

Costantini, G., Epskamp, S., Borsboom, D., Perugini, M., Mottus, R., Waldorp, L. J., & Cramer, A. O. (2015). State of the art

personality research: A tutorial on network analysis of personality data in R.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54, 13-29.

Cramer, A. O., Sluis, S., Noordhof, A., Wichers, M., Geschwind, N., Aggen, S. H., Kendler, K. S., & Borsboom, D. (2012). Dimensions of normal personality as networks in search of equilibrium: You can't like parties if you don't like peop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4), 414-431.

Elder, G. H., & O'Rand, A. M. (1995). Adult lives in a changing society. In Cook, K.S. Fine, G. A., & House, J. S. (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Boston, MA: Allyn and Bacon. 452-475.

Elder, G. H., & Pavalko, E. K. (1993). Work careers in men's later years: Transitions, trajectories, and historical change. *Journal of Gerontology, 48*(4), S180-S191.

Elman, C., & O'Rand, A. M. (2004). The Race Is to the Swift: Socioeconomic Origins, Adult Education, and Wage Attainment1.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123-160.

Epskamp, S., & Fried, E. I. (2018). *A tutorial on regularized partial correlation networks*. Psychological Methods.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dx.doi.org/10.1037/met0000167.

Epskamp, S., Borsboom, D., & Fried, E. I. (2018). Estimating Psychological Networks and their Accuracy: a Tutorial Paper. *Behavior Research Methods, 50*(1), 195-212.

Epskamp, S., Cramer, A., Waldorp, L., Schmittmann, V. D., & Borsboom, D. (2012). qgraph: Network Visualizations of Relationships in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1), 1-18.

Fried, E. I., Epskamp, S., Nesse, R. M., Tuerlinckx, F., & Borsboom, D. (2016). What are 'good' depression symptoms? Comparing the centrality of DSM and non-DSM symptoms of depression in a network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89*, 314-320.

Gilbert, D. T., & Wilson, T. D. (2007). Prospection: Experiencing the Future. *Science, 317*(5843). 1351-1354.

Goggin, J. (2005). What do we man by civic engagement? *Journal of transformati ve education, 3*(3), 236-253.

Grupe, D. W., & Nitschke, J. B. (2013). Uncertainty and anticipation in anxiety: an integrated neurobiolog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4*(7), 488-501, https://doi.org/10.1038/nrn3524.

ILO. (2011). *World of Work Report 2011-Making Markets Work for Jobs*.

ILO. (2012). *World of Work Report 2012-Better jobs for a better economy.*

ILO. (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Repairing the economic and social fabric*.

ILO. (2014). *World of Work Report 2014: Developing with jobs*.

ILO. (2015).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15*.

ILO. (2016).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16*.

ILO. (2017).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17*.

ILO. (2018).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18*.

ILO. (2019).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19*.

ILO. (2020).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0*.

IMF (2020). *Measuring Social Unrest Using Media Reports*. IMF Working Paper.

Jones, P. J., Mair, P., and McNally, R. J. (2018). Visualizing

Psychological Networks: A Tutorial in R. *Frontiers in Psychology, 19*(9), 1742-.DOI=10.3389/fpsyg.2018.01742.

Jovanović, A., Renn, O. & Schröter. R. (2012). *Social Unrest.*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Keefer, P. & Knack, S. (2000). *Polarization, politics and property right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418*.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linger Publishinging Co.

Lee, R. M., Dean, B. L., & Jung, K. (2008). Social connectedness, extraversion, and subjective well being: Testing a media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 414-419.

Lui, C. K., Chung, P. J., Wallace, S. P., & Aneshensel, C. S. (2014). Social status attain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7), 1134-1150.

Marshall, V. W., & Mueller, M. M. (2003). Theoretical roots of the life-course perspective. In Heinz, W. R. & Marshall, V. W. (Eds.), *Social Dynamics of the Life Course. Transitions, Institutions, and Interrelations*. New York: Walter de Gruyter, Inc. 3-32.

Miller, S. M. (1990). *Learned Resourcefulness: on coping skills, self-regulation and adaptive behavior*. New York: Springer.

Moos, R. H., & Billings, A. G.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In Goldberger, L. & Breznitz, S.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NY: Free Press. 212-230.

OECD. (2011). *Future Global Shocks: Improving Risk Governance.*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OECD. (2012).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Social Unrest*.

OECD. (2014).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3.

OECD. (2015). *OECD insights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OECD. (2019). *Trends Shaping Education 2019*. Paris: OECD Publishing.

OECD.Data. *Economy*.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OECD.Data. *Government*.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OECD.Data. *Society*. https://data.oecd.org/에서 2020. 11. 23. 인출.

OECD.Stat. *Health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1. 2. 인출.

OECD.Sta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0. 30. 인출.

OECD.Stat. *Labour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1. 2. 인출.

OECD.Stat.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 10. 30. 인출.

Ponticelli, J., & Voth, H. J. (2020). Austerity and anarchy. Budget cuts and social unrest in Europe, 1919–2008.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8*(1), 1-19.

Renn, O., Jovanović, A., & Schröter. R. (2011). *Social Unrest.* OECD Publishing.

Schmittmann, V., Cramer, A., Waldorp, L., Epskamp, S., Kievit, R., & Borsboom. D. (2013). Deconstructing the construct: a network perspective on psychological phenomena. *New Ideas in Psychology, 31*(1), 43-53.

Schröter, R., Jovanovic, A., & Renn, O. (2014). Social Unrest: A Systemic Risk Perspective. *In: Planet@Risk, 2*(2), 125-134.

Settersten, R. J. (2003). Rethinking social policy: Lessons of a life-course perspective. In Settersten Jr., R. A. (Ed.), *Invitation to the life course: Toward new understandings of later life*. Amityville,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191-224.

The GDELT Project. *GDELT 2.0 Event database*. https://www.gdelt project.org/에서 2020. 11. 12.~13. 인출.

Twenge, J. M., & Campbell, W. K. (2002). Self esteem and socioeconomic statu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6*(1), 59-71.

van Borkulo, C. D., Epskamp, S., & Millner, A. (2016). *Network Comparison Test: Statistical comparison of two networks based on three invariance measures (R package Version 2.2.1)* [Computer Software].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 /NetworkComparisonTest/index.html.

Van Winkle, Z., & Fasang, A. (2016). Complexity in Employment Life Courses in Europe in the Twentieth Century—Large Cross-National Differences but Little Change across Birth Cohorts. *Social Forces, 96*(1), 1-29.

Webber, M. (2005).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In Tew, J. (Ed.), *Social perspectives in mental health. Developing social models to understand and work with mental distress*. Jessica Kingsley Publishers, London, 90-111.

Webber, M., Huxley, P., & Harris, T. (2011). Social capital and the course of depression: six-month p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9*(1-2), 149-157

Williams, K. L., & Galliher, R. V. (2006). Predicting depression

and self-esteem from social connectedness, support, and competenc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8), 855-874.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응답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현재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불안과 그 원인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의 불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생명윤리위원회(IRB) 제2020-48호]을 받아 진행되며 응답해 주시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됨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동의서에 작성해주신 귀하의 성함과 연락처는 조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을 위해 활용될 뿐이며, 결과 분석이나 해석 시 귀하의 모든 개인적 정보 및 기타 정보는 코드화되어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됩니다. 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현황 등의 개인정보는 조사가 종료된 직후 폐기됩니다.

조사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로 10,000원의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 조사기간: 2020년 9월 2일부터 약 3주일 간
◇ 조사기관: ㈜비에프리서치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후 조사참여에 동의합니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우리사회에 대한 인식

문1.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다	별로 불안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불안하다	매우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있는 삶을 누리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5)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범죄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우리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2)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3) 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3.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보통이다	믿을 수 있다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4. 귀하는 부모세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세대의 소득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5.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삶의 수준, 소득수준, 근로지위 등)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낮다	약간 낮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문6.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삶의 수준, 소득수준, 근로지위 등)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매우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7. 우리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차별이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③	④	⑤
(2) 연령으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5) 학력으로 인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6) 교육 기회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7) 취업 기회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8) 승진 기회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9) 소득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10) 부(부동산 등 재산)의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문8. 다음의 상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2)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부모라면 자녀가 결혼할 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문9. 귀하는 학업, 일, 또는 돌봄 및 가사노동에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 나 자신의 휴식이나 여가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10. 귀하는 평소 윗세대와 청년세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윗세대와 청년세대에 대해 모두 응답해 주세요.

	윗세대 (약 20세 정도 차이나는 윗세대)					청년세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고집이 세고, 폐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사회를 위해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오랜 경험과 연륜, 신선한 발상 등으로)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Ⅱ. 응답자의 경험

문11. 귀하는 만12세 이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건강	(1) 돈이 없어서 아프지만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 병원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①	②
돌봄	(3)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시간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	②
	(4)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돌보느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①	②
주거	(5)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렸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6) 주거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①	②
교육	(7) 돈이 없어서 학비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①	②
	(8) 학비 때문에 빚을 내본 적이 있다.	①	②

문12. 귀하는 다음의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성별에 따른 차별	①	②
(2) 연령으로 인한 차별	①	②
(3) 장애인에 대한 차별	①	②
(4) 외모로 인한 차별	①	②
(5) 학력(또는 학벌)으로 인한 차별	①	②
(6) 직업 및 고용지위로 인한 차별	①	②
(7) 소득 및 부(재산)로 인한 차별	①	②
(8) 지역에 의한 차별	①	②

문13. 아래 사건으로 인해 실직이나 소득감소 또는 정서적 문제 등의 변화를 경험한 가족(부모, 자녀, 형제 등)이 있습니까? *생계를 같이하지 않은 가족도 포함

	있다		없다	모르겠다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 등)		
(1) 1998년 외환위기	①	②	③	⑨
(2) 2003년 카드대란	①	②	③	⑨
(3) 2008년 금융위기	①	②	③	⑨
(4) 2014년 세월호 사고	①	②	③	⑨

문14-1. 귀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 아르바이트 등 모든 취업형태 포함)

① 코로나 이전에도, 현재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② 기존과 동일한 근로시간을 유지하였다.
③ 실직을 경험하였다.
④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휴업 포함).
⑤ 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문14-2. 귀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소득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기존의 소득을 유지하였다).
② 소득이 감소하였다.
③ 소득이 증가하였다.

문15. 귀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의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건강 악화 또는 치료 중단	①	②
(2) 학습 환경 악화 또는 학업 중단	①	②
(3) 고용 불안 또는 소득 감소	①	②
(4) 가족 돌봄 부담 가중	①	②
(5)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①	②
(6) 기타_____	①	②

문16. 귀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감염, 건강 악화 또는 치료 중단 등 건강문제
② 학습 환경 악화 또는 학업 중단
③ 고용 불안 또는 소득 감소
④ 가족 돌봄 부담 가중
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⑥ 기타_____

문17. 귀하는 얼마나 자주 다음의 상황을 경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요즘 전보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공연히 두려워진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사소한 일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신경이 극도로 약해져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만사가 순조로울 것 같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손발이 떨리고 안절부절하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머리가 아프고 목덜미가 무겁거나 혹은 허리가 아프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쉽게 무기력하고 피곤해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하게 오래앉아 있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어지러워서 고생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졸도하거나 졸도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무리없이 숨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손에 쥐가 나거나 저려서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소화가 안되어 고생을 한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	①	②	③	④
(17) 내 손은 평소 심하게 땀이 나지 않고 차지 않게 유지된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화끈거린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쉽게 잠이 들고 깊이 잔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꿈자리가 사납다.	①	②	③	④

문18.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주로 하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 3순위까지 중복응답 가능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그냥 참는다
② 약물 복용 등 의료적 도움을 받는다
③ 심리상담을 받는다.
④ 수면을 취하거나, TV 시청 또는 PC나 스마트폰 이용을 한다
⑤ 흡연이나 음주 등 유흥, 과식/폭식/미식 등을 한다
⑥ 가족과의 교류한다(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⑦ 기타 지인과의 교류한다(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만난다)
⑧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간다
⑨ 취미/문화생활을 하거나, 쇼핑을 한다
⑩ 종교활동을 한다
⑪ 기타

Ⅲ. 사회적 관계

문19.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 **문19-1로** ② 아니오 → **문20으로**

문19-1. 주변 사람 중 개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허물없이 터놓고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친한 사람이 몇 명 정도입니까?

_____**명**

문20. 귀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 2순위까지 중복응답 가능

1순위	2순위

① 가족이나 친지 ② 친구나 직장동료 등 지인 ③ 이웃
④ 종교시설 ⑤ 시민단체 ⑥ 공공기관 ⑦ 기타_____

문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이나 모임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십니까?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소속된 적이 없다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는다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한다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 정당, 시민운동단체, 노조,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①	②	③	④
(2) 종교모임	①	②	③	④
(3) 취미모임이나 동창모임 등 친목모임	①	②	③	④
(4) 학부모 모임 및 주민참여나 활동	①	②	③	④
(5) 기타 오프라인 모임이나 단체	①	②	③	④

문22.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까?

	투표권이 없었음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⓪	①	②	⑨
(2)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⓪	①	②	⑨
(3)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⓪	①	②	⑨
(4)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⓪	①	②	⑨

문23.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회적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SNS에 사회적 이슈 관련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2) 탄원서 및 청원서에 서명하기	①	②
(3) 오프라인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Ⅳ. 응답자 스스로에 대한 인식

문24.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알아챈다.	①	②	③	④
(4)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할 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25.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Ⅴ. 응답자의 경제활동

문26. 귀하는 일자리(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활동 포함)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26-1로** ② 아니오 → **문27로**

문26-1. 첫 직장에 취업 혹은 창업하기까지 준비 기간(최종 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최종 학교 졸업 후 실업 기간 없이 바로 취업(창업)한 경우 '0년 0개월' 로 기입

※ 1개월 미만은 '0년 1개월' 로 표시

□ 년 □□ 개월

문27. 귀하의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취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되는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기입해주십시오.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문27-1로**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문27-1로**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 **문27-1로**
④ 고용주 → **문27-1로**
⑤ 자영언자(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포함) → **문27-1로**
⑥ 무급가족종사자 → **문27-1로**
⑦ 실업자(※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문28로**
⑧ 주부(비경제활동인구) → **문28로**
⑨ 학생(비경제활동인구) → **문28로**
⑩ 군복무(비경제활동인구) → **문28로**
⑪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 **문28로**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5.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6.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실업자	7.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또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비경제활동인구	8~11.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문27-1.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비해당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문27-2. 귀하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7-3. 귀하는 현재 일자리(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7-4. 현재 일자리(직장)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음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2순위까지 중복응답 가능		

① 근로소득, 근로시간
② 자신의 적성 및 흥미, 전공분야와의 관련성
③ 업무량
④ 개인 또는 직업의 발전가능성, 직장(고용) 안정성
⑤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⑥ 출퇴근 거리
⑦ 사회적 평판
⑧ 채용 · 승진 등 직장 운영의 공정성
⑨ 기타_____

문28. 귀하는 직장을 옮긴(이직)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 **문28-1로** ② 아니오 → **문29로**

문28-1. 직장을 옮긴(이직) 경험이 총 몇 회 입니까?

□□회

문28-2. (이직 경험이 1회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이직 경험을 기준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기까지 이직 준비 기간(실업 이후부터 재취업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실업 기간 없이 새로운 직장으로 바로 이직한 경우 '0년 0개월' 로 기입.
※ 1개월 미만은 '0년 1개월' 로 표시

□년 □□개월

문29. 지난 3개월(2020.5.1.~2020.7.31.) 동안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근로소득= 임금 + 사업소득(자영소득 포함)

※ 사업소득자는 순소득=총소득-경비

월평균 [일억 | 천 | 백 | 십 | 일] 만원

문30.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Ⅵ. 가구 일반 사항

문31. 다음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가구원수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 (본인 포함) → 1인 가구인 경우 문31의 (5)로 이동		명
(2) 귀하 외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 명 기입) ① 부모 [ ] 명 ② 자녀 [ ] 명 ③ 배우자 또는 동반자, 이성친구 등 [ ] 명 ④ 형제, 자매 [ ] 명 ⑤ 기타_____ [ ] 명		
(3) 가족 중 노인 수 (본인 포함,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 명 기입)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5년 7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4) 가족 중 아동 수 (본인 포함,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 명 기입)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2년 7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5) 가족 중 장애인 수 (본인 포함,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 명 기입) ※ 등록장애인(1~6등급) 기준이며,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명
(6) 가족 중 만성질환자 수 (본인 포함,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 명 기입) ※ 만성질환이란, 3개월 이상 투병 · 투약하는 경우임 (지속적으로 투병 ·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투약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		명
(7) 가족 중 실업자 수 (본인 포함,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 명 기입) ※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명
(8) 가족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수(본인 포함, 해당 가족이 없는 경우 '0' 명 기입) ※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 자		명

문32.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선세 ③ 보증부 월세(반선세 포함)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 (무상, 사택 등)

문33. 지난 3개월(2020.5.1.~2020.7.31.) 동안 귀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모든 가구원의 총 가구소득임. 즉,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 총 소득=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현금으로 가계에 유입된 소득만 포함하고, 현물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은 제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연금 등 포함)

월평균 [억 | 천 | 백 | 십 | 일] 만원

문34. 귀하 또는 귀댁에서 과거에 받았거나 또는 현재 받고 있는 정부지원이 있습니까?

	과거		현재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지원, 근로장려세제	①	②	①	②
(2) 기초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①	②	①	②
(3)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①	②	①	②
(4) 학비지원	①	②	①	②
(5) 주거지원	①	②	①	②
(6) 청년 관련 수당	①	②	①	②
(7) 취업지원서비스	①	②	①	②
(8) 일과 가정 양립지원제도	①	②	①	②
(9) 기타 상담서비스	①	②	①	②
(10) 기타	①	②	①	②

문35.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 중 생계를 책임지는 분(또는 본인의 주된 양육자)의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⓪ 모름 또는 비해당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문36.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 중 생계를 책임지는 분(또는 본인의 주된 양육자)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⓪ 모름 또는 비해당
① 전문가 또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② 기술공 및 준전문가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또는 판매 종사자
⑤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⑥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⑦ 단순 노무 종사자
⑧ 직업군인
⑨ 주부
⑩ 무직
⑪ 기타_____

문37.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또는 본인의 주된 양육자)의 재산수준(부동산, 저축 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	중하	중간	중상	상
①	②	③	④	⑤

Ⅶ. 응답자 일반 사항

문38~47.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보기
38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 가구주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39	태어난 연도 (주민등록상 생년)	____ ____ ____ ____ 년생
40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41	교육수준 (졸업 기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
42	혼인상태	① 배우자 있음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
43	주관적 건강상태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44	만성질환 유무	① 만성질환 없음 ② 3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 투약하고 있다 ④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하고 있다
45	장애 여부	① 장애인 아님 ②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③ 비등록 장애인(7급 이상, 보훈처 등록장애인 포함)
46	거주 지역 1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47	거주 지역 2	① 동 ② 읍 ③ 면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120,000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정기 간행물 회원**
75,000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